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10. 2. (수요일), 14:00 ~ 17:1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재운, 강봉원, 김문식, 김왕직, 서동철,
유재춘, 이경찬, 이순희, 이승용, 이승우,
이영식, 진상철, 한숙영(이상 13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인제 한계산성 사적 지정	(공 개)
2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	(공 개)
3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보호구역 내외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 개)
4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 특화가로 조성	(공 개)
5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내외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	(공 개)
6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건축물 개축	(공 개)
7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삼릉계 삼층석탑 재현 설치	(공 개)
8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내 임시주차장 설치	(공 개)
9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내 안심가로등(태양광) 설치	(공 개)
10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건립	(공 개)
11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힐링마을 비닐하우스 설치	(공 개)
12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내 사적비 이전설치	(공 개)
13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비공개)
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사찰 증축	(공 개)
15	사적 제392호 여수 선소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공 개)

【검토사항】

16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17	사적 제114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시영상관 건립 계획 검토	(공 개)
18	사적 제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 진입로 등 정비 계획 검토	(공 개)
19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4대문 경관조명 설치 계획 검토	(공 개)
20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검토	(공 개)
21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 보호각 건립 기본계획 (안)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2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보고	(공 개)
----	----------------------------------	-------

23	사적 제361호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차장 정비계획 보고	(공 개)
24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 삼릉 등 건축문화재 재해(지진)대응 기술연구를 위한 지반조사 계획 보고	(공 개)
2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9-10-001

1. 인제 한계산성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강원도 인제군 소재 「인제 한계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제 한계산성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서의 지정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19년 1차 위원회('19.01.09.)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9년 6월 13일 : 2차 현지조사 실시
 - '19년 7월 3일 : 한계산성 남문지 일원 성곽 원형 훼손 유무에 대한 의견 제출(인제군)
 - '19년 7차 위원회('19.07.10.) 원안가결
 - 지정 예고 : 2019.7.23.(문화재청 공고 2019-221호) / 30일 간 / 이의 사항 없음
 - 부처협의 : 협조공문 시행(7.29.~9.26.) 및 대면 협의(9.23.)
 - 환경부 : ① 설악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 요청 /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식물(한라송이풀 등)은 국지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생태적으로 민감하므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엄정한 보존 필요
 - ②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탐방로 최소화
 - 산림청 : 지정 예정지 중 성벽(무성구간 포함), 건물지 등 실제 유적이 있는 곳만 지정하고 그 외 부분은 지정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입목 등이 생육하고 있는 과도한 면적의 산림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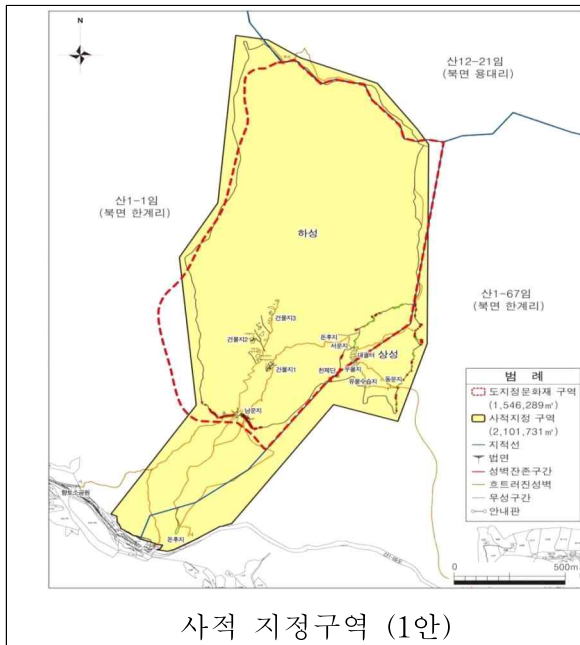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인제 한계산성(강원도 기념물 제17호 / 1973.07.31.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임 일원

- (3) 지정신청 명칭 : 인제 한계산성(麟蹄 寒溪山城)
- (4) 지정신청 면적 : 3필지 2,101,731㎡
- (5) 관리단체(안) : 인제군
- (6) 신청사유
 - 한계산성은 중세시기 활용에 대한 역사기록이 분명하고, 대몽항전에서 승전한 역사적인 장소임. 남한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축조된 산성으로, 상·하성의 구조, 독특한 성문, 원성(元城)과 떨어진 별설(別設)의 돈후(墩埃) 시설 등 그 특징이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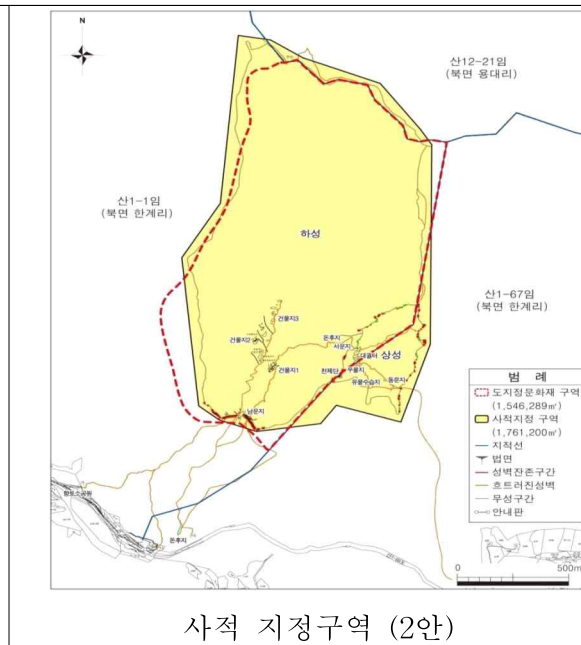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06.1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인제 한계산성은 고려에 초축된 것으로 알려져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지형을 이용해 축조한 성곽으로, 역사적 사건이 명확하고 잔존상황이 양호함.
 - 그리고 남문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 변형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근 자료 조사를 통하여 85년 붕괴된 남문 동측구간 청사진과 1992년 여장 보수공사에서도 문지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인제군사 수록사진(1978~1980년 추정), 강원대학 한계산성 지표조사보고서(1985년 촬영), 1992년 보수공사 준공사진(1993년), 현재(2019년)까지의 사진을 검토해 볼 때, 변화가 없어 남문과 그 주변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짐.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사성과 학술성에 있어서 지정가치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지정구역 설정에 있어서, 상성과 하성을 포함 하되, 진입공간을 포함하는 안(案)과 그렇지 않은 안(案)에서 논의를 통해 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현지조사 후 지정구역(안)>



사적 지정구역 (1안)



사적 지정구역 (2안)

<한계산성 성문(남문) 시대별 사진자료 비교검토(1979~2018)>



1993년 준공사진(설계도면)



2018년 촬영사진(인제군)



(2) 추진경과

- 1973. 7월 도지정문화재 지정(記念物)
- 1986. 12월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 1992. 7~8월 1차 보수공사(남문지 일원)
- 1993. 8~9월 2차 보수공사(남문지 붕괴구간)
- 1994. 6~8월 3차 보수공사(서측성곽)
- 1995. 5~8월 4차 보수공사(서측성곽)
- 1996. 7~12월 5차 보수공사(서측 및 동측성곽)
- 2008. 12월 2006년 중부폭우 수해복구공사(남측 및 서측)
- 2010. 12월 기초현황조사 및 안전성 검토용역
- 2012. 5월 1차 학술대회(역사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
- 2012. 6월 종합정비계획수립(강원도 지원)
- 2014. 12월 1차_하성(下城) 발굴조사용역(강원도 지원)
- 2015. 2월 2차 학술대회(역사적 성격과 조사·보존방안)
- 2015. 11월 2차_상성(上城) 발굴조사용역(강원도 지원)
- 2016. 3월 3차 학술대회(한계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 2016. 7월 국가지정 사적신청(인제군→강원도)
- 2016. 9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 사전심의 가결(강원도)
- 2016. 11월 국가지정 사적신청(강원도→문화재청)

(3)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심의(2016. 9. 1.) : 史蹟 지정신청 가결

(4)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16. 2~4월)

- 한계산성은 전형적인 중세 산성의 대표적 사례로 상성과 하성의 구분, 별설의 돈후 시설물 존재 등 특수한 유구를 가진 산성이어서 한국 축성사상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적지이다.
또한 고려시대 대몽고 최후 항전지이자 승전지로서, 쌍성총관부 세력 확대를 저지한 한계산성 전투가 있었던 역사적 의미 또한 깊은 유적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학술적 가치를 적극 보존하기 위하여 사적 지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계산성은 지금까지의 학술조사결과 현장에 남아있는 유구와 유물들이 중세 시기 활용에 대한 역사기록과 일치 하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큰 국난이었던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최후의 험산대성(險山大城)의 입보용산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 한계산성은 13세기 한국의 석축 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조와 역사성을

가진다. 몽골과의 전쟁과정에서 승리하고, 또 그 역사적 주인공과 침략군이 전해오는 몇 안 되는 산성 가운데 한 곳이다. 또한 험준한 산성으로 이중 성벽의 구조를 이룬 산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진정성과 완전성을 잃지 않았다.

- 한계산성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는 대몽항전(對蒙抗戰)에서 승전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는 점과 이에 대한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

대몽항쟁기 5차와 6차 침입기 협산대성의 입보용 성곽의 변화과정 및 고려말 조선초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동해안 일대의 왜구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성곽을 수축했던 자료들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점에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국방체계에 변화와 축성사적 변화과정을 찾을 수 있는 역사 및 고고학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5) 한계산성 학술대회 개최 성과(요약)

(가) 학회 연계

- ① 학술대회명 : 2012년 한국성곽학회 춘계학술대회(인제 문화유산 가꾸기 학술심포지움)

② 개최현황

- 주제 : 인제 한계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
- 일시 / 장소 : 2012. 05. 25. / 인제 하늘래린센터 강당
- 종합성과
 - 중세성곽의 특징과 가치를 강원도 성곽 중 정밀지표조사, 발굴조사가 이뤄진 성곽을 중심으로 성곽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축성재료, 형태, 분포양상, 수습 및 출토 유물을 통한 고려시대 강원도 성곽의 시기적 변천을 살펴봄. 특히 영동과 영서지역의 산성의 입지, 축성형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한계산성의 시대적 특징과 축성양상을 간접적으로 검토함.
 - 한계산성은 그간 정확한 규모 및 축성사적 특징 등이 밝혀지지 못했으나 2010년부터 시행된 지표조사 및 학술조사를 통해 상·하성의 구조, 출입로, 유물출토지, 건물지, 성외 돈후시설 등이 추가로 확인됨. 이를 통해 한계산성은 대몽고전에서 승전한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중세시기 협지위주 산성의 전형적인 사례로 확인됨.
 - 한계산성의 보존과 정비·활용방안은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 지침」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종합정비계획-활용방안”을 수립함
 - 한계산성 천제단에 대한 사료가 전무하여 유래, 초축시기, 신앙성격 등은

확인할 수 없으나 “성곽내 위치한 유일한 제사”이며, “한계산성이 성곽으로서의 기능이 폐한 후 도교와 불교가 습합된 새로운 신앙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함.

(나) 문화재 발굴조사 및 성과보고 연계

① 1차 한계산성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성과보고 연계

- 주제 : 한계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비·활용방안
- 일시 / 장소 : 2015. 02. 05. / 인제군청 대회의실(4층)
- 종합성과
 - 한계산성 하성(下城) 조사결과 5개 지점에서 건물지와 관련있는 매장유물 및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총 적심건물지 18개소의 건물지와 이와 관련된 수혈, 석렬, 와적, 구들, 박석 등의 93점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대책이 요구됨. 아울러 다수의 명문기와편(至正十八年 : 공민왕 7년)과 어골문, 집선문계의 유문(有紋) 기와편, 무문(無紋) 기와편,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지점을 달리해서 발견되어 주목됨.
 - 한계산성 관련 역사와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그간의 지표조사와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산성의 축성시기와 활용 및 중세성곽의 특징을 면밀히 연구함. 또한 고려시대의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함.
 - 고려가 수행한 대몽고 전쟁의 전체 실상과 마지막 전투였던 1259년 2월의 한계산성 전투에 대한 전개과정과 의의를 검토함으로써 한계산성이 갖는 역사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함.
 - 한계산성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 가장 원칙적으로 지켜야할 기본원칙과 방향, 이를 바탕으로 한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함. 한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질적, 비물질적 가치를 축출해 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요구함.

② 2차 한계산성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성과보고 연계

- 주제 : 한계산성의 가치와 활용방안
- 일시 / 장소 : 2016. 03. 11 / 인제군청 대회의실(4층)
- 종합성과
 - 한계산성 상성(上城) 발굴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구들 건물지 15개소를 비롯하여 석축 3개소, 석렬 2개소, 수혈 2기, 우물지 1개소, 선성관련 시설 3개소, 미상유구 2개소 등 28개소의 유구를 확인함. 특히 宋代 시기의 紹聖元寶와 天聖元寶, 上城 활용시기와 관련된 12세기 후반~13세기 초반

편년의 상감청자 국화무늬 합이 발견되어 고고학적 자료가 축적됨. 또한 불법 등산객으로 인해 한계산성의 성벽 및 잔존유구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한계산성의 축성양상을 입지, 평면구조, 성벽구조, 성문, 부속시설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고, 중부내륙지역의 중세산성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고려 중후기의 축성양상을 확인하였음. 이를 통해 한계산성은 전형적인 중세산성의 특징을 가진 사례로서 학술적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확인함.
- 13세기 고려와 몽골의 전쟁속에서 한계산성 전투, 그리고 방어시설로서의 한계산성이 갖는 역사적 위상을 명확히 재정리함. 특히 한계산성의 전투 기록, 인물, 성곽의 변화와 수축과정 등을 통해 축상사적 위상을 다시 정립함.
- 고려무신집권기 몽고의 침입과 입보산성이라는 한계산성의 역사적 특징, 설악산에 위치한 험준한 지형과 경관성, 구비전승물 등을 토대로 문화재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인제 한계산성(麟蹄 寒溪山城)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8.11.1.(목)
- 조사자 : (1차) 전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인제 한계산성(麟蹄 寒溪山城)으로 신청하였으며, 문화재 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 **인제 한계산성(麟蹄 寒溪山城)**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인제군의 동단부는 태백산맥이 종관(縱貫)하는 산악지대로서 무산(巫山, 해발 1,320m), 향로봉(香爐峰, 해발 1,296m), 설악산·점봉산(해발 1,424), 가칠봉(해발 1,240m) 등이 연달아 연결되면서 험준한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매봉(해발 1,290m)·대암산(해발 1,304m)을 중심으로 하는 도솔산맥에 의해 양구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방대산(해발 1,444m)·개인산(해발 1,341m)·가마봉(해발 1,192m) 등이 연봉을 이루며 홍천군과 경계를 이룬다.
- 그리고 인제지역에는 소양강(昭陽江)의 여러 지류들이 군의 중앙부로 흘러들어 본류와 합류한다. 즉, 북동쪽으로는 미시령에서 발원한 북천(北川)이 창암점(窓巖店)에서 남동쪽으로 꺾어 용대리 남교를 거쳐 한계리에 이르러 한계령에서 발원한 한계천(寒溪川)을 합류하고, 이 한계천을 합류한 북천은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북면 원동리와 인제읍 합강리 사이 지점에서 서화면 이포리에서 발원해 남류하는 서화천(瑞和川)과 합류하고 다시 남류하여 인제군청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진 합강리에서 상남면에서 발원한 내린천(內麟川)을 합류하여 소양강의 상류가 된다. 이외에도 작은 지류들이 소양강 본류 혹은 지류에 합류하고 있다.
- 한편, 남북방향의 높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교통이 매우 불리하지만 진부령(해발 520m)·미시령(해발 825m)·새이령¹⁾ 및 한계령(해발 917m)등의 안부를 통해 일찍부터 동서교통로로 이용하여 왔다.
- 한계산성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의 안산의 남동쪽, 혹은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홍천으로부터 인제를 거쳐 오는 44번 국도는 한계리의 한계교를 건너면서 삼거리가 되고 여기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46번 국도는 북면 용대리를 거쳐

1) 북면 용대리에서 미시령 방향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진입하여 이어지는 고개로 현재의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쪽으로 연결된다. 현재는 실제 교통로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교통로상에 두 개의 고개가 있어서 小間嶺, 大間嶺이라도 하였다. 지금도 그 옛길이 있으며, 예전에는 간성 일대의 영동지역 주민들이 이 고갯길이 비교적 덜 험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였다고 한다.

미시령, 진부령으로 연결된다. 한계 삼거리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44번 국도는 한계산성 남쪽을 지나 한계령을 넘어 양양군 서면 오색리로 이어지게 된다.

- 산성은 한계리 옥녀1교의 북쪽에 ‘옥녀탕’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의 안쪽 골짜기와 주변의 암반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골짜기 안에서 가장 높은 산인 안산(鞍山: 해발 1430.4m)을 중심으로 동남쪽과 서남쪽으로 흘러내린 자연적인 암벽지대와 부분적인 구간의 성벽 구축을 통하여 그 내부의 골짜기를 성내 공간으로 사용하였고(下城), 본래 하성(下城)을 축조하기 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성(上城)은 안산 동남쪽 능선부의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다.
- 산성은 전체적으로 험준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성벽구축이 불필요한 곳에는 석축을 하지 않고 나머지 구간에만 석축을 하였다. 산성의 규모는 상성(내성)이 약 1.7km, 하성(상성 서편 성벽 포함)이 약 6k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한계산성에 대해서는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헌적인, 혹은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학술적 근거는 미약하다. 다만 한계산성 상성의 경우 지표상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대개가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나 이러한 지표 채집 유물만으로 처음 축조한 시기를 확실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¹⁾
- 한계산성은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영동지역으로 이어지는 한계령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하며, 크게 상성(內城이라고도 함)과 하성(外城이라고도 함)으로 나누어진다.
- 상성의 성벽 구간 중 동측과 서측의 성벽은 2010년 이후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곳이다. 산성 동편의 해발 850~1,050m 되는 절벽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천제단이라 부르는 제단터와 대궐터라고 부르는 건물지, 그리고 우물터가 남아 있다. 또 동쪽과 서쪽에 문지(門址)가 남아 있다. 상성 일대에서는 토기편과 청자편, 세발술[鼎]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 하성은 안산(해발 1,430m)을 중심으로 좌우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큰 골짜기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하성 남쪽의 남문지가 있는 골짜기 주변을 제외하고는 매우 험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거의 성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성의 남문지 일대 성벽은 안산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매우 가파르게 시작되며 외측은 거의 절벽을 이루는 지점을 선정하여 계곡부에 축성해 능선부로 연결시켰다.
- 한계산성은 전체적으로 극도로 험준하여 대체로 지형 상 성벽구축이 불필요한 곳에는 석축을 하지 않고 나머지 구간에만 석축을 하였다. 산성의 규모는 기존 조사에서 둘레가 1,800m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²⁾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성벽

1) 한계산성 상성처럼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절험지대에 축조된 성이 일반적으로는 중세시기 이후 특수한 상황속에서 만들어진 入保城이지만 이러한 절험지대가 官 주도의 입보성터로만 활용된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반란세력이나 도적집단도 官의 진압을 피해 일시적인 은신처나 근거지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도 13~14세기 이른바 ‘惡黨의 시대’에 신흥 무장세력인 이 악당들은 대개 매우 험준한 산성에 근거지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 발견되어 상성(내성)이 약 1.7km, 하성(상성 서편 성벽 포함)이 약 6k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성벽은 전체적으로 내탁식으로 축조하였으나 지형에 따라서 협축식, 혹은 능선부를 석재로 메워 단순하게 쌓아 올린 곳도 있다. 남문지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약하게 축조되었다. 하단부는 치석(治石)된 가로 50~70cm, 세로 20~40cm 정도의 장방형 돌을 사용하였으며, 배흘림 형태로 상단부로 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¹⁾ 성벽 위에는 외벽과 잇대어 높이 약 1m, 두께 0.7~0.8m 정도의 평여장(平女牆)을 만들었는데, 타(堞)의 구분이 없이 단지 성의 외벽에 이어 축조하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 또한 하성의 건물지에서 산사면을 따라 상성 서문지로 오르는 길이 있는데, 이곳은 매우 가파른 지대이다. 이곳을 오르다 보면 오르는 길목에 절벽진 곳(비가 올 때는 폭포가 될 것으로 판단됨)이 있는데 요충지의 조그만 능선부를 점령하고 통행자를 제어할 수 있도록 좁고 돌출된 능선부에 하성, 상성과는 별개로 축성하였다. 이는 상성으로 오르는 것을 감시하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이며, 전초성(前哨城)의 성격을 갖는 매우 특이한 시설물 사례이다.
- 하성 내에는 3개소의 건물지와 2개소의 바위그늘을 활용한 주거지 흔적이 있다. 건물지에는 축대 흔적이 남아있고, 와편과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된다. 특히 계곡 동편 건물지와 서편 위쪽(하성 제2건물지)에서는 많은 양의 와편이 수습되었으며 그 가운데 계곡 동편 건물지에서는 ‘지정십팔년(至正十八年)’이라는 연대표기가 새겨진 것이 다수 수습되었다. 이로 보아 이곳 건물지는 1358년(공민왕 7) 경에 개수 또는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지는 하성을 만들어 확장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계산성으로 접근하는 길은 인제읍에서 양양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이용하여 내설악 입구의 옥녀탕 일대에서 산성으로 오를 수 있는 4~5개의 소로(小路)가 있다. 특히 옥녀탕 동·서측의 산사면을 타고 오르는 접근로는 등성하기에 용이한 노선으로 입구에서 도보로 약 30분 정도 오르면 하성 남문지 일대가 나타난다. 이 남문지 주변과 서쪽으로 계곡 건너편의 성벽은 지난 1992년~1996년까지 복원공사를 시행한 곳이다. 계곡을 중심으로 남문을 형성한 동편의 끝은 커다란 자연암벽에 잇대어 마감하였고, 이곳을 돌아 올라가면 상성 쪽으로 연결된 능선(巖稜지대)을 따라 석축 흔적이 남아있다.

2) 강원대학교 박물관, 『한계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86, 26쪽.

1) 위의 책, 27쪽.

○ 또한 한계산성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고려시대(『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사(高麗史)』 권26 「世家」 제26, 元宗2.

“秋七月丁未朔倭寇南道沿海州郡命將軍安洪敏等率三別抄軍禦之.”

“가을 7월 정미 초하루 왜구가 남쪽 바닷가의 주군(州郡)을 침략하자, 장군 안홍민(安洪敏) 등에게 명령하여 삼별초(三別抄)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129 「列傳」 제42 반역3, 崔忠獻.

“四十五年竄 以將軍邊軾郎將安洪敏散員鄭漢珪爲江華收獲使恣其攘奪百姓嗷嗷.”

“〈고종(高宗)〉 45년(1258), 최의가 장군 변식(邊軾), 낭장(郎將) 안홍민(安洪敏), 산원 정한규(鄭漢珪)를 강화수획사(江華收獲使)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백성들을 수탈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130 「列傳」 제43 반역4, 趙暉.

“趙暉，本漢陽府人，後徙居龍津縣. 高宗四十五年，蒙古兵大至，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入保猪島. 東北面兵馬使慎執平，以猪島城大人少，守之甚難，遂以十五州人徙竹島. 島狹隘，無井泉，人皆不欲，執平強驅納之. 人多逃散，入者十二三. 糧儲乏少，執平分遣別抄，請粟於朝，催運他道，守備稍懈. 暉與定州人卓青及登·文州諸城人合謀，引蒙古兵，乘虛，殺執平及登州副使朴仁起·和州副使金宣甫·京別抄等. 遂攻高城，焚燒廬舍，殺掠人民，以和州迤北，附于蒙古. 蒙古乃置雙城忽管府于和州，以暉爲摠管，青爲千戶.

明年，暉黨自稱官人，引蒙古兵來，攻寒溪城，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抄，出擊盡殲之. 王使郎將金器成·別將郭貞有，齎國驢，如蒙古屯所，慰之. 器成等至文州，暉黨在寶龍驛，與蒙古兵三十餘人，殺器成等并僉從十三人，掠國驢而去. 暉黨又引東眞國兵，屯春州泉谷村，有神義軍五人，詐稱蒙古將軍車羅大使者，馳入其屯曰，“解爾弓劍，聽元帥救命. 高麗太子將入朝，汝何殺高麗使者，奪國驢乎？爾罪當死.” 皆伏地股栗. 於是，揮鞭召別抄，四面攻之，無一脫者，遂得國驢及器成等衣物而還. 元宗十二年，襄州民張世·金世等，以蒙古將有所鞫，謀殺守令·吏士，將逃匿遠地，事覺伏誅. 其餘黨天瑞等八人，潛投暉請兵. 暉給四百餘人，猝入襄州，執縛知州事·兩班等，誣以謀率人民徙居海島，遂欲脅遷于和州. 王請達魯花赤，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而去. 王奏于蒙古，請治天瑞等罪，帝遣只必哥，來問之. 時只必哥在西京，暉自蒙古還，謂只必哥曰，“我奏，‘襄州人實自納款上朝，非我驅迫其民.’ 帝卽以詔授我，使勿問.” 只必哥遂不問. 子良琪襲摠管，孫噉自有傳.”

“조휘(趙暉)는 원래 한양부(漢陽府) 사람이었으나, 뒤에 용진현(龍津縣)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고종(高宗) 45년(1258), 몽골군이 대거 침입하자, 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州)·장주(長州)·의주(宜州)·문주(文州) 등 15주(州)의 사람들이 저도(猪島)로 들어가 지켰다.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신집평(慎執平)은 저도가 성(城)은 크지만 사람 수가 적어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15주의 사람들을 죽도(竹島)로 옮기

도록 하였다. <그런데> 죽도가 협소하고 험악하며 우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자, 신집평은 강제로 사람들을 <죽도로> 몰아넣으니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들어간 사람은 열에 한두 명뿐이었다. 비축한 양식이 떨어져 가자, 신집평이 별초(別抄)를 파견하여 조정(朝廷)에다 곡식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다가도 조운(漕運)을 재촉하다보니 점차 수비가 느슨해졌다. 조휘는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과 등주(登州)·문주의 여러 성 사람들과 논의하여 몽골군을 끌어들이는 가운데 빈틈을 노려 신집평과 등주부사(登州副使) 박인기(朴仁起), 화주부사(和州副使) 김선보(金宣甫),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드디어 고성(高城)을 공격하여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뒤에, 화주 이북 <의 땅> 을 들어 몽골에 투항하였다. 이에 몽골이 화주에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總管)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였다.

다음 해(1259), 조휘 일당은 관료라고 자칭하면서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한계성(寒溪城)을 공격하였다.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洪敏)이 야별초(夜別抄)를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여 그들을 섬멸하였다. 왕이 낭장(郎將) 김기성(金器成)과 별장(別將) 곽정유(郭貞有)를 시켜 나라에서 보내는 예물[國贖]을 가지고 몽골군이 주둔한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김기성이 문주에 도착했을 때, 조휘 일당은 몽골군 3,000여 명과 보룡역(寶龍驛)에 있다가 김기성과 그 수행원[僉從] 13명을 죽이고 예물을 노략질하여 가버렸다. 조휘 일당이 또한 동진국(東眞國)의 병사를 이끌고 춘주(春州) 천곡촌(泉谷村)에 주둔하였다. 신의군(神義軍) 5명으로, 몽골 장군(將軍) 차라대(車羅大, 자릴타이)의 사신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어 말을 달려 주둔지로 들어와서는 말하기를, “너는 활과 칼을 풀고 원수(元帥)의 명령을 들어라. 고려(高麗)의 태자가 장차 입조(入朝)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 고려 사신을 죽이고 예물을 빼앗았느냐?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모두들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 이에 채찍을 휘두르며 별초를 불러서 사방에서 공격하여 남김없이 죽인 후 예물과 김기성의 옷·물건을 되찾아서 돌아갔다. 원종(元宗) 12년(1271), 양주(襄州) 백성인 장세(張世)와 김세(金世) 등은 몽골이 자신들을 국문(鞫問)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령과 서리[吏士]들을 죽이고 먼 곳으로 가 숨어 지내자고 모의하였는데, 그만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그 여당(餘黨)인 천서(天瑞) 등 8명이 몰래 조휘에게 투항하여 군사를 요청하였다. 조휘가 군사 400여 명을 내어주자, <천서 등이> 갑자기 양주로 들어가 지주사(知州事)와 양반(兩班)을 잡아서 결박한 뒤 <그들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해도(海島)로 옮기자고 모의하였다고 무고하면서 드디어 <민(民)들을> 위협하여 화주로 옮기도록 하였다. 왕이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에게 부탁하여 사람을 보내 설득하였으나 천서가 이를 듣지 않고 말을 달려가서 지주사 및 서리(胥吏)와 민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서 가버렸다. 왕이 몽골에 아뢰어 천서의 죄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니, 황제가 지필가(只必哥, 지비케)를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 지

필가는 서경(西京)에 있었는데, 조휘가 몽골에서 돌아온 뒤 지필가에게 말하기를, “제가 황제께 아뢰기를, ‘양주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원[上朝]에 복종한 것이지, 제가 그들을 강제로 몰아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께서 즉시 저에게 조서(詔書)를 내려주셔서 문죄(問罪)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지필가가 마침내 더는 묻지 않았다. <조휘의> 아들 조양기(趙良琪)는 충관직을 세습하였으며, 손자 조돈(趙墩)은 따로 열전이 있다.”

-한계산성이 축조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고려사절요』의 기사를 보건대 고종 19년(1232) 경에 축조(또는 수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16, 高宗三, 高宗 十九年, 6월.

“崔瑀會宰樞於其第，議遷都。時，國家昇平既久，京都戶至十萬，金碧相望。人情安土重遷，然畏瑀，無敢發一言者。兪升旦曰，“以小事大，理也。事之以禮，交之以信，彼亦何名而每困我哉。棄城郭，捐宗社，竄伏海島，苟延歲月，使邊陲之氓丁壯盡於鋒鏑，老弱係爲奴虜，非爲國之長計也。”夜，別抄指諭金世沖排門而入，詰瑀曰，“松京自太祖以來歷代持守，凡二百餘年。城堅而兵食足，固當戮力而守以衛社稷。棄此而去，將安所都乎。”瑀問守城策，世沖不能對。御史大夫大集成謂瑀曰，“世沖效兒女之言，敢沮大議，請斬之以示中外。”鷹揚軍上護軍金鉉寶希集成意，亦言之。遂引世沖，斬之。是日，瑀奏請王，速下殿，西幸江華，王猶豫未決。瑀奪祿轉車百餘兩，輸家財于江華，京師洶洶。令有司刻日發送五部人戶，仍榜示城中曰，“遷延不及期登道者，以軍法論。”又分遣使于諸道，徙民山城海島。”

“최우(崔瑀)가 자기 집에 재추(宰樞)들을 모아, 도읍을 옮기는 일을 의논하였다. 그때 나라가 오랫동안 태평하여 경도(京都)의 호수(戶數)가 10만에 이르고 호화로운 저택이 즐비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최우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 말을 꺼내는 자가 없었다. 유승단(兪升旦)이 말하기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치입니다. 예로써 섬기고 믿음으로써 사귀면, 저들 역시 무슨 명분으로 매번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성곽과 종묘사직을 버리고 섬에 숨어서 구차하게 세월을 끌며,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정은 전투에서 다 죽고, 노약자는 묶여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장구한 계획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밤에 별초지유(別抄指諭) 김세충(金世沖)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최우에게 따져 말하기를, “송경(松京)은 태조 이래 역대로 지켜 온 것이 무릇 200여 년입니다. 성은 견고하고 군사와 양식은 풍족하니, 진실로 마땅히 힘을 모아 지켜서 사직을 보위해야 합니다. 이곳을 버리고 가면 장차 어느 곳에 도읍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최우가 성을 지킬 계획을 물으니, 김세충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어사대부 대집성이 최우에게 말하기를, “김세충이 아녀자의 말을 본받아 감히 중대한 의논을 방해하니, 청컨대 그를 목 베어 중외에 보이십시오.”라고 하였다. 응양군 상호군(鷹揚軍上護軍) 김현보(金鉉寶)도 대집성의 뜻에 맞추어서 또한 그렇게 말하였다. 드디어 김세충을 끌어내 목을 베었다.

이 날 최우가 왕에게 아뢰어 속히 대전(大殿)에서 내려와 서쪽 강화도로 행차할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였다. 최우가 녹전거(祿轉車) 100여 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서울이 흥흥하였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오부(五部)의 인호(人戶)를 보내게 하고, 성안에 방(榜)을 붙여 이르기를, “지체하여 기한 내에 길을 떠나지 않는 자는 군법으로 논한다.”라고 하였다. 또 사자를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을 산성(山城)과 섬으로 옮겼다.”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17, 高宗四, 高宗 四十六年, 2월.

“二月. 登和州等諸城叛民自稱官人, 引蒙人來, 攻寒溪城. 防護別監安洪敏率夜別抄出擊, 盡殲之.”

“2월. 등주(登州)·화주(和州) 등의 여러 성의 반란한 백성이 관인(官人)을 자칭하고 몽고인을 인도해 와서 한계성(寒溪城)을 공격하였다.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洪敏)이 야별초(夜別抄)를 이끌고 출격하여 섬멸하였다.”

2) 조선시대

(1) 지리지

○ 『세종실록(世宗實錄)』, 153권, 「地理志」江原道, 春川都護府, 麟蹄縣

“麟蹄: 縣監一人。 本高句麗 猪足縣, 【一云烏斯回。】 新羅改稀蹄縣, 爲楊麓郡領縣。 高麗改麟蹄縣, 初屬春州, 後屬淮陽。 恭讓王元年己巳, 始置監務, 本朝因之。 太宗十三年癸巳, 例稱縣監。 屬縣一, 瑞和, 【《三國史》作禾。】 本高句麗 玉岐縣, 新羅改馳道, 爲楊麓郡領縣。 高麗改瑞禾, 初爲春州任內, 後屬淮陽。 別號瑞城。 所一, 伊布。

【古屬春川, 今上六年甲辰, 竝來屬。】 伏龍山。 【在縣北, 縣人以爲鎮山。】 四境, 東距襄陽四十一里, 西距楊口二十七里, 南距洪川三十二里, 北距杆城六十九里。 戶一百二十五, 口二百單七。 瑞和戶七十二, 口一百九十一。 軍丁, 侍衛軍六十九, 缸軍四。 土姓二, 朴、許; 亡姓二, 曹、孫。 瑞和姓一, 崔; 亡姓四, 玄、李、谷、邵。 厥土瘠, 風氣寒, 墾田一千二百三十三結。 【水田止十四結。】 土宜, 粟、稷、豆、麥、桑、麻、梨、栗。 土貢, 蜂蜜、黃蠟、磁石、松子、五倍子、石茸、眞茸、芝草、漆、鹿脯、狐皮、狸皮、獐皮、熊皮、猪毛、熊毛、正鐵。 藥材, 茯苓、五味子、當歸、人蔘、前胡、芍藥、牽牛子、秦艽、安息香、白膠香、白花蛇、羚羊角、熊膽。 寒溪山石城二, 在縣北十五里。 【上城, 周回七百二十九步, 有一泉, 旱則渴。 下城周回一千八百七十二步, 有三洞水, 合流爲一小溪, 長不渴。】 驛四, 富臨、馬奴、臨川、嵐校。 【右二驛, 皆在瑞和。】 ”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인데,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희제현(稀蹄縣)으로 고쳐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에서 인제현(麟蹄縣)으로 고치어, 처음에는 춘주(春州)에 붙어있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붙였고, 공양왕(恭讓王) 원년 기사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칭하였다. 속현(屬縣)이 1이니, 서화(瑞和)는 【《삼국사(三國史)》에는 화(禾)로 되었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에서 치도(馳道)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서화(瑞禾)로 고쳐, 처음에는 춘주(春州) 임내로 하였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붙였다. 별호(別號)는 서성(瑞城)이라 한다. 소(所)가 1이니, 이포(伊布)이다.

【예전에는 춘천(春川)에 붙였었는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함께 내속(來屬)시켰다.】 북룡산(伏龍山) 【현의 북쪽에 있는데, 현의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양(襄陽)에 이르기 41리, 서쪽으로 양구(楊口)에 이르기 27리, 남쪽으로 홍천(洪川)에 이르기 32리, 북쪽으로 간성(杆城)에 이르기 69리이다. 호수가 1백 25호요, 인구가 2백 단(單) 7명이며, 서화의 호수가 72호요, 인구가 1백 9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69명이요, 선군이 4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박(朴)·허(許)요, 망성(亡姓)이 2이니, 조(曹)·손(孫)이며, 서화(瑞和)의 성이 1이니, 최(崔)요, 망성(亡姓)이 4이니, 현(玄)·이(李)·곡(谷)·소(邵)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墾田)이 1천 2백 33결(結)이요, 【논이 겨우 14결이다.】 토의(土宜)는 조·피·팥·보리·뽕나무·삼·배·밤이다. 토공(土貢)은 꿀·밀[黃蠟]·자석(磁石)·잣·오배자(五倍子)·석이·느타리·지초·칠·사슴포·여우가죽·삼괭이가죽·노루가죽·곰가죽·돼지털·곰털·시우쇠요, 약재(藥材)는 북령·오미자·승검초뿌리·인삼·바디나물뿌리[前胡]·함박꽃뿌리[芍藥]·나팔꽃씨[牽牛子]·쥐꼬리망초뿌리[秦]·북나무진[安息香]·백교향(白膠香)·산무애뱀[白花蛇]·산양이뿔[羚羊角]·웅담(熊膽)이다. 한계산 석성(寒溪山石城)이 2이니,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

【상성(上城)은 둘레가 7백 29보(步)이며, 한 샘이 있는데, 가물면 마르고, 하성(下城)은 둘레가 1천 8백 72보이며,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한 작은 냇가 되었는데, 잘 마르지 아니한다.】 역(驛)이 4이니, 부림(富臨)·마노(馬奴)·임천(臨川)·남교(嵐校)이다. 【위의 두 역은 모두 서화에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麟蹄縣, 「山川」.

“寒溪山은 현의 동쪽 50리에 있다. 산 위에 성(城)이 있다. 냇물이 성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곧 폭포를 이루어 내려가니 흐름이 수백 척의 높이에 달려 있으므로 바라보면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진 것 같다. 圓通驛으로부터 동쪽은 좌우쪽이 다 큰 산이어서 洞府는 깊숙하고, 산골 물은 가로 세로 흘러 건널목이 무려 36곳이나 된다. 나무들은 갈대 자리를 맡아 세운 듯한 것이 위로는 하늘에 솟고 곁에는 가로 뻗은 가지가 없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욱 높아서 그 꼭대기를 볼 수 없다. 또 그 남쪽에는 봉우리가 절벽을 이루었는데 그 높이가 천 길이나 되어서 기괴하기가 형언할 수 없다. 너무 높아서 새도 날아 지나가지 못하며, 行人들은 절벽이 떨어져 누르지나 않을까 의심한다. 그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바위에 부딪쳐 못을 이루었는데 盤石이 앉을 만하다. 또 동쪽의 몇 리는 洞口가 매우 좁고, 가느다란 작은 길이 벼랑에 걸려 있다. 빈 구멍은 입을 벌리고, 높은 봉우리들은 높이 빼어나서 용이 마주 당기고 범

이 웅켜 잡을 것 같으며 層臺를 여러 층 겹쳐 놓은 것 같은 것이 수없이 많아서 그 좋은 경치는 嶺西에 으뜸이 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麟蹄縣, 「山川」.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麟蹄縣, 「古蹟」.

“寒溪山古城 石築周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一井今半頽落.”

“寒溪山古城은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6,278척이고, 높이가 4척이며, 성안에 우물 1개소가 있다. 지금은 반이나 퇴락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 麟蹄縣, 「古蹟」

○ 『여지도서(輿地圖書)』 江原道, 麟蹄縣篇, 「古跡」.

“寒溪古城 石築周回六千二百七十八尺高四尺內有二井今則頽破”

○ 『인제읍지(麟蹄邑誌)』

“城池寒溪山古城東五十里周六千二百七十二尺有大泉”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圉典故), 폐산성.1)

“麟蹄 寒溪山古城(縣東五十里) 石築(有川城中流出成瀑”

○ 『해동역사(海東釋史)』 속집 제13권, 地理考 13, 山水 1, 寒溪山.2)

“(三才圖會續集) 寒溪山在江原道麟蹄縣東五十里 山上有城有川 自城中流出 卽成瀑布而下 懸流數百尺 望之如白虹垂天 … ”

“<삼재도회속집>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한계산은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에서 동쪽으로 50리 되는 곳에 있다. 산 위에는 성(城)과 냇물이 있으며, 냇물이 성안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곧바로 폭포를 이루어 흘러 내린다. (물이) 매달리듯 수백 척이나 떨어져 흐르는데, 바라다보면 마치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워진 것 같다. … ”

○ 『대동지지(大東地志)』 江原道, 麟蹄, 城池.

“寒溪山古城 東五十里周六千二百七十二尺有大泉”

“고종 2년(1864) 김정호(金正浩)가 편찬한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한계산고성(寒溪山古城)’이라 칭하였고, “(관아의) 동쪽 50리에 있으며 둘레가 6,272척인데 (성안에) 큰 샘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유산기

○ 『곡운집(谷雲集)』 권4, 寒溪山記 11月 丙申.1)

“…絶壁周遭三面 其缺處 跨川築城 高可四五丈 又有石門 宛然尙存 城内土地平衍 可以棲止…”

“…絶壁이 三면을 둘러치고 만나는 그 틈새에 개천을 가로질러 성곽을 축조하였습니다. 높이는 4~5丈이나 되고 또 石門이 있는데 아직도 완연하게 남아있으며, 성 안은 토지가 편편하여 거주할만한 합니다.…”

○ 『옥동선생문집1권(玉洞先生文集卷之一)』 七言絶句, 遊寒溪2)

“石門深鎖洞天寬。千丈丹崖萬丈山。寄語吹笙王子晉。倘分驂下一青鸞”

○ 『와유록(臥遊錄)』의 朴聖源, 『寒雪錄』 中3)

“…此玉女潭也. 上有金傅王城, 闕雉堞礎臺尙宛然. 余聞, 縣南又有所謂金傅王洞, 豈當年避 居此境, 而又依險作城, 以奇窘命耶.”

“…이것은 옥여담입니다. 위에 김부왕성의 성가퀴와 주춧돌이 아직도 완연합니다. 내가 듣기는 인제현 남쪽에 이른바 김부왕동이 있다는데, 아마도 그 무렵에 여기서 피해 살면서 험한 곳을 의지해 성을 쌓고 궁색한 목숨을 맡긴 것 같다.”

1) 『燃藜室記述』은 조선후기의 학자인 이극익(李肯翊: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 사서.

2) 『海東釋史』은 조선후기 실학자 한치윤(韓致胤)이 단군조선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책.

○ 『제 한계사(題寒溪寺)』⁴⁾

“題寒溪寺(在麟蹄東北三十里 山水之勝甲於嶺西 新羅太子不忍國亡 入此倚巖爲屋 金先生時習隱居于此洞 又有飛仙書一絕于絕壁云 “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王號馬韓. 留與永郎游水府, 又牽春酒滯人間.” 至今傳爲古蹟“

“한계사에 제하다.(절은 인제 동북쪽 30리에 있다. 산수의 뛰어난 풍경은 영서에서 으뜸이다. 신라태자가 나라가 망한 것을 잊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와 바위에 집을 지었다. 김시습이 이 골짜기에 거처하였다. 또 비선대에 절구 하나를 절벽에 새겨놓았는데, “단군 무진년을 앞서 났고, 보기는 기자가 마한을 일컫던 때에 미치도다. 우연히 영광과 더불어 수부에 노닐다가, 또 봄 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물도다.” 지금도 전해져 옛 고적이 되었다.”

雪嶽高臨大海觀	설악산 높게 큰 바다
青天萬鈿玉巒岼	푸른 하늘위로 만 길 옥빛 산 솟아 있다.
巖泉淼淼嵐光濕	바위의 샘물은 졸졸 흘러 산 빛을 적시고
松洞陰陰日色單	소나무 골짜기는 그늘져 태양빛도 외롭다.
寂寞前朝還廢堞	적막한 앞 시대 왕조는 도리어 무너진 성첩
淸寒遺躡自空壇	김시습 남긴 자취는 텅 빈 제단으로 남아있다.
人間春盡書安在	인간세계 봄은 다 했는데 글은 어디에 있는가
欲往尋之思羽翰	가서 찾고자 하니 신선을 떠 올린다.

○ 『한계록(寒雪錄)』⁵⁾

몇 리를 가서 동쪽으로 가리산 서쪽 네 개의 각이 있는 하나의 봉우리를 가리키며, “이 봉우리는 사각봉으로 부릅니다”라고 한다. 또 5리를 가서 다시 북쪽으로 절벽 위에서 내려오는 폭포를 가리키며, “이것은 옥녀담(玉女潭)”입니다. 위에 김부왕성(金傅王城)⁶⁾과 문, 담과 주춧돌이 아직도 완전합니다”라고 한다.

○ 『한계폭기(寒溪瀑記)』⁷⁾

한계동 30여리를 지나면 좌우가 모두 산이다. 모든 산들은 크고 험악한데, 오른편을 같이산(鞞夷山)이라 하고 왼편을 설악이라 한다. 길이 들어갈수록 봉우리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이 더욱 특이한데, 모두 설악의 한 부분이다. 북쪽으로 엇비슷이 가려진 곳을 옥녀담(玉女潭)이라 부른다. 옥녀담을 올라가면 작은 폭포이고, 폭포에서 올라가면 오래된 궁예왕성(弓裔王城)⁸⁾이 있어서 성골이라 부른다.

○ 『한계고성』의 국립공원 설악산(雪嶽山) 中⁹⁾

한계(寒溪)의 옛 성은 한계천을 끼고 한계리 북쪽에 있다. 성두(城頭)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높이가 상당히 높다. 약7미터 가량이나 되어 보인다. 지금 성첩(城疊)의 일부만 남아 있을 뿐 그 전무를 알 길이 없다.

이 한계성(한계성)의 축조가 모호하다. 전언(傳言)에 신라말(新羅末) 제56대 경순왕

(敬順王)때 축성하였다고 하나 그것은 증거가 없는 말이고 더욱 고려말(高麗末)의 축성이라고 하는 설(說)은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설(說)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공민왕(恭愍王)때 전국을 휩쓸던 왜구(倭寇)들의 내습으로 국내는 전전긍긍할 때였다. 이 때는 왜구가 완전 무장하여 멀리 중국의 산둥까지 원정가는 때였다.

공민왕 36년 6월에 왜구들은 대거 침입을 하였는데 강릉이 가장 심한 피해지구였다. 그러므로 동해안 연안은 그들의 노략질 대상이 되었으므로 설악산을 넘어 산 마을까지 그들 왜구들의 대상이었다. 고려말 공민왕때 도처에 왜구들을 방어하는 성(城)이 쌓였던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다.

이 옛성에서 출토한 기와조각(瓦片)의 명기(銘記)가 『지정십팔년(至正十八年)』이란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至正十八年』이면 공민왕 18년이다. 고려에서 원(元)의 년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해 五月(1369년)에 원의 년호(年號) 『至正』 사용을 정지하였다. 그러면 이해 오월 이전에 축성하여 기와에 명기를 넣었다는 것 같다.

신라 말 경순왕때는 신라가 망하는 때라 축성할 국력보다 그런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한계고성(寒溪古城)은 고려 공민왕 18년에 축조한 것임을 밝혀 두고 싶다.

한계고성의 주위는 승경(勝景)을 이루고 있어 북쪽에는 옥녀탕(玉女盥)이 있고 또 구름사이에 삼각봉(三角峰)은 가히 이 성으로 하여금 돋보이게 하고 있다. 천년의 세월에 청태가 낀 벽석(壁石)만 남아 지난날을 새롭게 하고 있다. 더욱 성터의 북쪽 언덕에 옛날 대궐터가 있었다 하고 그 북쪽에 망경대(望京台)가 있으며 경순왕(敬順王)이 이곳에서 신라 서울 금성(金城)¹⁰을 바라보았다는 설화(說話)가 있으나 믿을 수 없는 설화(說話)이다.

○ 『한계고성』의 설악산 탐승인도지(雪嶽山 探勝引導誌) 中¹¹)

傳하는 바에 의하면 이 城은 신라망국시(新羅亡國時)의 末王 김부왕(金富王)이 소축(所築)한 것이라 하나 거기서 발견한 기와짚의 표면(표면)에는 지정십팔년(至正十八年)이라 쓰여 있다고 한다. 至正十八年이라 하면(西紀 一三五八)년이며 지방연호(支邦年號)로 말하면 이미 元나라가 망하고 明나라가 건국되어 明太祖洪武 六年에 해당하므로 이미 망해버린 원나라 順宗때의 至正十八年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 우리 고려국(高麗國)도 元나라와 거이 때를 같이하여 망국애운(亡國哀運)에 부탁치고 있었으므로 그전대로의 元나라를 支持하는 의미에서 지정연호(至正年號)를 그대로 연용(延用)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至正十八年이라면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二十二年 해당하므로 이 城을 영축(營築)한 것은 新羅末王 경순왕(敬順王)때의 것이 아니라 고려말 공민왕 시대의 것이거나 不然이면 이때에 重修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성의 규모는 高가 大概 이십여척(이십여척)이며 城우에 廣은 三層으로 된 疊성(疊城)이다. 그리고 城趾밑에는 『대궐터』가 있는데 順한 肉山으로 포위하고 있는 아늑한 분지(盆地)이며 면적은 3,000평은 훨씬 넘는 넓이이다.

겨울에는 여기를 들어가면 陽地바르고 따뜻하므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은 생각을 일어버릴 정도로 매력(魅力)을 느끼게 된다. 여기만 벗어나면 기암절벽이 連다라 삭립(削立)하여 바라만 보아도 전율(戰慄)을 느낄 정도이나 웬일인지 대궐터(大闕터)만 野에서 볼 수 있는 肉山으로서 그악스러운 산세는 하나도 볼 수 없다. 여기도 경순왕의 留하신곳으로 傳하여 지난 전기성지(前記城趾)의 至正年號로 미루어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新羅末이던 高麗末이던 간에 亡國의 悲運에 몰린 末王의 만곡(萬斛)의 눈물을 머금고 이러한 深山僻地로 避難하여 一時의 安息處나마 만들기 위하여 小規模의 城疊을 쌓고 말이 曰 「大闕터」라 하였다는 그 옛날의 哀史一條를 더듬어 보면 新羅라면 千年, 高麗라면 170年間의 社稷을 一朝에 잃어버린 吊國恨의 一端이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속에도 몽클하게 서리어 준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역사적·학술적 가치

- 한계산성에 대해서는 그간 정확한 규모나 상성, 하성의 구조와 접근로, 기타 내부 건물지나 부대시설물지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시행되면서 상성과 하성의 형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었고, 하성에서의 새로운 건물지 확인, 산성 원성(元城)과 별개로 축조된 둔후(墩垵) 시설물 확인, 여러 새로운 유물 산포지 확인,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상성의 성문터와 산성 출입로에 대한 확인 등 여러 한계산성과 관련된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계산성은 역사적, 축성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

1) 『谷雲集』은 조선후기의 유학자인 김수증(金壽增 : 1624~1701)의 시문집.

2) 『玉洞先生文集』은 조선중기의 문신 문익성(文益成 : 1526~1584)의 문집.

3) 朴聖源(1697~1757)

『와유록』은 고려말에서 18세기 전반기까지의 松都, 關東, 關北 지역 일대를 여행하고 지은 역대 문인들의 기행록을 모아 엮은 책으로, 7冊의 筆寫本이다. 『臥遊錄』이라는 冊名은 직접 몸으로 유람하지 않고서도 집안에 누워 책을 읽으면서 勝景과 유적을 완상할 수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序跋이 없어 編者와 編年은 알 수 없다. 필사 시기도 미상이다. 18세기 후반의 학자인 俞晩柱(1755~1788)의 저작인 『欽英』(古 0320-25)에는 族祖 文翼公 俞拓基(1691~1767)가 『臥遊錄』 10여권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책이 유척기가 편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유척기가 편찬한 것을 모본으로 하여 후대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정필달(鄭必達, 1611~1693).

5)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15, 『조선선비, 설악에 들다』.

6) 한계산성을 말한다.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敬順王)의 이름이다.

7) 이의숙(1733~1807), 『한계폭기(寒溪瀑記)』.

8) 한계산성을 말한다.

9) 황호근(黃泓根), 1973, 『통문관(通文館)』.

10) 신라 초기 왕이 살던 성의 이름.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 즉위 21년(BC 37)에 궁성을 쌓고 금성이라 했다. 이후 여기에 신라의 역대 왕들이 거처했고, 101년(파사이사금 22) 금성의 남동쪽에 새로 월성을 쌓은 후에는 두 성을 번갈아 사용하다가 5세기 후반에는 잠깐 명활성에 거처하기도 했다.

11) 한찬석, 1960, 『설악건설』.

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첫째, 중세시기 활용에 대한 역사기록이 분명하고, 대몽항전에서 승전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하는 점이다. 한계산성은 초축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사(高麗史)』 기록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259년(고종 46) 몽고에 투항한 조휘 일당이 몽고 군사를 끌고 와서 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산성을 지키고 있던 방호별감 안홍민(安洪敏)이 야별초군(夜別抄軍)를 거느리고 나아가 습격해 모두 섬멸하였다. 당시는 몽고 주력군이 서경에 주둔하면서 고려의 항복과 출륙환도(出陸還都)를 계속 압박하며 약탈과 함께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었고, 동북지역에서는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어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던 시기였다. 몽고군이 한계산성 전투에서 섬멸됨으로써 비록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옮겨가 있는 수세적 상황에서도 고려의 항전에 대한 저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몽고의 쌍성총관부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저지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고려 공민왕 당시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한계산성을 크게 개축한 것은 바로 그 이전에 이 산성에서 몽고를 상대로 승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
- 둘째, 한계산성은 중세시기 험지위주 산성의 전형적인 사례로, 상성(上城)은 현재 남한내에서는 가장 험준한 곳에 축조된 산성이라 할 수 있다. 하성은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에서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계곡부를 따라 접근하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상성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절벽지대여서 쉽게 오르기 어렵다. 동문으로 통하는 길은 매우 좁고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 개설되었지만 동문 근처에 이르면 거의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지여서 보조시설물이 없으면 등성하기 어렵다. 또 서문으로 통행하는 노선도 문터 앞쪽의 경사면이 매우 가파르고 좁은 절벽지대를 가로질러 가야하므로 보조시설물 없이는 통행이 위험한 곳이다.
- 셋째, 중세산성에서 종종 나타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곽의 확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산성은 상성과 하성으로 나뉘어지며, 상성은 몽고침입기에 사용하던 곳이며 하성은 그 후대, 즉 고려 공민왕 당시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진부령, 한계령, 새이령 등을 통해 중부내륙으로 진입하는 요충지에 자리잡은 한계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산성의 확장 개축은 중세시기 산성에서 나타나는 중요 축성 양상 가운데 하나이다.
- 넷째, 성벽에 연결된 능선을 일정구간 점거하기 위한 연장 성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세 이후의 산성에서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고대에는 능선을 따라 길게 성벽을 연장시켜 축조하기 보다는 능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특별히 성벽을 더욱 높게 하거나 약간 돌출형으로 성벽을 돌려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중세 이후에는 성벽을 길게 능선을 따라 늘려서 일정구간의 능선을 점거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급적 성벽에 대

한 신속한 직접적 공격을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성곽의 모양을 변형시킨 것이다. 물론 용도(甬道)도 유사한 것이지만 용도는 주로 성곽에 인접한 봉우리를 점거할 목적으로 축조한 것이지만 능선연장성벽은 산성으로 접근이 용이한 능선을 점거하고 지연전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 다섯째, 성밖에 별설(別設) 돈후(墩堠) 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중세산성의 경우 험준하고 깊숙한 산악지대에 위치함으로써 교통로에 대한 근접 감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한계산성의 경우 적이 이동하거나 진입하는 입구지점 가까이에 원성(元城)과는 별개로 돈후(墩堠) 시설물을 축조하였다. 등성로의 길목이 되는 요충지점에 작은 돈후시설물은 단순한 망대가 아니라 적이 대한 감시는 물론 일시적인 차단을 통한 지연전을 전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옥녀탕 동측의 소로를 통해 등성하는 초입구와 하성에서 상성 서문지로 통하는 요충지점에 이러한 시설물이 축조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성곽에 연접한 능선을 따라 길게 돈후(墩堠) 혹은 망대(望臺) 시설을 축조하는 형태는 중세시기 이후 나타난 독특한 성곽시설물인데, 한계산성의 경우는 원성(元城)에 연접하지 않고 별설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한 사례이다.
- 이와 같이 한계산성은 역사적으로 대몽고전에서의 승전함으로써 몽골 영향하의 쌍성총관부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연결된 산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세시기 험지위주 산성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성곽의 확장, 성벽에 연결된 능선부 축성, 별설의 돈후(墩堠) 시설물 축조 등 중세 산성의 특징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유적지이다.

(2) 국가 사적지정의 필요성

- 인제 한계산성은 2차례의 지표조사와 1차례의 종합정비계획, 2차례의 발굴 조사 등의 학술조사와 3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밝혀졌다.
- 한계산성의 역사적 위상은 대몽항쟁기 한계산성 전투의 승리를 들 수 있다. 이 전투는 강도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한계성 인근 지역의 입보민들이 참여하여 적을 격퇴한 의미 있는 전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0년 여몽전쟁의 최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시에 몽골이 쌍성총관부의 설치와 함께 조휘 등의 부몽세력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책동을 저지한 싸움이었다. 또한 6차 침입기의 강도정부 무인집권층의 변화 속에서 동북면 일대 방어체계 정책과 방호별감(안홍민)의 파견, 김윤후의 행적을 찾아 볼 수 있는 역사자료라 할 수 있다.
- 한계산성에 대한 축성사적 위상은 대몽항쟁기 5차와 6차 침입기 험산대성의 입보용 성곽이 짧은 시간 속에서 평면구조와 축성방식, 성벽 부속시설물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입보용 성곽에 의지한 백성들의 신앙처였을 천제단 시설이 잘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성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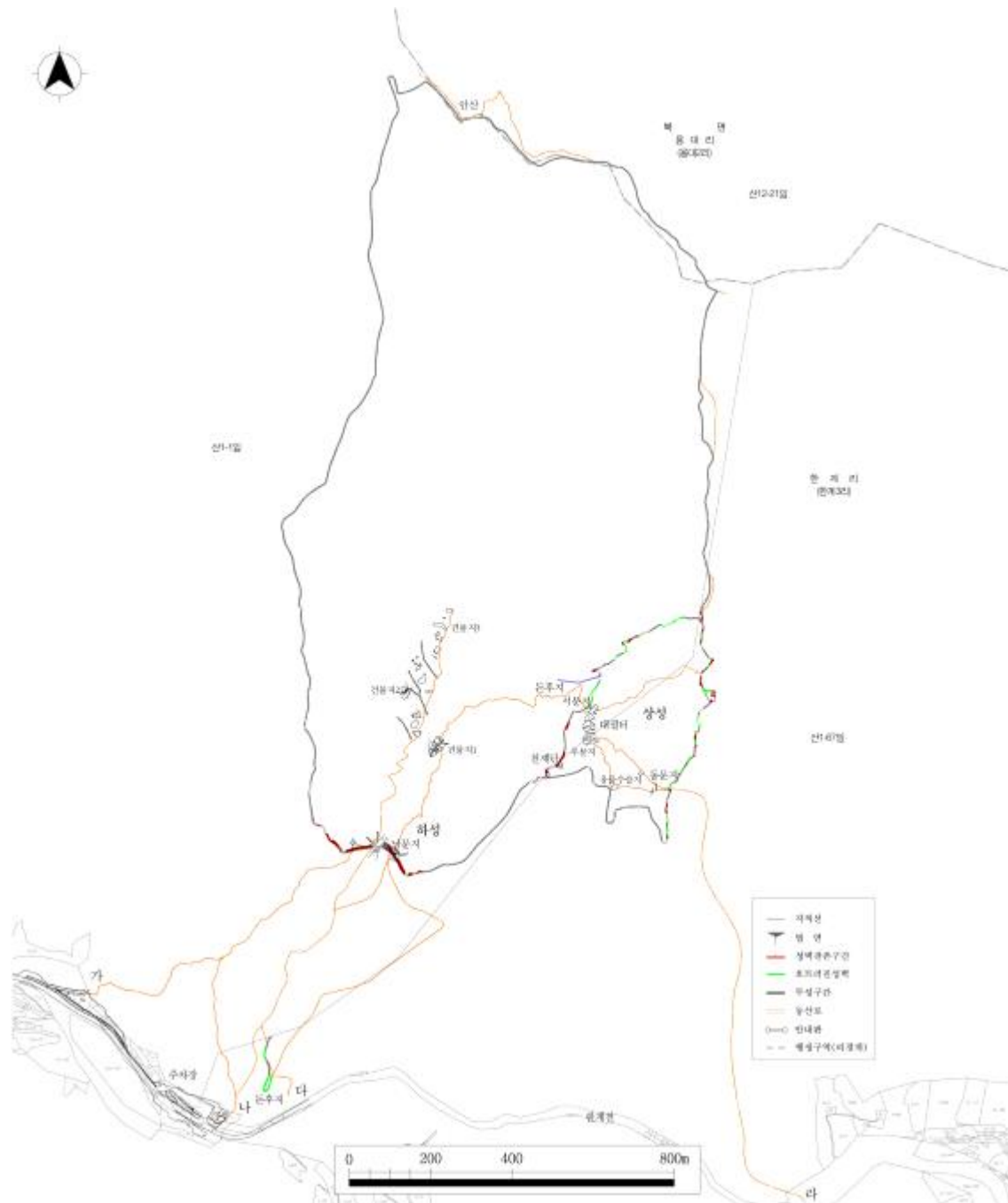
- 이 밖에 고려말 조선초 공민왕의 반원정책과 동해안 일대의 왜구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성곽을 수축했던 자료들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점에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국방체계에 변화와 축성사적 변화과정을 찾을 수 있는 역사 및 고고학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 한계산성은 설악산국립공원의 내설악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으로 올라오는 골짜기 입구에 옥녀탕이라는 경관적으로 아름답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계산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며,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어울려 관상적 가치가 높다.
- 한계산성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큰 국난이었던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최후의 험산대성(險山大城)의 입보용산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보존과 활용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난 극복의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남겨 줄 필요가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지정면적: 3필지 /2,10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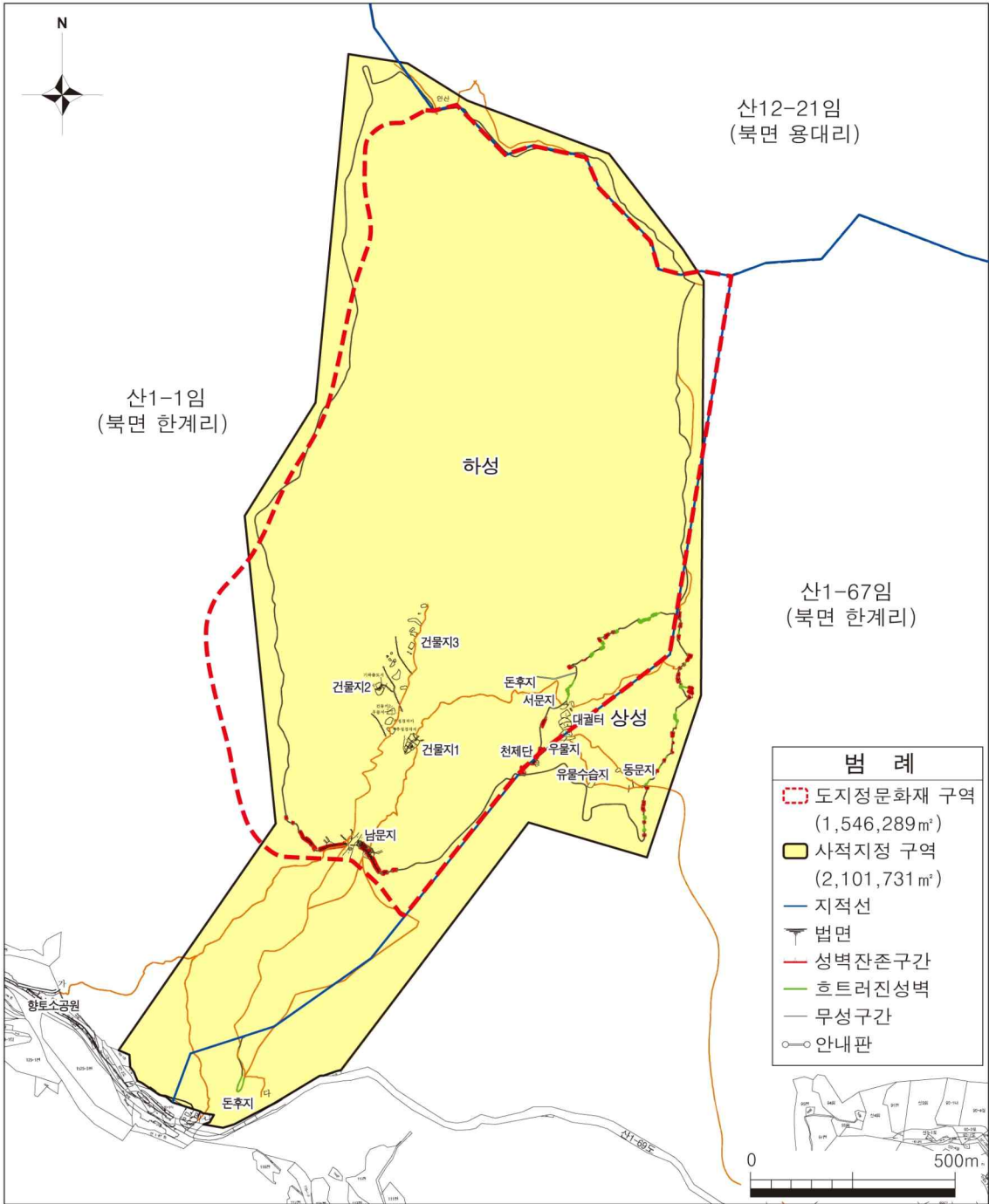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유현황	비고
지정구역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1-1	임	15,871,700	1,757,500		
		1-67	임	14,603,246	296,614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21	임	65,857,337	47,617		
합 계				96,332,283	2,10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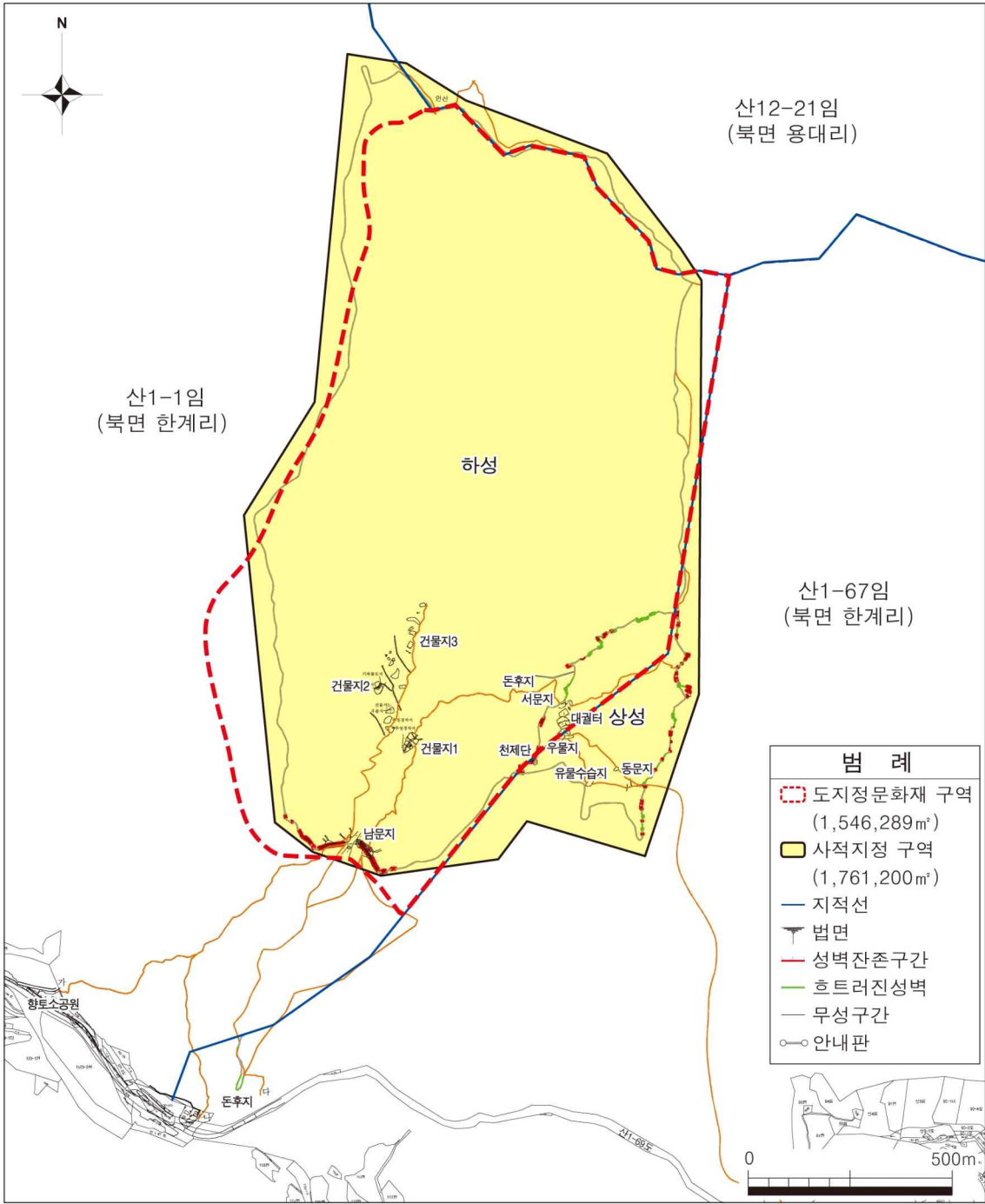
인제 한계산성 전체 현황도(지적도)



인제 한계산성 성벽 유구 구간 구분도



사적 지정구역 (1안)



사적 지정구역 (2안)

1) 상성



인제 한계산성 일대 항공사진



서벽에서 본 동벽 일대 및 천제단 위치



인제 한계산성 상성 일대









인제 한계산성 하성 동벽에서 본 원통 방향

○ 성벽 현황 사진-상성(上城)

<상성-서-제1구간>





① 상성-서-제1구간

- 상성의 천제단에서 서문지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249m임
- 상성 남서쪽 천제단에서 북쪽의 대궐터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능선을 따라 약 44.3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음
- 높이 1.6m 내외, 폭 1m 정도이며, 대부분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 축조하였음
- 여러 지점이 붕괴되어 있고, 석축이 매우 조약함

	
상성-서-제1구간 석축 모습(남-북)	상성-서-제1구간 석축 모습(동-서)
	
상성-서-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	상성-서-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
	
상성-서-제1구간 석축 모습(남-북)	상성-서-제1구간 석축 모습(북-남)

② 상성-서-제2구간





- 상성 서문지에서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성벽선을 따라 능선 정상부에서 동벽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구간으로, 길이는 약 444m임
- 서문지의 북쪽 측면에 붕괴된 석축 흔적이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성벽선 곳곳에 석축 흔적이 남아 있음
- 일부 지점에 높이 1m 내외의 성벽이 남아 있으나 매우 조약하며, 대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치석하여 축조하였음
- 이 구간의 성벽은 2010년 이후 조사에서 새로 확인됨
- 북쪽 끝지점은 상성 동편 성벽선과 만나며, 북단 지점에는 사각모양의 치성(높이 2m 내외, 폭 2.5m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는데, 치성 서측면이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음

	
상성-서-제2구간 석축 붕괴 모습 (상성 서문지 북쪽)	상성-서-제2구간 석축 붕괴 모습
	
상성-서-제2구간 석축 붕괴 모습	상성-서-제2구간 석축 붕괴 모습

③ 상성-동-제1구간

- 상성 동편의 북단 지점과 상성 서편 제2구간 성벽이 만나는 지점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가면 대궐터에서 올라오는 소로와 만나는 지점(해발 1,057.6m)을 지나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가면 약간 오뚝하게 돌출한 지점(해발 1,046.3m)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점까지의 구간임
- 해발 1,046m 지점은 둥글게 조성된 돌출 대지(臺地) 형태인데 망대(望臺)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짐

- 이 구간은 256m 정도 되는데, 북단지점에서 대궐터에서 올라오는 소로 접속지점 (해발 1,057.6m)까지는 180m임
- 곳곳에 무너진 성벽이 남아 있는데, 높이와 폭은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석을 난층으로 축조하였지만 대체로 10~19단의 석축이 여러 곳에 남아 있음. 석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은 높이 2.2m, 폭 3m 정도임
- 이 지점의 동측으로는 모두 절벽지대이며 한계령 일대가 잘 조망됨
- 1,057m 고지 근처 절벽 돌출부에는 절벽 외측면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이 구간 북단지점에는 능선 정점부에 치성(雉城)이 만들어져 있음
- 치성은 상성 북단의 능선 돌출지점(해발 1,051m)에서 능선 안부(鞍部)로 떨어지는 가파른 지점의 암벽 상부에 거치하여 축조하였음. 자연석이나 반치석한 성돌을 난층쌓기 하였는데, 대략 19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있으며, 높이는 2.2m, 폭 2.2m임

	
<p>상성 북단 지점 치성(남-북)</p>	<p>상성 북단 지점 치성(북-남)</p>
	
<p>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p>	<p>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p>

	
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	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돌출 암벽 위에 축조)
	
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	상성-동-제1구간 성벽 모습
	
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	상성-동-제1구간 석축 잔존 모습

④ 상성-동-제2구간

- 상성-동-제1구간의 남쪽 끝지점의 망대지(해발 1,046.3m)에서 절벽 내측의 능선을 따라 내려가서 동문지를 지나 상성 동벽의 남단지점에 이르는 438m 구간임
- 망대지에서 절벽을 끼고 동문지로 내려가는 성벽은 매우 가파르며 곳곳에 석축이 남아 있음
- 성돌은 대부분 자연석을 반치석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였음
-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도로(현재 44번 국도)가 잘 관측됨
- 이 구간에 있는 동문을 통해 하산하면 장수대 근처에 도달하며, 이 동문에서 내

측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대궐터로 이어졌던 성내의 소로가 있음

	
<p>상성-동-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p>	<p>상성-동-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p>
	
<p>상성-동-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p>	<p>상성-동-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p>
	
<p>상성-동-제2구간의 동문지 일대 모습</p>	<p>상성 동문지 남쪽 석축 잔존 모습</p>
	
<p>상성-서-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 (바위 사이를 석축으로 메움)</p>	<p>상성-동-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 (암벽 위에 축조)</p>



44번 국도에서 본 상성 동남단 일대



상성-동-제2구간 석축 잔존 모습

⑤ 상성 남벽 구간

- 상성의 남쪽 지대로, 천제단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절벽선을 따라 동벽의 남단 지점까지 구간임
- 이 구간 길이는 533m이며, 극히 일부 한정된 곳에서만 석축의 흔적이 남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절벽을 자연적인 성벽으로 활용하였음
- 남벽구간 중간지점의 좁은 능선 평탄부에서는 세발솥[鼎], 청자편, 토기편 등 여러 가지 유물이 수습됨



44번 국도에서 본 상성 남벽 일대 모습



상성 남벽의 절벽지대 모습



상성 남벽 동단 지점에서 본 산성 아래 모습



상성 남벽 동단 지점의 석축 흔적

	
<p>상성 남벽에서 바라 본 하성 동측 성벽의 암릉지대</p>	<p>상성 남벽의 절벽지대 근경</p>

2) 하성

① 하성-남-제1구간

- 하성 남쪽 계곡부와 인접한 서쪽 성벽이며, 이곳은 지난 1994~1995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
- 계곡 하천과 접한 지점부터 서편으로 이어져 우뚝 솟은 암벽에 이르는 63.2m 구간임
- 체성(體城) 높이는 암반에 거치한 낮은 지점이 98cm, 암반에 거치하지 않은 곳은 346~540cm 정도에 이름
- 복원된 여장(女牆)은 높이 1m 내외, 폭 70cm 정도임
- 이 구간의 중간지점은 지난 2006년 수해 때에 일부 구간이 붕괴되어 다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
- 본래 이 구간과 동편의 남문지 일대 성곽은 계곡을 가로 질러 서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어떠한 형태로 이어졌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하성 남쪽 구간의 성벽은 상성의 석축과는 달리 장방형으로 치석한 성돌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성벽 상부 내측과 산록이 접속하는 지점에 산쪽으로 붙여 축대를 만들었음
- 성벽 내측 산사면과 연결한 축대는 석축이 4~8단 정도 남아있으며 높이는 1m 내외임
- 성벽 상부 내측의 축대가 개설됨으로써 성벽 상부는 마치 협축 성벽 위에 양측으로 여장을 만든 모양임. 이것은 토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여 성벽의 내구성을 높여 축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성곽유적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임



하성-남-제1~제2구간 일대 모습(남동-서북)



하성-남-제1구간 일대 모습(남동-서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동-서)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하성-남-제1구간 성벽 모습(남-북)

② 하성-남-제2구간

- ‘상성-서-제1구간’의 서쪽 끝지점에서 암벽을 지나 이어지는 성벽 구간으로 총 길이 약 72.3m 정도임
- 체성 높이 90cm, 여장(女牆) 폭 70cm, 높이 100cm 정도로 복원되었으나 다소 차이가 있으며, 15년 가량 지나면서 성벽 상부에 변형이 생긴 곳도 있음
- 이 구간 서북쪽 끝지점부터 안산 방향으로의 능선부는 매우 험준한 암반지대로 외측이 대부분 암벽으로 막힌 험한 급경사지거나 절벽지대여서 별도로 성벽을 축조하지 않았음



하성-남-제2구간 암반지대의 석축



하성-남-제2구간 성벽



하성-남-제2구간 성벽



하성-남-제2구간 성벽(서남-동남)



③ 하성-남-제3구간

- 하성 남문지 일대임
- 전체 성역(城域) 가운데 가장 남쪽에 해당하며, 또 가장 낮은 지대임
- 남문지 일대 구간은 복원·보수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비교적 석축 성벽이 상당부분 잘 남아있었음
- 남문지 일대의 성벽은 길이 77.88m, 높이는 2.5~5.7m(여장 높이 포함)이며, 여장(女牆)은 평여장으로 폭 80cm, 높이 80cm 정도임
- 성벽은 남문지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완만한 경사지를 따라 가서 암벽에 잇대어 축성하였음
- 성벽은 기저부에 긴 장방형 대석을 놓고 그 위에 하부에는 비교적 두꺼운 성돌을 사용하여 축조하고 상부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작은 성돌을 사용하였음. 방형으로 정확하게 치석하지 않은 성돌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틈은 모두 작은 돌로 메우는 썩기돌 마감 방식으로 쌓았음
- 이 구간의 동단(東端) 근처 경사지에는 성벽 기저부 외측에 석렬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부터 있던 기저부 보축공사를 한 흔적인지 아니면 보수복원공사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이 지점이 경사지인 점을 감안하면 축성시 기저부의 보강을 위해 보축공사를 한 흔적일 가능성이 큼
- 1992년 남문 서측의 계곡 접속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36m 정도의 구간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
- 1993년에는 전년도 공사종점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16.5m 정도의 구간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음
- 1996년에는 남문 동편의 암벽과 맞닿는 지점 21m 정도를 보수하였음
- 2006년 폭우로 성벽 위쪽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남문이 막히고 일대가 흘러내린 토사로 뒤덮여 이를 복구하였음



하성-남-제3구간 성벽(남문 일대)



하성-남-제3구간 성벽(남문 동측)



하성-남-제3구간 성벽(남문 서측)



하성-남-제3구간 남문



하성-남-제3구간 성벽(동-서)



하성-남-제3구간 성벽 동단 지점



하성-남-제3구간 성벽 기저부 보축



하성-남-제3구간 성벽 상부(동-서)



하성-남-제3구간 성벽 상부(서-동)



하성-남-제3구간 남문 내측 모습

④ 하성-남-제4구간

- 남문지 일대의 동쪽 끝지점 암반부를 지나 동편으로 돌아 올라가서 성벽 석축이 남아있는 구간으로, 총 길이는 44.33m임
- 2개 지점에 성벽 석축이 잔존하고 있음
- 남문지에서 동측으로 연결된 성벽을 따라 끝부분에서 암벽을 돌아 처음으로 석축이 나타나는 지점에는 성벽이 11.45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석축 잔존 높이는 0.82~3.33m이며, 폭 0.85~2.60m, 성돌의 크기는 다양함
- 이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약 17.3m 정도 되는 성벽 석축과 석축의 흔적이 잔존하고 있음.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1.2~1.68m이고, 폭은 0.95~1.45m 정도임. 석축이 온전하게 남은 구간은 총 10.8m 정도임
- 이 구간의 성벽은 급경사지인 경우 자연석이나 극히 부분적으로 치석한 석재로 난층쌓기를 하였으면서도 수평을 맞추어 시공하였음
- 이 구간의 가장 위쪽에 남아있는 성벽의 끝지점을 보면 능선을 따라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외측으로 사면부를 따라 성벽을 돌려서¹⁾ 올라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였음
- 이곳으로부터 상성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밖은 성벽선이기는 하지만 모두 절벽지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성벽을 축조하지 않았음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 모습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 모습

1) 석축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사면을 돌면서 6.5m 정도의 석축 흔적이 남아 있다.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부 상부 모습



하성-남-제4구간의 암벽에 잇댄 석축 잔존 모습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부 단면 모습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 모습(서남-동북)



하성-남-제4구간 석축 모습(外-內)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 모습(서남-동북)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 모습(동북-서남)



하성-남-제4구간 석축 잔존부 상부 모습

	
<p>하성-남-제4구간 동북단 지점 (사면을 따라 석축을 돌림)</p>	<p>하성 동벽(제4구간에서 천제단 방향) 암릉지대의 통천문</p>



3) 부대 시설물지

(1) 성문

- 하성에 1개소(남문), 상성에 2개소의 성문터가 남아 있음
- 하성 남문은 하성의 가장 남쪽 계곡의 동편 성벽 구간에 위치함
- 암문(暗門) 형식으로 누각 없이 성벽 하부에 큰 돌을 사용하여 좁은 개구부(開口部)를 만들고 그 위에 긴 문인방(門引枋) 돌을 가로질러 놓아 축조하였음
- 성문의 구조는 입구 바닥에 큰 돌을 놓아 기초공사를 하고 왼쪽은 6층의 돌을 쌓고, 오른쪽에 5층의 문설주 역할을 하는 돌을 쌓았음. 문지도리부 위에는 성문을 설치하기 위해 서측에 지름 16cm, 깊이 9cm의 둥근 홈을 팠으며, 동측에는 지름 18cm, 깊이 8cm, 지름 15cm, 깊이 9cm의 둥근 구멍과 그 앞쪽으로 가로 12cm, 세로 16cm, 깊이 6cm의 네모꼴 홈을 팠음
- 성문의 크기는 하부의 너비 157cm, 상부의 너비 166cm, 높이 230cm임
- 양 옆에 큰 장방형 혹은 정방형의 석재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문인방돌을 설치하였는데, 크기가 가로 243cm, 너비 123cm, 두께 31cm 정도의 크고 넓적한 돌을 가로 질러 놓았음
- 문인방돌의 아래쪽에는 암반을 바닥에 깔고 성문을 설치하기 위한 홈을 파 놓았는데, 크기는 지름 21cm, 깊이 9cm임
- 성문 설치를 위해 바닥 암반에 판 홈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한 번 이상 성문을 개축한 것으로 판단됨
- 현 상태가 1986년 처음으로 한계산성을 조사할 당시와 같으므로 이것이 1990년대 보수공사 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니며, 실제 산성을 사용하던 시기에 개축한 흔적임
- 문인방돌과 마찬가지로 성문의 안쪽으로 가면서 천정돌을 설치하였는데, 문인방돌을 포함하여 모두 5개로 되어 있음
- 성문 통로의 바닥은 밖에서 안으로 534cm 되는 곳까지 연결되다가 계단이 마련되어 올라가도록 축조되었음
- 성문 안쪽의 층계는 대부분 매몰되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되었고, 그 층계부 동측의

석축은 상부가 붕괴되어 있음

- 상성에는 서문지와 동문지 2개소가 있는데, 성문의 흔적만이 남아 있고 뚜렷한 시설물 흔적은 남아있지 않음
- 서문지는 하성의 계곡부 건물지에서 동북쪽 능선을 따라 가면 도달하는 곳으로 내측으로 만곡되어 있으며 문 밖은 서서 도보로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급경사지임
- 동문지는 대궐터라고 부르는 건물지에서 동쪽의 낮은 능선을 넘어서 경사지를 오르면 도달하게 되는데, 서문과 마찬가지로 내측으로 만곡되어 있음
- 동문지로부터 내측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석축 흔적이 남아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p>하성 남문</p>	<p>하성 남문 정면</p>
	
<p>하성 남문(內-外)</p>	<p>하성 남문(外-內)</p>
	
<p>하성 남문 성문 지도리의 하부 모습</p>	<p>하성 남문 성문 지도리의 상부 모습</p>



하성 남문 성문 문설주 설치 홈



하성 남문 성문 문인방 석재의 채석정 흔적

* 함계산성 성문(성문) 시대별 사진자료 비교검토(1979~2018)

<p>1979년 전후 촬영(추정) (인제군사 수록)</p>	<p>1985년 촬영 (함계산성 지표조사보고서)</p>
<p>1993년 준공사진 (설계도면)</p>	<p>2018년 촬영사진 (인제군)</p>

(2) 건물지

- 상성에 대궐터라고 부르는 건물지가 있는데, 대략 면적이 좁은 경사면을 포함하여 1천여 평에 달함
- 대궐터에서는 주로 토기편, 자기편이 발견되고 있고, 이외에 상성 북쪽으로 이어지는 소로(小路) 주변에서도 토기편이 다수 발견됨
- 대궐터에서 동편으로 작은 능선을 넘어서면 남쪽으로 절벽에 임한 완만한 능선부가 나타나는데 이 일대에서는 청자편, 토기편, 세발솥(鼎)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음
- 하성 내에는 3개소의 건물지와 2개소의 바위그늘을 활용한 주거지 흔적이 있음
- 1개소는 하성 남문에서 계곡을 따라 200여 미터 정도 올라가면 계곡 동측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반대쪽 계곡 건너편 일대에 다른 건물지 2개소와 바위그늘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음
- 건물지에는 축대 흔적이 남아있고, 와편과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음
- 하성 계곡 동측의 건물지에는 3단의 축대 흔적이 남아있는데 면적은 약 200여 평 정도임
- 가장 낮은 지대의 축대(제1단)가 가장 잘 남아 있는데, 가로 길이가 약 21.5m, 폭이 15.8m 정도이며 높이는 일정하지 않지만 가장 높게 남아있는 지점이 1.6m 내외임. 동측 구석지점에는 많은 양의 와편이 쌓여 있음





- 제2단의 축대는 대부분 붕괴되었는데, 가로 길이가 약 28.5m 폭이 10.1m 정도임. 그 위의 제3단은 중간 지점에만 약간의 축대 흔적이 잔존하고 있고 가로 축대선이 불규칙함
- 제3단 동측에는 샘물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이 일대에서 많은 양의 와편과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음¹⁾
- 계곡 동편 건물지와 서편 위쪽(하성 제2건물지)에서 많은 양의 와편이 수습되었으며 그 가운데 계곡 동편 건물지(하성 제1건물지)에서 ‘지정십팔년(至正十八年)’이라는 연대표기가 새겨진 것이 다수 수습되었음
- 이로 보아 이곳 건물지는 1358년(공민왕 7) 경에 개수 또는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건물지는 하성을 만들어 확장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짐
- 하성의 계곡 서측 건물지는 곳곳에 축대 흔적이 남아 있고, 와편과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음
- 특히 서편 아래쪽인 하성 제2건물지의 경우는 축대가 완연하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와편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곡 서편 건물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갖는 건물이 들어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바위그늘을 활용한 주거지는 바위그늘 주변에 석축을 간단히 둘러 공간을 만들거나 낮은 쪽 지점에 축대를 만들어 공간을 넓게 조성하여 활용하려고 했던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음
- 제3건물지는 바위그늘 주거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당시 성내에 주거시설을 만들면서 함께 활용했던 것으로 여겨짐
- 주변에서는 토기편 뿐만 아니라 제철과정에서 생긴 슬래그가 유물로 수습되기도 하였음
- 건물지 주변에는 우물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음

1) 이곳에서 수습되는 기와 가운데는 산성 아래 장수대 근처에 있는 한계사에서 발견되는 기와와 같은 것이 있어서 혹 한계사의 부속 암자로 추정되기도 하였다.(강원대 박물관, 『한계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86, 29쪽)



상성 대궐터 일대 모습



상성 대궐터 내 축대



상성 대궐터 내 축대



상성 대궐터 우물지 주변(동-서)



상성 대궐터 추정 우물지



상성 대궐터 옆 小溪水



하성 제1건물지 일대 모습



하성 제1건물지 축대



하성 제1건물지 축대



하성 제1건물지 내 기와편



하성 제2건물지 일대 모습



하성 제2건물지(우물지 주변)



하성 제2건물지 내 우물지



하성 제2건물지 축대



하성 제2건물지 축대



하성 제2건물지 축대

하성 제3건물지	하성 제3건물지 내 미상 유구
하성 제2~제3건물지 주변의 바위그늘 주거지	하성 제3건물지 옆의 바위그늘 주거지
하성 제3건물지 옆의 바위그늘 주거지 내부	하성 제3건물지 옆의 바위그늘 주거지와 석축

4) 기타

① 천제단(天祭壇)

- 한계산성 상성의 서남쪽 봉우리(상성 서문지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봉우리 중 더 남쪽에 위치한 峰)에 위치함
- 한계산성과 그 입구인 옥녀탕 계곡 등 주변지대가 잘 내려다보이는 지점이어서 산성을 사용할 당시에는 망대의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짐
- 성벽을 쌓을 때 쓰던 것과 같은 돌을 이용하여 3곳에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 정면의 반반한 석재에는 음각된 각자(刻字)가 있음
- 이곳의 명칭이 천제단이기 때문에 천제단이 본래 있던 곳에 이러한 제단탑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각자석(刻字石)이 안치된 제단이 만들어져 오랜 기

간 동안 제의가 행해져 오면서 천제단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음

- 정면 좌측(서쪽)의 제단은 1986년에는 더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을 주변의 석재를 모아 약간 더 쌓아 올리고 명문이 있는 석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을 약간 제단 중앙 쪽으로 옮겨 설치하였음
- 중앙부 제단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가운데 명문 석재가 예전에는 가운데 홈 안에 오른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약간 안쪽으로 쓰러지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음
- 정면 우측(동쪽) 제단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상부 쪽에 돌을 약간 더 올려놓은 것으로 판단됨
- 제단의 동서 폭은 전체가 5.5m 정도이며, 제단 앞의 상석과 유사한 반석은 전후(前後)의 폭이 1.5m 내외임
- 제단 크기는 정면 좌측단(서측)이 가로 1.7m, 세로 1.44m 정도이며, 중앙부 제단은 가로 1.5m, 세로 2.1m, 정면 우측단(동측)은 가로 1.2m, 세로 1.8m 정도임
- 명문이 새겨진 석재의 크기는 정면 좌측단이 74×50×8cm, 중앙부 제단 82×30×10cm, 정면 우측단(동측)이 99×21×13cm 정도임
- 천제단 주변에서 소량의 토기편이 수습되었음



② 상성(上城) 둔후지(墩後址)

- 하성의 건물지에서 산사면을 따라 상성 서문지로 오르다가 서문지 앞 100여 미터

되는 지점에 절벽진 곳에 위치함

- 상성으로 오르는 적을 감시하며 상성 서문으로의 접근을 차단 내지 지연시키기 위해 만든 시설물임
- 적에 대한 감시는 물론 성문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려는 전초성(前哨城)의 성격 을 갖는 매우 특이한 시설물 사례임
- 절벽 아래 기슭에서 이어진 능선의 돌출된 정상부에 폭이 약 5m, 길이가 약 9m 정도 되는 공간에 석축을 하여 소규모 방어진지 격인 성을 만들었음
- 대부분 붕괴되었으나 삼면에 흔적이 남아있고 북쪽 면에는 4단 정도의 석축이 남 아 있음



③ 하성(下城) 성외(城外) 둔후지(墩墩址)

- 현재 옥녀탕 동쪽 절벽 위에 위치함
- 옥녀탕 주차장에서 한계령 방향으로 약 240m 정도 가면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 곳에서 안산 방향으로 하천을 건너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소로를 따라 100여 미터 올라가면 등성이가 나오는데, 이곳의 남서쪽 능선 연결부 지점에 망대 시설의 흔 적이 남아 있음
- 올라오는 소로를 제외하면 모두 절벽지대인데, 무너진 석축 흔적이 남아 있음
- 하천 쪽으로 능선 끝지점에서 옥녀탕에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절벽지대가 형성 되어 있고 이 지대를 끼고 산성 쪽으로 소로를 따라 올라가면 하천을 건너는 지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점 일대에도 석축 흔적이 남아 있음
- 형태로 보아 이 구간 약 145m 구역을 둔후로 활용한 것으로 여겨짐
-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산성보다 가까이에서 감시하는 기능을 하면서 산 성으로 오르는 길목을 가로막아 쉽게 산성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 한 것으로 판단됨
- 이 둔후지는 하성에서 상성으로 오르는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함께 매우 특 이한 방어시설물임. 대개는 원성(元城)에서 연결된 능선부나 돌출 봉우리로 길게 연장하여 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계산성에서는 원성과 별개로 설치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시대 축성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하성 성외 돈후지(옥녀탕 동측 암벽 위)



하성 성외 돈후지의 붕괴된 석축
(옥녀탕 동측 암벽 위)



하성 성외 돈후지(북단 하천 접속부, 남-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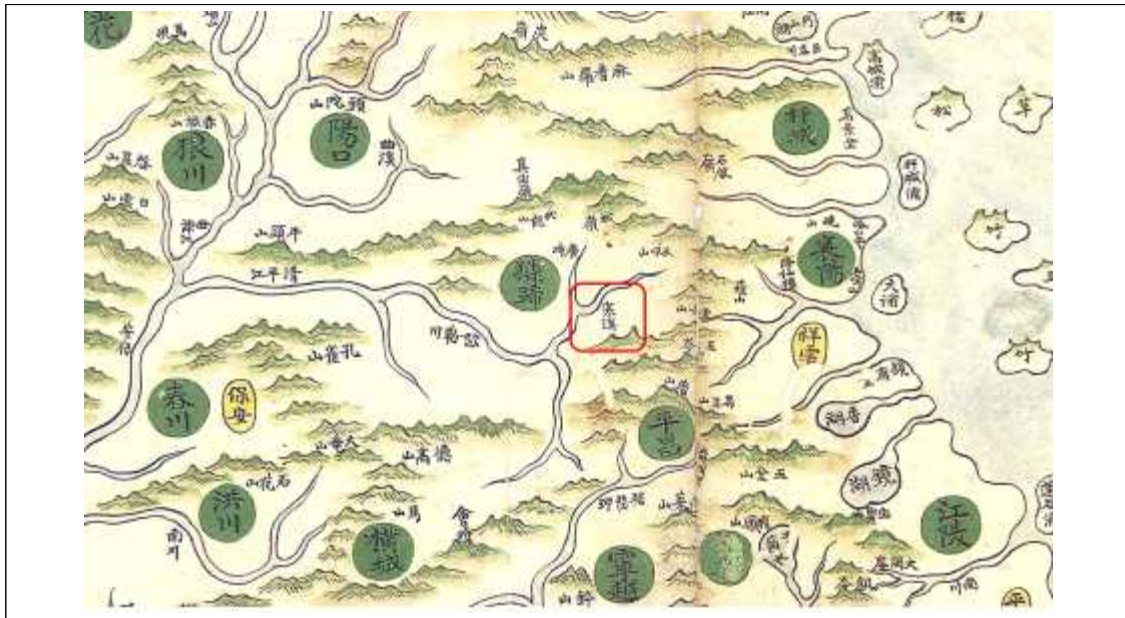


하성 성외 돈후지(북단 하천 접속부, 동-서)



하성 성외 돈후지 북단 지점 석축 흔적

고지도



해동지도(강원도 전도-한계산) - 17세기 중반



여지도서(인제부-한계산) - 1757년~1765년



동여비고(강원북부동쪽-한계산) - 17세기 후반



동역도(한계산성) - 1770년(영조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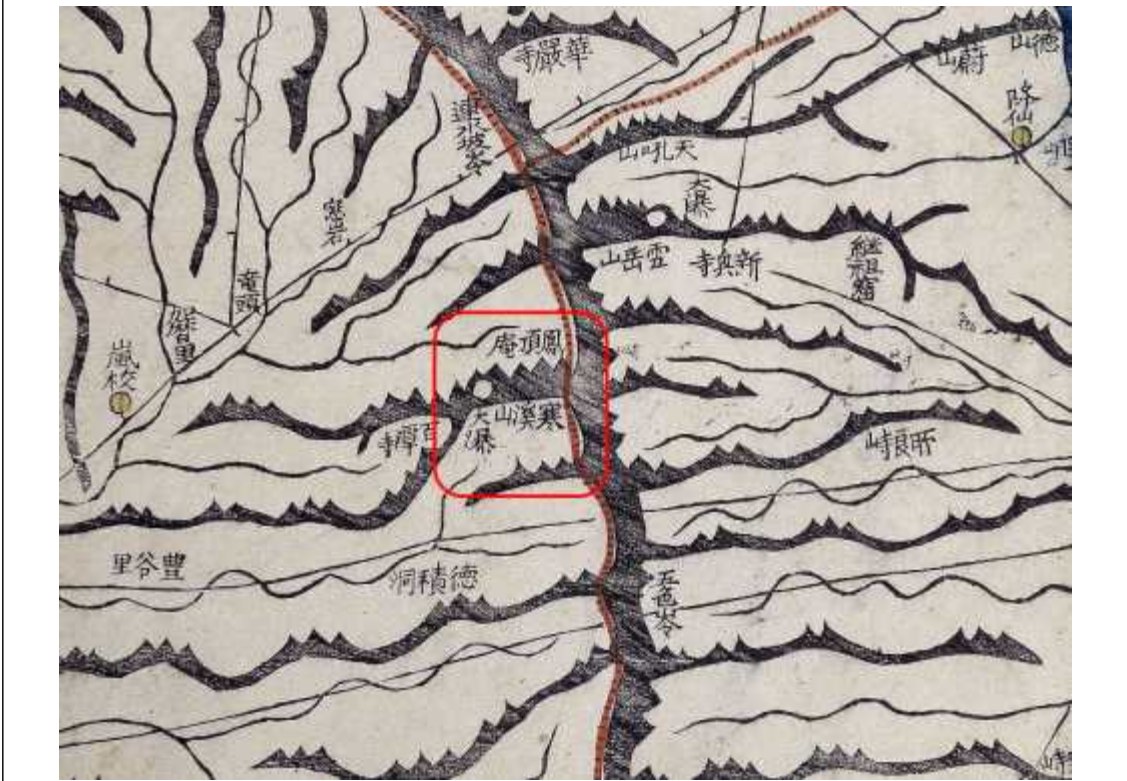
청구도(한계산성) - 1834년(순조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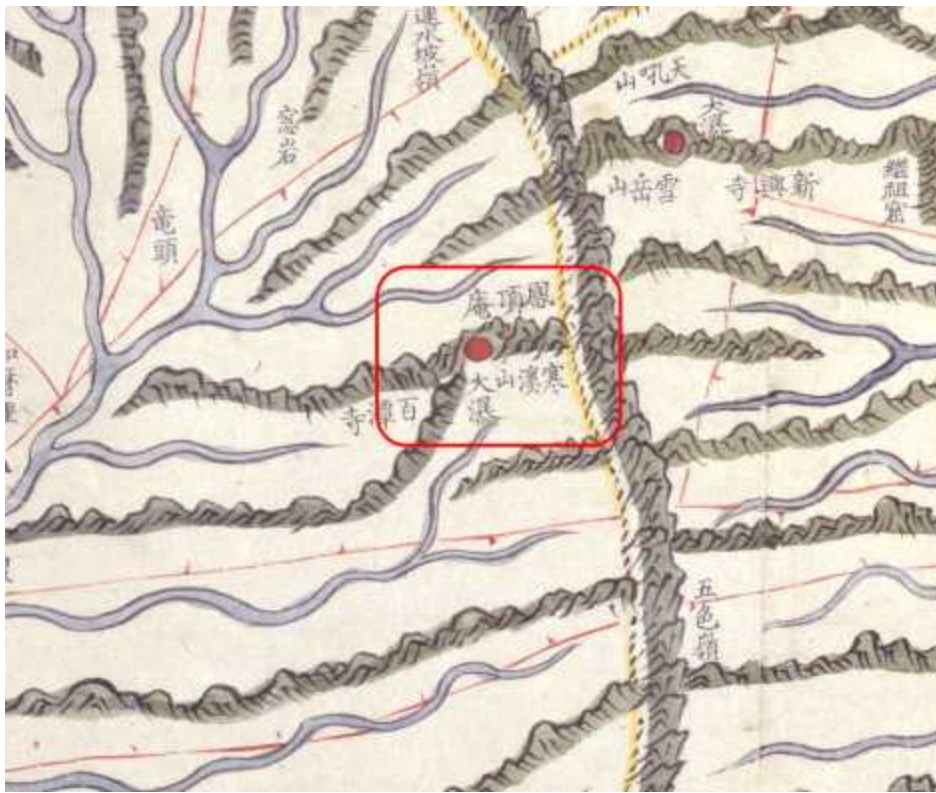
청구요람(한계산성) - 1834년(순조 34)



동여도(한계산성) - 1856년~1859년(철종 7~철종 10)



대동여지도(한계산성) - 1861년(철종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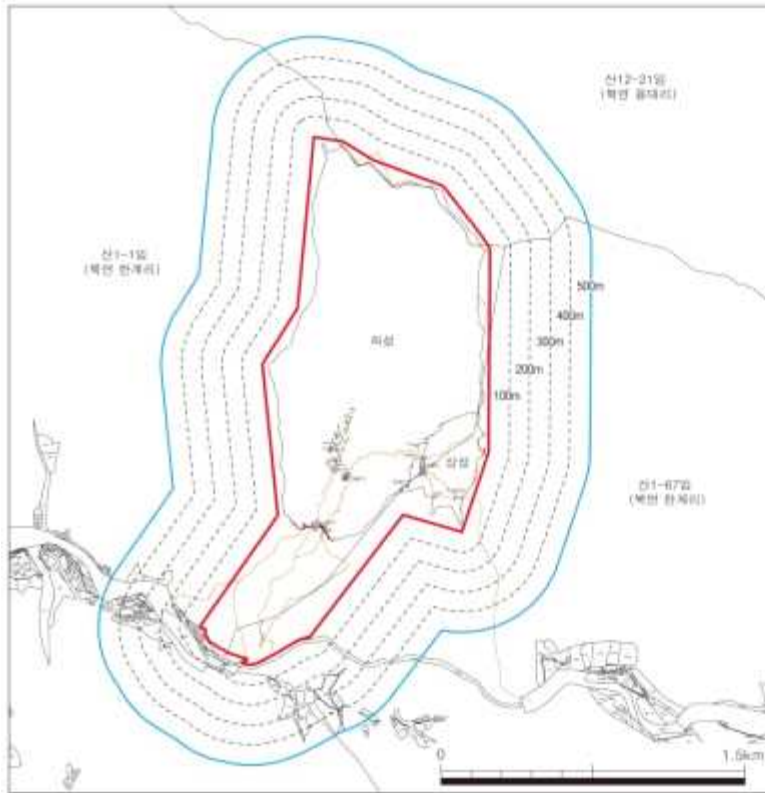
대동방여전도-3면 강원도(한계산성) - 1849년~1863년(철종 원년~철종 14)



여지도(인제현-한계산) - 시기미상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주변은 산악 지대로 천연보호구역과 연접하며, 국립고원 내임. 주변 500m 범위를 개별심의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인제 한계산성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 외

범 려

[문화재]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연속지적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인제 한계산성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 외

범 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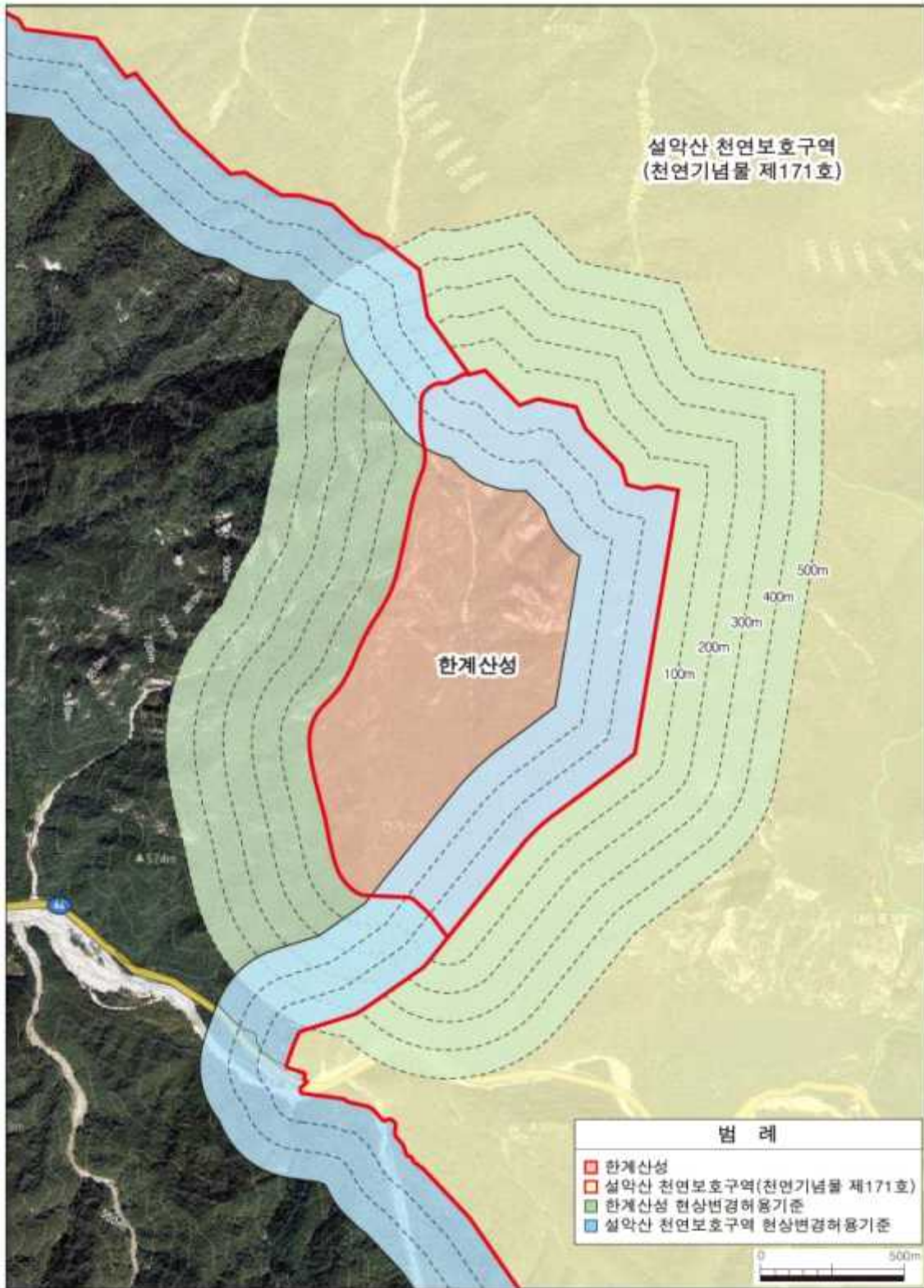
[문화재]

문화재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現)한계산성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범위



(現)한계산성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허용기준 범위(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문화재구역	○ 원지형 보존 ○ 문화재 보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시 현상변경허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선(先) 구역 기준 적용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위원회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I. 기본계획 구상

가) 기본 개념

1) 용어의 정리¹⁾

① 역사문화환경

- 역사적 환경을 비롯한 주변 자연·문화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3차원적으로 확대하는 개념.

② 보전(保傳)

-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여 현세는 물론 후세에게까지 전해주는 개념.
- 방법으로는 보존·복원(보수)·정비·기록·활용 등의 개념으로 구분.

③ 보존(保存)

- 절대보존 : 원형보존을 절대가치로 여겨 물리적인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동결 보존의 개념으로 화학적 변화까지를 고려한 개념.
- 외형보존 : 현실적인 기능을 위해 내부의 변화는 허용되나, 외관은 원형보존의 개념으로 재료를 포함하는 형태보존의 개념.
- 구조보존 : 외관의 부분적인 변화를 허용하나 구조방식은 보존하는 형식보존의 개념으로 추후 복원을 기대할 수 있음.
- 분위기보존 : 최소한의 보존개념으로서, 전통적 분위기의 표현으로 가능한 전통적인 내용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

④ 복원(復原)

- 이미 인멸된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환경을 재 복구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최대한 원형을 살려서 전통적인 기법으로 복원하여야 함.
- 복원 시 고려되는 사항은 철저한 원형고증, 유적의 유구 확인에 따른 복원 고려, 구조·기법·재료까지 복원대상으로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한 문

1) 서울특별시, 『傳統文化地帶 復元·整備實施計劃[案]』,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0, 78쪽; 서울특별시, 『慶熙宮址 保存 및 活用方案 研究報告書』,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1996, 12쪽. 상기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또는 재구성하였음.

현이나 관련 유적을 고려하여 가급적 추정복원은 삼가야 함.

- 원형이 파손된 부분 또는 구조적 결함에 따른 전체적 복구의 방법인 보수 또한 복원의 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⑤ 정비(整備)

- 역사문화환경의 현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현상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방법의 개념.
-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한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개념.

⑥ 기록(記錄)

- 최소한의 보존개념으로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통제를 최소화하는 개념.
- 실측·사진 촬영·기록의 방법으로 자료를 남겨 일정기간 후에 역사적 환경을 재현할 수 있음.

⑦ 활용(活用)

- 역사문화환경을 교육·관광 등의 목적에 따라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용의 개념으로 탐방객의 참여를 통해 보존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보존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 고려사항은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 교육·관광 등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2) 문화재 기본원칙

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原形維持)를 기본원칙으로 함.¹⁾

②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²⁾

-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 문화재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형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본래의 자리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주변 자연환경,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문화재 활용의 기본방향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내재된 상징성을 문화산업의 소재로서 개발·활용하며,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육성.

- 성곽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³⁾

- 성곽구조물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까지 보존되어야 하고, 성곽의 가치와 진정성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성곽을 활용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환원되어야 함. 특히, 지역의 사회·문화·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1) 문화재보호법 제3조.

2)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3) 문화재청,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009, 제4조.

공헌되어야 함.

③ 문화재 수리 기본원칙¹⁾

- 성곽 축조의 전통 구조·양식을 변형시키지 않아야 함.
- 성곽 축조에 사용되었던 기존 부재는 최대한 원래의 위치에 재활용 하여야 함.
- 성곽 축조에 사용된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수리하여야 함.
- 성곽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를 하되,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원형고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리하여야 함.
- 새로운 부재사용은 성곽의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재의 교체, 대체 또는 보강을 할 수 있음.
 - 기존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재사용 할 경우 구조물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의 부재가 원래의 부재가 아니어서 양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 보강하지 아니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또는 심의를 받았거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에 의하는 경우.
-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성곽과 전체적인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당해 성곽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하여야 함.
- 보수는 원래의 형태가 남아있거나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음.
- 복원은 멸실된 부분의 원형고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할 수 있음.
- 수리 완료와 동시 수리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3) 계획의 기본원칙²⁾

- 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학술연구와 고증을 통하여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과잉복원은 지양함.
- 문화재의 특성과 관계법령, 주변 상황 및 재정여건 등 제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계획의 기본구상

1) 목표

- 인제 한계산성 종합정비계획은 한계산성의 문화재로서의 적절한 보존과 정비를

1) 문화재청,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009, 제15조.

2) 문화재청,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009, 제9조.
문화재청,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2009, 제12조.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제시.

- 한계산성의 실체를 규명하고 역사적 성격을 밝혀 역사교육의 장으로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탐방객을 위한 휴식 공간 구축.
- 인제군민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을 신장하는 한편 인제의 역사관광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정비계획은 문헌 및 학술조사 등의 고증과 자문위원들의 자문에 의한 원형 복원을 하며 한계산성의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시설물은 제거하여 문화재를 적절히 보존하고 아울러 어울리는 자연 경관을 확보.
- 한계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및 고증에 의한 원형 복원.
 - 연차 발굴조사 계획 수립.
 - 유적 정비방안 마련.
- 한계산성을 휴식 및 관광자원으로 적절히 활용.
- 한계산성을 교육의 장으로서 의미를 적극 부여하고 역사공원으로 조성.

2) 추진 전략

- 한계산성은 대몽항쟁기 마지막 단계에서 승전한 곳으로, 이곳 한계산성에 방호 별감으로 있던 안흥민의 활약과 관련된 사적이 문헌에 기록된 중요한 산성임. 우리 역사에 영웅의 역사가 기록된 몇 안되는 중요한 산성이므로 이러한 특기사항을 적극 활용.
- 또한 고려시대 전형적인 입보농성용 산성으로, 남한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축조된 산성이며, 상·하성의 구조, 독특한 성문, 원성(元城)과 떨어진 별설(別設)의 둔후(墩埃) 시설 등 그 특징이 뚜렷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매우 뛰어나.
- 따라서 이러한 한계산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전승의 사적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결합한 독특한 산성의 특징을 부각시킴.

3) 유적 정비계획 수립시 고려사항¹⁾

(1)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① 정비계획 수립의 필요성

- 유적 정비계획은 유적이 지니는 가치보존과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향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임.
- 체계적인 유적 정비는 단위 유적별로 기본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토대로 한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과 실천이 요구됨.
- 유적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우선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과 더불어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연계되어 우리 전통문화의 독창성 확립

1) 문화재청, 「유적(遺蹟)등 정비계획 수립·추진관련 고려사항」, 2003.9.에서 본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 정리하였음. 고려사항에는 특히 성곽 정비에 관련 사항을 자세히 다루었음.

과 지역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함.

② 정비계획 수립시 기본방향

- 유적 정비의 목표는 유적이 지니는 가치원형보존을 최우선함.
- 유적의 특성에 따라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함.
- 명확한 정비 목적을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을 제시함.
- 유적복원(건물·성곽 등)을 수반하는 경우 원형 고증을 전제로 하며, 고증이 되어도 고증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중한 검토과정을 이행하여야 함.

(2) 정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¹⁾

- 문화재의 유형별·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
-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정비를 추진.
-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
-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함.
-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함.
- 유적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과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임.
-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 연구용역 수행자 및 자문위원은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 사고를 견지하여야 함.
- 유적과 그 세부 유형별·종류별 문화재의 수리·복원·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검토함.

(3) 정비 대상별 고려사항²⁾

① 유적 및 유구의 정비

- 기존 유구가 더 이상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
- 성벽이 유실되어 일부 남아 있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원형에 충실하게 보수 정비하고 학술적 고증 없이 추측에 의한 복원은 지양하며, 사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콘크리트 구조물 및 인위적인 시설물)은 철거·정비.
- 기존의 유구가 노출되도록 수목을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유구의 보양이 필요한 부분은 잔디심기 등의 방법으로 보호 조치.
- 유구는 노출시키는 방법과 복토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

1) 문화재청,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009, 제9조.

2) 문화재청,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2009, 제10조.

- 노출 유구 중 붕괴 및 이탈의 우려가 있는 유구는 제자리에 정비.
- 석재는 보양하여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함.
- 유구 위에 성토하여 보존·정비할 경우 유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나무와 잡초는 제거.
- 유구에 나무나 기타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뿌리 제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복토한 지반에는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할 수 있음.
- 유구의 붕괴 우려가 있는 구간은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기존의 양식이나 수법 등과 같이 보수 정비.
- 도굴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 지형이 훼손된 경우에는 복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기존의 유구가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구역은 현 지반을 절토하거나 고르기 하면 아니 되며, 복토하여 표면 고르기 등의 정비를 할 수 있음.

② 배수로의 정비

- 배수체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지반의 높이가 변형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 정비.
- 배수로는 되도록 인위적이지 않도록 자연측구(토사측구)로 계획하고 지형 상 불가피하게 배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석축 배수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③ 주변 환경정비

- 수목의 제거
 -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
 - 전통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존 조치.
- 표지 설치
 - 유구의 중요한 지점에는 유구의 위치와 유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지 설치.
- 조경 정비
 -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아니 하고 기존 상태로 보존.
 - 외래수종은 가급적 제거하고 전통 수종으로 정비.
 - 조경식재는 유적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나 식생 조사를 실시하여 식재.
- 관람통로의 정비
 - 유구를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람통로를 설치.
 - 유적 안의 통로 및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아니함.

④ 관리사무소 설치

- 사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시설에 문화재의 경관이 차단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함.
-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해당 문화재(지정구역)나 문화재가 근접한 곳을 피하여야 함.

⑤ 문화재안내판 등의 설치

- 문화재안내판은 해당 문화재를 위압하지 아니 하도록 적정 규모로 하며, 문화재의 경관 및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 유적의 구역이 광범위하거나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람편의 및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여러 장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문화재안내판의 디자인 및 안내문안 등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지침에 따름.

다) 기본계획의 지표설정

1) 국가지정문화재의 등록 추진

- 강원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는 한계산성은 문화재적·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성 유적으로서 향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 추진.
- 최근 국가지정문화재의 등록은 유적의 가치가 충분히 제고되어야 하므로 한계산성에 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한 학술회의 개최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과 더불어 한계산성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전체 산성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을 재지정.

2) 조사연구계획

- 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 유적의 가치뿐만 아니라 건물지 및 성문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한계산성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 나아가 대몽항쟁의 전적지로서 한계산성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원형보존에 필요한 유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성벽 훼손 요인을 파악하여 유구의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 제시.
- 원형 고증 및 유적 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며, 성벽 및 유적 복원, 기타 유적지 정비사업시 발굴조사단의 의견을 수렴·반영.

3) 정비계획

- 최대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성벽에 대한 복원은 지양.
- 다만 하성의 남문지 근처 우수에 의한 성벽 훼손, 계곡접속부의 성벽 기저부 침하 등에 대한 정비방안 제시.
- 시·발굴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에 근거한 유적의 정비.
- 탐방로 및 휴게시설 등 효율적인 유적의 활용을 위한 편의 시설 계획 수립.

- 문화재안내판, 방향지시판 등 탐방객을 위한 시설 계획 수립.

4) 보존관리 계획

- 산성의 성벽을 비롯한 성내 각종 건물지 등의 훼손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5) 활용계획

- 성곽유적이라는 성격에 맞는 활용 방안 제시.
- 한계사지 등 주변의 문화재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방안 마련.
- 인근의 설악산 국립공원 등과 연계된 광역 프로그램 마련.
- 역사교육의 장 및 문화관광 명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 제시.

6) 사업추진계획

- 한계산성의 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투자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마련.

라) 한계산성의 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유산과 천혜의 녹색관광자원이 어우러진 문화관광지 ○ 대몽항쟁의 승전 사적을 간직한 역사교육의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험준한 지형으로 접근성 낮음 ○ 인구대비 낮은 문화 활동 인구 ○ 지역문화의 역사성·정체성 확립 미약 ○ 방문객 안전사고 우려 상존
OPPORTUNITIES(기회요소)	THREATS(위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근무제로 문화관광수요 급증 ○ 정부의 적극적 관광산업 육성책 마련과 관광사업 예산 확대 ○ 여가·건강 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 수도권에서의 접근 교통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 경쟁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내·외 관광 경쟁시장의 증대 ○ 유사 관광지 개발 가속화로 독창성 미비 ○ 사회인프라 환경의 시너지 결핍 ○ 인구유출현상 심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관광계획의 현실화 가능성 약화

☞ 한계산성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기회요인을 발전시키고 약점과 위협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의 마련과 차질 없는 수행이 필요함.

II. 종합정비계획 및 활용방안

가) 종합정비 방향의 설정1)

1) 문화재 보존과 활용방안

	계 획 지 표	계 획 방 안
조사연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보존을 위해 성곽 훼손 요인을 파악하여 유구의 훼손 방지 방안 제시 - 유적의 성격 규명, 원형 고증 및 유적 정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발굴조사단의 의견을 수렴, 반영 - 발굴조사 시 조사과정 및 유구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사교육의 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실측조사, 안전점검, 자연생태환경조사 - 발굴조사계획 수립
문화재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보호 및 효과적인 관리 위한 문화재보호구역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과 성내 시설물 보존

1) 기본 개념은 충주대학교 박물관, 『단양 적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2011.에서 발췌 인용.

	계 획 지 표	계 획 방 안
검토	- 역사문화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주변 환경까지 고려한 확대 지정안 및 협의구역 일부 지역 조정안 제시	
유적지 정비계획	- 유구 노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원형 보존에 입각한 보존, 정비, 복원 계획 수립 - 효율적인 유적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계획 수립	- 수목제거 안전펜스 및 데크 설치 - 유구별 보존, 정비, 복원 - 장기과제로서 유적 전시관 등의 교육 홍보시설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
유적보존 관리계획	- 유적 훼손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점검	- 지속적인 수목제거, 배수로 등 관리 - 관리자 및 전문가에 의한 정기 점검 실시
활용계획	- 중세 산성 유적 성격에 맞는 활용 방안 제시 - 주변문화재 및 문화유적과의 연계방안 마련	-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역사 체험교육 - 주변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탐방 코스 정비

(1)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복원

- 현존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소실된 부분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검토.
- 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현존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되 복원된 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2) 전통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

- 과거에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주변경관과 적절히 조화된 복원·정비계획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전통문화 환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한계산성과 그 주변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토역사문화 자원의 특색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발굴.
-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동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조사와 정비방향 설정

(1) 발굴활용 기본방향

- 한계산성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그 현황에 따라 발굴 및 보존 활동 정도와 정비방안의 수준을 결정하여 조사·발굴·연구.
- 발굴 후 원형보존의 수위를 결정하여 보존단계를 설정하고 보존 및 복원함으로써 호국 및 관방 역사 문화의 교육 장소로 활용.
-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하고 호국의 역사 문화 보존과 계승의 중심적 장소로 활용.

(2) 발굴보전에 대한 원칙

- 유적의 현재 훼손 및 보존 상태를 파악·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발굴·보존의 방법과 정도 결정.
- 유구의 훼손 방지 및 역사성 보존을 제1목표로 설정.

(3) 문화 전략 관점에서의 유적지 활용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개발전략.
 - 자원의 발굴.
 - 공간의 결합.
 - 기능의 복합화.
- 지역에 위치하는 문화유적지를 조사 발굴하여 그 유적의 고유한 성격을 자원화.
- 주변의 공간과 결합함으로써 문화재의 성격이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 조성.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관리.
- 보존 및 활용 방안의 지향 목표.
 - 미래의 발굴조사를 준비하는 장기적 비전을 담은 활용방안.
 - 시민의 생활과 공존하는 활용방안.
 - 역사성·교육성·현장성을 중시하는 시민 사용 장소로서의 활용방안.

(4) 현상에 따른 구역별 보존 방안 설정

- 각 구역별로 훼손 원인과 정도를 파악하여 현재 사용시설 및 등산로의 존치여부를 결정.
-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구역별로 조사·발굴·보존·활용정도를 결정.
- 다음의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
 - 1수준 : 현상보존
 보호책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진입을 통제하여 물리적 훼손 방지.
 기존 등산로는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
 - 2수준 : 유적 훼손 최소화
 우회가 불가능할 시 테크를 설치하여 등산로로 활용.
 - 3수준 : 조사 후 보존 활용
 발굴조사 이전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물리적 훼손을 미연에 방지함.
 발굴조사 후 복토 정비하고, 잔디 등을 식재하여 토사 유실 방지.
 붕괴 우려 지점에 한해 성벽 일부 복원.
 시설물은 조사 후 노출 정비.

3) 관내 유적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방향 설정

(1) 주변유적과 연계한 한계산성 일대 문화유적 활용방안 검토

- 한계산성 주변에 산재한 유적을 체험 가능한 연령별·인원별 다양한 코스를 설정하여 운영.
- 한계산성 및 주변문화유적을 좀 더 재미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사 양성.

- 일반인들에게 한계산성과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안내판 설치.

(2)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

- 한계산성을 중요한 국가 사적지로써 지정하여 보존·관리계획을 수립.
- 사적지정 후 문화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구성과 탐방환경 개선.
- 유적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대의 교통로를 인식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탐방센터를 건립하여 역사 문화에 대한 발견과 교육의 현장이자 한계산성과 인제의 역사 문화적 중요성을 알리는 시발점 역할 수행.
- 유적지에 담긴 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대중과 함께 한다는 목표설정.
- 탐방로에 관방 유적지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안내체계를 정비한 탐방코스를 구성·도입.
- 한계산성을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4) 보호관리 및 복원계획 방향 설정

(1) 문화재 보존 기본구상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보존 방안 수립하여 문화재 보존방향을 설정하고 활용.
-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성의 훼손 원인을 파악하여 산성의 추가 훼손 감소 방안 수립.
- 산성의 보존방향을 중심으로 산성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도입.
- 자연적인 현상 및 인위적인 파손에 의한 문화재 보호.
- 토사유출로 인한 성벽의 유실 등 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보호와 등산로 우회로 및 펜스 등을 설치하고 문화재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문화재임을 주지 시킴.

(2) 문화재의 활용 기본구상

-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감시.
-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중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문화재 사랑 실천'의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선진 시민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시킴.
- 인제군을 방문하는 일반시민들에게 한계산성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인지시키고자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 다양한 program을 활용한 문화재 인식 제고.
- 한계산성과 주변문화재에 담긴 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탐방객에게 전달하는 문화재해설코스를 운영 및 활용.

(3) 문화공간 조성

- 유적지의 역사, 문화, 환경을 모두 고려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매개체로 성격을 통합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복합용도 공간구조(Multifull Use Module)개념을 도입하여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
- 한계산성을 핵심보전지역(Core preserve)에 두고 그 외곽에 제1완충지역, 제2완충지역을 배치하여 보존과 이용의 강도와 밀도조정.

지역설정	핵심보전지역	제1완충지역	제2완충지역
적용지역	산성내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중심기능	문화재 보존기능	문화재 보존 및 활용기능	활용기능

(4) 공간배치 기본방향

- 핵심보전지역 : 수준별 산성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적용하여 보존 및 복원방향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
- 제1완충지역 : 산성과 시설지역(등산로) 사이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등산객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산로를 우회.
- 제2완충지역 : 등산로 진입부에서부터 유적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편의시설.

나) 발굴조사 계획

1) 기존조사 분석 및 조사의 필요성

- 한계산성은 1986년 지표조사가 이루어짐.
-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적의 성격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으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하성의 남벽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짐.
- 임시방편적인 정비 복원은 한계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성벽·성내 시설물 등의 성격이 다른 유구별 조사 계획을 마련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안 마련이 시급함.

2) 발굴조사 계획의 원칙

- 발굴조사는 기존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관방유적의 특성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과 중요 지역이 빠지지 않게 실시하도록 계획 수립.
- 한계산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
 - 조사계획안은 훼손·기록보존·유적의 성격규명 및 정비 등 활용자료 확보 등을 위해 성벽과 건물지 또는 시설물과 건물지 등을 하나로 묶어 조사지역을 구획.

- 중요유적과 인접한 유구는 같은 연차에 시행하여 조사의 효율을 기함.
- 성벽, 문지 등의 주요 시설물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
- 장기적으로 정비와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
- 인위적 또는 자연재해 등의 유적 훼손·멸실 가능성을 전제로 유적의 보존 및 보강 방안 제시.
- 출토유물은 건립이 예상되는 전시관에 전시·보관될 수 있도록 함.

3) 연차 발굴조사 실시 및 계획

(1) 1차년도 발굴조사(시행 완료)

- 조사지역 : 하성 건물지(A~E 구역)
- 조사면적 : 3,000m²
- 조사기간 : 50일
- 조사예산 : 200,000,000원
- 조사필요성
 - 시굴조사는 한계산성의 상성과 하성 가운데 하성에 관한 부분으로 앞서 실시된 지표조사와 학술조사를 근거로 하성내에서도 매장문화재의 분포가능성이 예상된 5개 지점(A~E지점)을 중심으로 유구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5개 지점(A~E지점)에서 모두 건물지와 관련 있는 매장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A지점의 경우 건물지 4개소, B지점 건물지 3개소, C지점 건물지 5개소, D지점 건물지 1개소, E지점 건물지 4개소 등 총 17개소의 건물지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수혈, 석렬, 와적, 구들, 박석 등의 다양한 유구가 건물지 내에서 확인되었다.
 - 기존 지표조사에도 「至正十八年」 銘 연대표기가 새겨진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었는 바, 기와편으로 볼 때 이곳 건물지는 1358년(공민왕 7년) 경에 개수 또는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지는 下城을 만들어 확장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2) 2차년도 발굴조사(시행 완료)

- 조사지역 : 상성 추정 건물지(대궐터), 천제단 일원(F~H 지점)
- 조사면적 : 10,557m²
- 조사기간 : 13일
- 조사예산 : 150,000,000원
- 조사결과
 - 시굴조사는 한계산성의 상성(上城)을 시굴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상성 3개 지점(F~H지점)에 관한 부분으로 구들건물지 15개소를 비롯하여 석축 3개소, 석렬 2개소, 수혈 2기, 우물지 1개소, 산성 관련 시설 3개소, 미상유구 2개소 등 총 28개소의 유구를 확인함.
 - 이번조사에서 다수의 건물지와 우물지, 구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우수

한 품질의 청자와 도기편, 宋代의 동전 및 백자(추정)편과 기타 생활유물이 확인되어 몽고침입기 전후의 시기에 사용된 산성이라는 것이 확인됨.

- 2009년 지표조사시에 건물지, 북쪽 소로길에서 토기편, 자기편 등이 발견되었고, 동쪽 능선에서는 청자편, 토기편, 세발솥(鼎)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 2016년 대궐터~상성 동1구간 방향에서 매장되어 있는 청동유병 1점(H=11.5), 청동 숟가락 8점 청동 마상배 2점(H=6.5)이 발견됨. 특히 청동유병은 국내 소장된 형태중 희소하며, 내부에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들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생활사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들 유물은 산성내에서 발견된 점과 유물 편년, 한계산성의 사용시기를 고려할 때 대체로 고려중기(13세기) 유물로 추정됨

(3) 3차년도 발굴조사

- 조사지역 : 하성 문터(남문터) 일원
- 조사면적 : 약 600m²
- 조사기간 : 60일
- 조사예산 : 250,000,000원
- 조사필요성
 - 한계산성 하성의 남문터는 우리나라 중세 산성의 성문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성문임.
 - 남문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문의 정확한 구조를 밝히고, 더불어 문터 내측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성내 우수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 성 내부의 본래 바닥면 확인 필요함.

(4) 4차년도 발굴조사(국립공원지역 탐방로 승인과 연계)

- 조사지역 : 상성 문터(동문터·서문터) 일원
 - 조사면적 : 1,000m²
 - 조사기간 : 60일
 - 조사예산 : 250,000,000원
 - 조사필요성
 - 한계산성 상성에는 동문과 서문 2개의 문터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음.
 - 서문은 산성의 하성과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이며, 동문은 하성의 남문과 함께 산성을 진입할 수 있는 통로임.
 - 지표상으로 흔적만 남아 있을 뿐 뚜렷한 시설물 흔적은 확인도지 않음.
 - 발굴조사를 통하여 문터의 정확한 구조를 확인하고 향후 탐방로가 개설될 경우 유구의 훼손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탐방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발굴 불필요.**

【한계산성 조사계획안】

구분	조사년도	면적(m ²)	조사비(천 원)	조사일	조사지역	비고
1차	2014	28,943	225,000	26	상성 유물출토지, 하성 제1건물지	시굴
2차	2015	10,557	150,000	13	하성 제2, 제3건물지 및 바위그늘 주거지	
3차	2022	600	250,000	60	하성 문터(남문터) 일원	
4차	2024	1,000	250,000	60	상성 문터(동문터·서문터) 일원	
계		41,100	875,000	159		

다) 유적 정비계획

1) 유적보존 현황 진단

- 한계산성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훼손이 이루어짐.
- 자연적인 요인은 성벽 주변의 수목에 의한 성벽 훼손과 2006년과 같이 집중폭우에 산사태 등에 의한 성벽의 훼손이 있음.
- 인위적인 훼손은 탐방객들의 등산로 활용으로 성벽 훼손이 있으나 현재 등산로가 폐쇄된 상태로 인위적인 훼손은 미미한 실정임.
- 한계산성의 자연적·인위적 훼손으로부터 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벽 주변 등산로의 우회와 수목의 제거, 정밀 학술조사를 통한 장기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함.

2) 계획의 설정

(1) 기본 방향

- 타 유적과의 차별성 주입.
- 문화재로서의 원형복원과 보존을 원칙으로 유적 훼손의 최소화.
- 역사교육의 장인 유적공원을 조성하여 교육과 휴식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
- 현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현실적 정비계획 마련
- 학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유구는 교육과 관광을 위해 선택적 복원
- 학술적 복원이 어려운 경우 현상유지
-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부분 복원
- 역사적·자연적 경관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한계산성을 비롯한 주변 역사·관광자원과의 광역적 네트워크의 형성
-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관람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수립
- 유적 내 시설물의 상호연계와 이용의 편의성 극대화

(2) 토지이용계획

-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한 이용계획 수립
- 환경친화적인 계획 도입
- 지역별 특성화

- 유적 내 식생을 복원하여 지표면 훼손방지 및 자연 식생공원환경을 구성
- 탐방센터에서 유적에 이르는 지역은 교육·휴식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
- 유적 내 평탄지는 야외활동 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디자인 계획

- 경관을 중심으로 한 경관과 조화된 디자인 계획
- 모든 시설물은 한계산성의 특징적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창출
- 전통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움 강조
- 단순·일관성 유지하여 동질성 부여

(4) 도입시설 계획

- 복원대상 : 성벽·문지 등 시설물
- 정비대상 : 성벽·건물지·주변식생 등
- 편의시설물 : 탐방센터·전망대·휴게시설·주차장, 대몽항쟁 승전기념광장 등

3) 유적지 내 유구 보존방안

-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현상을 확인한 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
- 성벽·건물지 등의 시설물은 정비를 원칙으로 하나 시설물 중 조사를 통해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곳을 택하여 복원을 검토
- 복원은 유적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유적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복원 및 정비는 유적 내 탐방 동선을 고려하고 일부지역에 집중하여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적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등산로로 유구를 복토하거나 등산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훼손원인을 제거
- 유적 주변지역의 수목 및 잡풀을 제거하여 수목의 뿌리로 인한 성벽 붕괴를 방지하도록 함

4) 유적 세부 정비 방안

(1) 성벽 및 배수로

- 현재 하성의 남쪽 성벽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진 상태임
- 향후 성벽에 대한 추가 복원은 지양하도록 함
- 다만 2006년 수해 당해 남문터의 서쪽 계곡부 성벽, 남문지 내측부 등 토사나 우수(雨水) 침투에 의한 붕괴 위험성이 있는 성벽 및 배수로에 대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함
 - 하성-남-제1구간의 하천 접속지점은 계곡수에 의한 침식으로 성곽 기저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반 침하로 인한 성돌 이완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하성-남-제1구간의 성벽 상부는 빗물이 침투하여 보수구간 일부가 이미 붕괴되어 다시 재보수한 지점이므로 빗물의 성벽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

요함. 현재 성벽을 헐고 암거(暗渠)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성벽 상부 산사면에서 흘러내려 모이는 빗물을 모아 안전하게 성벽 상부를 가로질러 배출될 수 있도록 성벽 상부에 도수로를 만들고 여장 하부를 관통해서 누조(漏槽)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성-남-제3구간 남문 내측부는 발굴조사 후 원형대로 복원하고, 성벽에 연접한 산사면의 산사태 지점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빗물과 토사에 의한 악영향을 방지해야 함. 산사태 지점에 대한 적절한 사방공사와 함께 계곡으로 도수할 수 있는 안전한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 각각의 훼손된 부분들을 원인에 맞추어 정비

(2) 문지

- 하성 남문 내측부는 발굴조사 후 고증 절차를 거쳐 문지에 대해 정비를 실시
- 성곽시설의 보존 및 출입시설의 원기능 회복
 - 성벽→성벽구간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재정비
 - 문지→문지의 원기능을 회복하고 등산로 및 출입시설과 연결
- 하성 남문으로 이어지는 본래의 출입로를 살려 탐방로 개설
- 상성의 서문지, 동문지는 관계기관의 인가 후 발굴 및 문지 정비

(3) 건물지

-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가 확인되었을 경우, 이를 정비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관방유적으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
- 유적 보존 차원에서 건물을 복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유적의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유적 훼손이 적고 복원효과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선택하여 복원
- 건물지 사용시기의 상부구조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상부구조의 복원은 지양
- 건물지 복원은 추후에 재구성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
- 건물지 복원 시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구 위로 성토 후 건물을 복원하거나 유구가 존재하지 않는 인접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원
- 복원을 하지 않는 건물지에 대한 보존 및 정비 방안을 마련

5) 시설물 정비 방안

(1) 유적 탐방로

- 한계산성은 험준한 산악지에 위치하고 있어 성내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동선은 한정되어 다양한 동선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움
- 한계산성은 2006년 수해 이후 등산객의 안전을 우려하여 등산로가 폐쇄된 상태임
- 등산로가 폐쇄되기 전 한계산성으로 출입할 수 있는 등산로는 하성의 남문으로 진입하는 2개의 등산로만 있었음
- 현재 폐쇄된 등산로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환경부, 국립공원관리

공단)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유적의 중요성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탐방로의 안전을 위한 사방공사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탐방로 근처의 사방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성내 탐방로는 통나무·석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마련하여야 함
- 탐방로 개설은 조사된 등성로 “가 ~ 라” 가운데 “가” 혹은 “다” 코스가 바람직함
- “가”코스 개설시 하성-남-제1구간에서 성벽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남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 필요
- “다”코스 개설시 하성에 근접하여 현재와 같이 하성-남-제1구간 동측의 하천접속부로 통과하기 보다는 하성 남문에서 바로 하천을 건너지 않고 전방으로 이어진 본래의 등성로를 살려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코스 개설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에서 44번국도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하천 북안을 거쳐 바로 입구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함

	
<p>등산로 정비의 예 (상당산성-성벽 탐방로와 등산로의 구분)</p>	<p>목재 데크 설치의 예 (상당산성-성벽 통행 및 관람 기능 동시 충족)</p>
	
<p>온달산성 탐방로 모습</p>	<p>삼년산성 성 내 탐방로</p>

	
<p>탐방객 휴게시설 정비의 예 1</p>	<p>탐방객 휴게시설 정비의 예 2</p>

(2) 등산로 개발

- 한계산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주변의 자연경관 자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유적 탐방과 등산을 겸할 수 있도록 등산로 개발이 필요
- 한계산성 일대는 매우 뛰어난 경관을 가진 곳으로 등산로 개발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옥녀탕 주차장에서 한계산성 쪽으로 오르는 등산로를 폐쇄한 상태이므로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필요
- 등산객의 수준에 따라 남문코스, 천제단 코스, 상성 북망대 코스, 안산 코스 등을 개발하여 등산애호가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는 등산로 개발 필요
- 성내 탐방로는 통나무·석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마련하여야 함
- 탐방로 개설은 조사된 등성로 “가~라”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안전이나 탐방객의 적절한 경관 감상, 시설물 설치비 절약, 경관훼손 최소화 등을 고려할 때 “가” 혹은 “나- 2” 코스가 바람직함
- “가”코스는 등성로 개시 시점의 일부 구간만 시공을 하여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 노선의 끝지점인 하성-남-제1구간에서 성벽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하게 남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 필요
- “나”코스는 주차장 후면 암벽의 동측부를 타고 오르는 노선으로 계속 올라가서 “가”코스과 합류하는 것이 “나-1”코스, “나”코스 초입새에서 옥녀탕 골짜기 서측사면을 타고 가서 “다”코스과 합류하는 것이 “나-2”코스인데, 옥녀탕과 인근이 좋은 경관을 관람하고 보다 편리한 통행을 위해서는 “나-2”코스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다”코스(나-2코스도 마찬가지로) 이동시 하성에 근접하여 현재와 같이 하성-남-제1구간 동측의 하천접속부로 통과하기 보다는 하성 남문 서측의 하천을 건너지 않고 남문의 전방으로 이어진 본래의 등성로를 살려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코스는 44번 국도에서 산성 쪽으로 교량을 가설해야 통행이 가능한데, 이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관의 훼손문제가 있으며, 주차장에서 44번 국도를 통해 교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안전에도 문제 있음)있음.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에서 44번 국도를 통해 이동하지 않고 옥녀탕과 하천 북안을 거쳐 바로 입구로 이동하는 시설을 만들 경우 경관 관람과 편리성은 우수하지만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라) 탐방센터 조성

1) 조성 목적

- 한계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미비로 인해 연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차장 인근에 발굴조사 사무실+휴게시설+유적안내소를 결합한 탐방센터 조성
- 주차장 시설을 유적으로 유도된 도로 말단부에 시설하여 유적의 인접성을 높게 하고 탐방센터를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적의 안내 및 홍보 그리고 보호를 도모
- 유적조사가 부재함에 따라 유적내외부의 정비와 다른 시설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계획



인제 한계산성 출입로 현황 표시도

2) 계획의 방향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옥녀탕 주차장 일대에서 향토소공원에 이르는 구역(44번 국도 북측면)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임
- 부지가 협소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인가를 통해 44번 국도 북측면 국립공원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44번 국도 남측면 활용은 국도를 횡단해야 하므로 탐방객 안전에 위협 요인임)
- 주차장 설립 부지를 선정하고 인접한 곳에 탐방센터를 설치 계획하여 탐방객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최첨단 시설의 좋은 시설보다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단층의 소규모로 조성하
되 한계산성에 대한 유적 안내 공간을 배치하고, 한계산성 탐방을 위한 리플렛,
기타 인쇄 관광 안내 책자 등을 비치
- 화장실을 설치하여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함
- 인터넷 탐색 및 인제군 관광정보시스템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 관광지 홍보
- 발굴기간 동안 체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룸으로써 활용 가능
- 조사결과에 따라 새로 전시관 건립시 탐방센터와 편리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계
획



인제 한계산성 탐방편의시설 및 기념탑 설치 부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부지

마)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

1) 중요 시설 계획

(1) 전망데크 설치

- 관방유적의 특성을 살린 주변지역 조망을 위해 전망데크 설치.
- 다수의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것보다 특색 있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한정하여 설치.
-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주변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립하여 주변 지역의 경관을 조망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사업대상부지에서 발굴조사 후 장대지 또는 망대지 등의 시설물 흔적이 확인되면 대상 유구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환

	
<p>문경 고모산성 전망데크</p>	<p>백산성 전망데크</p>
	
<p>서울 도성 전망데크</p>	<p>오두산 전망데크</p>

(2) 식생 정비 및 경관 조성

- 성벽과 건물지 주변에 자생하는 나무는 유구를 훼손하는 주요한 요소임.
- 성벽과 건물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벽과 건물지 등 유구주변에 자생하는 나무에 대한 벌목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유적의 특성상 경관확보를 위해서도 식생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인위적인 축성이 이루어진 구간을 중심으로 성내외 5~10m 정도의 구간 나무 벌목.
- 탐방로 내 모든 식생 제거.

- 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가 완료되면 유구의 보호를 목적으로 뿌리가 깊지 않은 초본류를 식재하여 경관조성.
-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고유수종 식재

	
성벽 주변 수목 정비의 예 1(정양산성)	성벽 주변 수목 정비의 예 2(정양산성)
	
수목 정비(삼년산성)	수목정비(상당산성)
	
수목 정비(온달산성)	수목 정비(충주산성)

(3) 광장 및 편의시설 조성

- 부지는 현 옥녀탕 옆 주차장~향토소공원에 이르는 구역 활용
- 한계산성으로 오르는 옥녀탕 주차장 주변(탐방로 “나”코스 입구 전면 부지)에 식생을 정비하고 광장을 조성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 광장에 각종 휴게 시설(벤치·화장실·파고라)을 설치하여 산성의 활용과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발굴조사 내용과 연계하여 각종 유적들을 복원하고, 특색 있는 광장 연출

- 특히 한계산성의 대몽항쟁 사적을 알 수 있는 기념비를 광장 내에 조성
- 광장 내에 주차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탐방객의 편의 제공

	
<p>단양 온달산성 주차장 및 광장</p>	<p>평택 농성 주차장</p>
	
<p>삼년산성 주차장 내 화장실 모습</p>	<p>수원 화성 성 내 화장실</p>

(4) 전시관 건립

- 장기 과제로 한계산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
- 전시관 부지는 등산로 등의 코스 입구에 위치하여 광장 및 탐방코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 유적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발굴조사에서 습득된 유물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되 한국의 중세산성, 대몽항쟁 전적지로서 한계산성이 지닌 관방유적의 특성을 볼 수 있도록 전시

2) 안내판 정비 계획

(1) 안내판 정비 및 시설

① 한계산성 안내판

- 외부에서 인제로 진입하는 도로에 한계산성의 유적을 안내하는 교통표지판 설치.
- 방향표지판 및 유적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삼년산성 문화재 안내판



문경새재 안내판의 관문성 강조 모습



【사진 164】

문경새재 안내판의 관문성 강조 모습



문경새재 안내판의 관문성 강조 모습



문경새재 안내판의 관문성 강조 모습



문경새재 안내판의 관문성 강조 모습

- 종합안내판.
 - 한계산성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요약정리 기록하여 탐방객에게 교육자료로 활용.
 - 주차장과 유적 진입부 적지에 설치.
- 방향 표지판.
 - 탐방로의 갈림길에서 코스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치.
 - 유적의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디자인.
- 유적 안내판.
 - 유적 입구 및 발굴지점 등에 설치.
 - 유적의 연혁을 요약.

- 장기간 관리가 용이한 재질 및 디자인으로 설치.
- 유구 안내판.
 - 성내 시설물 및 안내물 앞에 설치.
 - 성곽내부 시설물의 연혁을 요약 설명.
-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 병행.
- 모든 안내판을 종류별로 디자인과 글씨체 통일.

※문화재청의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형식과 모델로 통일

② 주변 안내판

- 유적과 함께 볼 수 있는 인근의 유적 및 관광지를 표시한 안내판 구비
- 어려운 낱말, 한자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강조

	
<p>고모산성 안내판</p>	<p>온달산성 탐방로 방향표지판 모습</p>
	
<p>미륵사지 내 문화재 관련 안내판 1</p>	<p>미륵사지 내 문화재 관련 안내판 2</p>
	
<p>일본 今歸仁城 산성 안내판</p>	<p>일본 今歸仁城 산성 안내 모형</p>

<p>삼년산성 성 내 안내판 모습</p>	<p>덕주산성 남문 안내판</p>
<p>정양산성 문화재 안내판 1</p>	<p>정양산성 문화재 안내판 2</p>

3) 환자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호체계 구축

- 유적 내·외 탐방로 상에 119 산악 구급함을 설치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낙상, 벌레 및 파충류의 공격)에 대비.

4) 각종 프로그램 계획

(1) 주차장~유적까지 탐방 프로그램 마련

- 교육용 유적,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 한계산성의 역사적 의의와 성곽유적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 한계산성으로 이동하는 탐방로와 일대는 다양한 야생화,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환경을 가진 곳으로 이를 산성 유적과 결합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늘공원 내 탐방객 안내소

- 입구에 홍보 부스를 마련
- 주차장~유적까지의 탐방코스를 설명하는 안내판 배치
- 안내판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
- 탐방객의 방명록을 기록하고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마련하여 탐방객들의 참여 독려

(2) 발굴체험 운영

- 발굴조사는 유적 탐방객의 볼거리와 교육을 위하여 일부 오픈하여 진행.
- 발굴체험 운영은 유적발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험요소가 배제된 장소에서 진행요원의 감독 하에 진행.
- 발굴조사 기간 내 발굴체험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견학으로 대체.

	
<p>충주 문성리 유적 고고학 현장 발굴체험 행사</p>	<p>삼년산성 발굴체험 프로그램 모습</p>
	
<p>상당산성 발굴체험 모습</p>	<p>상당산성 발굴현장 공개 모습</p>
	
<p>상당산성 초등학교생 발굴체험 모습</p>	<p>日本 屋島城 일반인 현장 공개 모습</p>

(3) 활용 프로그램 운영

- 현재까지 한계산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유적공원의 조성과 함께 한계산성에서 체험행사를 함으로서 홍보가 이루어야 함(예) 1박2일 병영체험 등).
- 체험행사는 한계산성의 특성과 교육적 효과를 살릴 수 있어야 하며 흥미를 유발 할 수 있어야 함.

- 숲 및 성벽(둘레길) 걷기 프로그램.
- 활쏘기, 창던지기 등 프로그램 운영.

IV. 추진 및 운영방안과 투자계획

가) 사업추진 방향

1) 소요예산 확보

- 유적의 학술적 조명을 위한 기초조사비와 탐방로 개설예산(1단계 사업)은 도·군비로 투자하고 2단계 이후 사업은 국비 확보
-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한계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 지정.

2) 행정적 관리체계 구축

- 한계산성의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적 관리체계의 구축.
- 한계산성은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국립공원관리공단·문화재청·강원도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함.

3)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한 참여의식 고취

- 한계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설악산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주로 등산과 휴양지의 성격이 강함.
- 따라서 한계산성에 대한 조사·정비·복원사업도 중요하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향후 산성에 대한 정비 사업은 반드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적지로서의 한계산성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토사학자 등 인제지역의 문화유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계산성 탐방 행사 등을 지원하고, 군 내 문화재 관련 자원봉사 조직을 마련하여 한계산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토지매입

- 한계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으로 산성 내 토지는 국유지로서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은 불필요함.
- 다만 한계산성의 진입로에 광장·탐방센터 및 주차장 부지 조성할 경우 토지 매입이 필요함.

5) 지속적이고 성실한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점검관리

- 한계산성은 단기적인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정비 관리가 유적을 보전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
- 특히 한계산성의 하성의 남쪽 구간은 높은 성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는 수시로 성벽에 대한 수해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함.

나) 사업추진 전략

1) 사업 구분

(1) 학술 조사·연구

- 유적의 발굴조사 등 유적의 원형 확인, 고증과 원형의 기록보존을 포함한 일련의 사업
- 산성 유적에 대한 학술행사, 연구서 발간 등을 통하여 유적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학계 및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

(2) 유적 정비

- 유적의 현상 또는 원형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유적 및 주변 정비사업
 - 성곽 정비 : 성벽 및 배수시설의 수리, 복원 및 점검, 건물지 정비 등
 - 산성 주변 기초 정비 : 탐방로 정비, 안내판 정비, 수목정비, 배수로 정비 등
 - 산성의 수목 및 배수로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 : 원활한 탐방을 위한 정기적인 수목 정비, 성곽 유구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배수로 정비

(3) 시설 정비

- 유적의 보존 관리 및 탐방객의 탐방, 편의 등을 위한 일련의 조성사업.
 - 종합안내판 및 유적 설명판 정비
 - 벤치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 정비
 - 광장·주차장·탐방센터 건립 등

2) 단계별 목표 설정

구분 단계별	시 기	사 업 내 용
1 단계	2012~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현황 및 안전성 검토용역 시행 · 1차 종합정비계획 수립(학술대회 포함) · 1~2차 시굴 및 발굴조사 실시(학술대회 포함) · 산성 진입 탐방로 인허가 관계부처 협의
2~3단계	2020~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종합정비 계획 및 관리·운영 프로그램 개발 · 3~4차 발굴조사 실시 · 1차 유적정비 및 내부식생 정비 · 탐방센터 건립 실시설계 및 인허가 시행 · 산성 진입탐방로 정비 착공 및 준공 ·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정비
중장기계획 (2025년 이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센터 및 전시관 건립·개관 · 2차 유적정비 및 내부식생 정비 · 편의시설 정비 기타 · 주변 관광지 개발 및 산성주변 식생복원

다)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1) 재원조달계획

- 한계산성 종합정비계획은 인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사업이자 공공적 성격의 문화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부처의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함.
- 한계산성은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적으로의 지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정부 기준보조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50%	
관광지·전적지 개발	5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	70%	
시·도지정문화재 보수비	50%	
지방체육시설	50%	
휴양림조성	70%	
지방수목원	40%	
기타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수행 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20~100%) 또는 정액보조	기획예산처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함

2) 사업별 투자 계획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토지매입	탐방센터부지(주차장 外)	1식	(1,600,000)	
	소 계		(1,600,000)	(지방비 투자)
학술연구	학술대회 및 단행본간행 (1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1식	120,000	기추진(2012년)
	소계		120,000	
발굴조사	1차 발굴조사(학술대회 포함)	1식	225,000	기추진(2014년)
	2차 발굴조사(학술대회 포함)	1식	150,000	기추진(2015년)
	3차 발굴조사	1식	250,000	
	4차 발굴조사	1식	250,000	
	소 계		875,000	
유적정비	성벽정비	1식	200,000	
	유구정비	1식	500,000	
	소 계		700,000	
탐방센터	실시설계	1식	150,000	
	토목/건축	1식	500,000	
	전기 등 기타	1식	500,000	
	내부시설물	1식	300,000	
	소 계		1,450,000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관리·운영 프로그램	관리·운영프로그램	1식	200,000	
	소 계		200,000	
시설정비	식생정비	1식	300,000	
	탐방로정비	1식	1,000,000	
	소 계		1,300,000	
기 타	환경정비	1식	150,000	
	기타 편의시설	1식	1,000,000	
	소 계		1,150,000	
합 계			5,795,000	(토지매입비 제외)

3)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사업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장기
		2019년 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0 이후	
토지매입	탐방센터부지 및 주차장		(600,000)	(1,000,000)						
학술연구	학술대회 및 단행본 간행	120,000								
발굴조사	1차 발굴조사	225,000								
	2차 발굴조사	150,000								
	3차 발굴조사				250,000					
	4차 발굴조사						250,000			
유적정비	성벽정비						200,000			
	유구정비							200,000	300,000	
탐방센터	기본·실시설계					50,000	100,000			
	토목,건축							500,000		
	체험공간 外								800,000	
관리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구축			100,000		100,000				
유적전시관(장기 사업)										
시설정비	식생정비						200,000	100,000		
	탐방로정비			50,000		500,000	450,000			
기 타	환경정비						150,000			
	편의시설 기타							250,000	750,000	
소계		495,000	0	150,000	250,000	650,000	1,350,000	1,050,000	1,850,000	
합 계		5,795,000								

라) 관리 운영 계획

1) 관리 운영 체계

- 한계산성에 대한 관리운영 인제군의 문화관광 주무부서에서 담당.
- 소수의 핵심인력은 공무원이며, 인제 한계산성의 정비사업을 책임·감독.
- 전문성이 있거나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위탁방식으로 하여 인력 확보.
- 한계산성 문화해설사 등 자원봉사자 활용.

2) 관리 운영 사항

(1) 문화 자원 및 시설 관리

- 문화유적 및 시설의 보전, 관리를 위해 문화자원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보수, 식생의 복원, 주변 환경정비, 이용구역의 범위 설정과 관리, 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한 계몽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 유적지내 안내판, 방향표시판 등 안내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고 유적지내 쓰레기 및 오물 등이 없도록 깨끗이 관리 탐방객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관리.
- 한계산성의 지속적인 복원, 주변경관보호, 관련 문화 및 학술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조직 구성.

(2) 수목관리

- 한계산성 내외의 수목 생육상태를 항시 점검 탐방객들이 사적공원으로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하자보수 등 대책을 수립.
- 매년 봄과 가을 중 최소 1회, 성벽 주변의 수목 제거 구간에 산재한 잡목과 잡초를 제거함.
- 수목관리 중 다음 사항은 별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목의 식재, 굴취, 이식 또는 보식 제거하는 행위.
 - 수목의 제거(고사목 등) 지피식물 또는 토석 채취 행위.
 - 수세 회복, 수형조절, 외고 뿌리수술 등 수목관리 행위.
 - 수목의 뿌리가 뻗어있는 지역에서 성토, 절토, 토석과 야적물의 적치 등 뿌리 발달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탐방객 서비스

- 탐방객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평상시 안내와는 달리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화재관련 사고에 대해 사전에 조치대책을 수립.
- 한계산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쾌적한 탐방 및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항시 깨끗이 관리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탐방로가 마련되어야 함.
- 지역에서 많은 문화재해설사를 양성하여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문화재에 대한 흥미 있는 해설과 안내로 관광의 만족도를 최대한 향상시킴.

(4) 홍보 및 활성화

- 한계산성 및 현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인제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각종 안내책자, 팸플릿 등을 배포·홍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탐방객을 유치.

9. 종합 의견

가) 문화재위원 ○○○

- 한계산성은 우리나라에 있는 산성 가운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 남문의 입구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다른 산성과는 달리 일시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특이한 산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현재 신청하고자 하는 범위는 너무 넓으므로 산성이 있는 선을 따라 그 주변만을 소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 한계산성의 주변은 명승 등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소극적인 접근을 하여 일부분만을 지정하는 것은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

나) 문화재위원 ○○○

- 1) 한계산성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는 산성으로 처음 축성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한계성이라는 명칭과 산성 내에서 청자편과 고려시대 기와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어 고려시대 사용되었던 산성으로 이해됨.
- 2) 산성의 둘레 약 1.8km이고 안산에서 남쪽 계곡을 에워싼 포곡식 산성으로 계곡 쪽에 남문터가 있고, 성안에는 절터, 대궐터, 천제단 등이 있음.
- 3) 한계산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우 험준하고 높은 입지를 선택하여 축성하고 험준한 지대를 활용해 일부 한정된 구역에만 축성하였으며, 고려시대 몽고침입에 대한 피난성으로 활용되어 몽고침입기 이후 한반도 내륙지역의 축성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어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4)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하성 내 건물지와 관련 있는 매장유구 및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상성의 절터, 대궐터, 천제단, 우물지 등은 시설 및 관련 유구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5) 현재까지 발굴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유구로서의 가치는 인정된다고 생각됨, 다만 복원된 남문지 등은 원형으로 복원되었다고 보기에 문초석 및 상인방의 석재 마감상태를 비추어 어려움이 있으며, 남문의 원형 고증을 위한 자료 발굴 및 조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추후 복원 및 활용을 고려한 기록화 작업의 일환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6) 지정의 범위 측면에서 신청한 영역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는 산성의 성벽선을 중심으로 산성 둘레와 산성 내 하성의 발굴된 건물지 및 상성의 건물지 유구 등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 인제 한계산성은 사적으로 지정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며, 지

정의 공간적 범위는 하성 내의 건물지 및 상성 부분 등 유구 등 조사 및 확인된 지역을 포함한 산성의 성벽선을 따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 ○○대학교 명예교수 ○○○

한계산성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임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 기념물 제17호(1973. 7. 31)로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한계산성은 1259년(고종 46) 몽고에 투항한 조휘 일당이 몽고 군사를 이끌고 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산성을 지키고 있던 방호별감 안홍민(安洪敏)이 야별초군(夜別抄軍)를 거느리고 나아가 습격해 승리한 역사적인 현장이다.

한계산성의 규모는 1,934m도 길이의 상성과 5,384m 길이의 하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 밖에 별도로 시설하였다는 돈후(墩堠)시설은 자연지형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망대 역할 및 계곡부로 진입하는 적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계산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2차례의 지표조사와 2차례의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성 건물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2014년 10월 15일 ~ 2014년 12월 10일(실 조사일수 26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상성 건물지에 대한 시굴조사는 2015년 10월 20일 ~ 2015년 11월 19일(실 조사일수 13일) 일정으로 이루어져 고려시대 건물지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하성 계곡 동편 건물지에서는 ‘지정십팔년(至正十八年)’명 와편이 다수 수습되어, 이 건물지는 1358년(공민왕 7) 경에 창건 또는 중건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 산성이 고려 말기에도 사용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하성 계곡부 서측에 있는 건물지에서 수습되는 기와는 대체로 문양이 없는 기와이지만 근처에서 수습된 백자편이나 다른 토기편 등의 유물을 고려할 때 이 산성은 조선 시대에도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계산성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문지 주변과 서쪽으로 계곡 건너편의 성벽은 지난 1992년~1996년까지 5차에 걸쳐서 복원공사를 시행한 곳으로 여장까지 새롭게 복원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1) 한계산성은 첫째, 김부가 축조하여 김부왕성이라고 하는 설, 둘째, 궁예가 895년 8월에 함락시킨 저족(인제)을 한계산성에 비정하는 설, 대몽고전란 시 축조했다는 설 등 3가지 설이 있는데 이를 정밀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증하여 해명하여야 설득력이 있을 것임.
- 2) 성벽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축시기나 축조기법에 대해서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복원이 이루어져 하성의 성벽 원형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의 건물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행하였지만 건물지의 정확한 규모나 성격을 밝힌 것이 1동도 없다는 것은 한계산성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하겠음. 특히, 성내 조사 시 확인된 삼국시대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선조문 기와편을 비롯한 유물들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3) 하성 남문지는 한계산성의 규모로 볼 때 정문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암

문 형식을 하고 있음. 특히 지형상 남문 개구부를 통과하여 서측으로 진입하는 내용성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현 상태는 남문지 양 측벽을 연장하여 석축하고 북측 급경사면을 진입부로 개설하여 성 내·외로의 통행에 매우 불편하게 변형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 4) 남문지 개구부 폐쇄를 위한 성문 시설과 관련하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남문지 외벽은 대형 판석 1매를 깔고 서측에 6단의 석재로 조성하고, 동측은 5단의 석재로 조성하여 문둔테홈을 가리도록 축조하고, 문설주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성문과 결구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확인할 수 없음. 또한, 개구부 외벽 하부에는 대형 판석의 동·서 양쪽에 문둔테홈을 파냈는데 동측에는 네모진 문설주홈과 문둔테홈이 같이 파여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본래는 문설주를 세우고 좌우 쌍문짝을 달았을 것으로 파악됨. 현재와 같이 문설주가 없는 상태로 상·하인방식의 둔테홈에 문축 쇠쇠만을 끼워 사용하는 것은 성문 설치 시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의 취약점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으로 변형된 잔존유구로 파악됨.
- 5) 상성 및 하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시설된 둔후(墩堠)시설은 ‘둔대’나 ‘망대’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백제시대 산성에는 이미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성(子城) 역할의 보루를 축조하여 실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려산성이나, 한계산성의 특징적인 시설로 부각시키기는 미흡하다고 하겠음.
- 6) 국가사적은 역사적인 맥락과 잔존유구의 양호함과 특징적인 면이 검토되어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벽의 축성시기 및 축조기법을 파악하고, 건물지 조사도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1동이라도 건물지의 규모 및 성격을 파악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7) 한계산성이 갖고 있는 우수한 경관은 명승과 더 친밀성이 있는 것으로 사적으로서의 당위성 확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음.
- 8) 따라서, 한계산성 사적지정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973년 지방기념물 지정 당시의 사진을 확보하는 등 고증연구가 필요하며, 좀 더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성곽의 초축시기 및 유구의 규모와 성격을 밝혀 가치를 창출한 후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라) 문화재전문위원 ○○○

한계산성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고려시대 산성으로, 마의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는 곳이다.

기록을 통해 1259년 방호별감 안홍민이 야별초군을 거느리고 습격해 승리를 거둔 산성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계산성은 상성과 하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성은 1934m, 하성은 5384m의 규모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축성한 특징이 있다.

발굴조사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하성 부근 건물지에서 ‘지정십팔

년(至正十八年) 명 와편이 수습되어 1358년(공민왕7년)경에 창건 또는 증건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수습된 유물을 통하여 조선시대까지도 산성으로서 사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부터 1995년에 정비된 남문지 주변과 서쪽 계곡 건너편 성곽은 원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원되어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사 등의 문헌에서 한계산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고, 발굴을 통해 실체가 확인된 점 등은 사적 지정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할수 있다.

또한 여몽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한계산성은 사적으로서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남문지와 서측의 원형을 훼손한 구간에 대한 보완대책과 발굴조사를 통한 한계산성의 특징과 가치를 보완하고, 사적 지정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체성부를 중심으로한 내부 건물지 일부를 최소한의 지정구역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함안 가야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안 가야리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19년 8차 위원회('19.08.14.) 원안가결
 - 지정예고 2019.8.26.(문화재청 공고 2019-244호) / 30일 간
 - 접수 사항 : 지정예고 구역 인근 3필지 추가 건의(158-1, 173-1, 689-2)
 - 지자체 검토 의견 : 지정예고된 구역과 인접하고 유적잔존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되고, 도로와 연결되는 등 향후 유적의 효율적인 조사와 보존 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정구역에 편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지정 예고 중 추가된 3필지와, 일부 누락됐던 필지를 수정한 전체 문화재 구역은 197필지 195,021㎡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蹟)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289번지 일원
- (3) 지정신청 명칭 :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蹟)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92필지 193,252㎡
- (5) 관리단체(안) : 경상남도 함안군
- (6) 신청사유
 -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가야리유적의 역사적 가치는 문헌과 구전에서 전해오던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실체이며, 토성과 건물지, 출토유물 등을 바탕으로 아라가야 전성기인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의 핵심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야리 토성의 축조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권력이 존재했고, 이러한 권력을 소유했던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음.
- 가야리유적의 토성은 가야권역에서 발견된 동시기 유적과 비교할 때, 그동안 발견된 사례가 없는 축성기법으로 잔존높이 8.5m, 폭 20m 정도로 다른 가야 중심지역의 성곽 중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해 가야 성곽 토목 건축 기술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사료됨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2013년 : 傳아라가야 왕궁지 정밀지표조사(함안군·경남발전연구원)
- 2018년 :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 및 시굴조사(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8년 :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공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8년 : 제10회 아라가야 학술심포지엄
(함안군·국립창원대학교,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 2019년 :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조사(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2019년 3월 : 함안 가야리 유적(아라가야 추정왕성지) 국가사적 지정신청
(함안군→경상남도)
- 2019년 4월 : 함안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함안군·국립창원대학교)
- 2019년 5월 : 함안 가야리유적(아라가야 추정왕성지) 국가사적 지정신청
(경상남도→문화재청)
- 2019년 6월 : 함안 가야리유적 사적지정신청 관련 현지조사
- (2)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2019.04.12.) : 사적 지정 신청 가결(만장일치)
- (3)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18.06월)
 - 현재까지(2018. 6.)의 조사결과 해당 유적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왕궁 추정유적 중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및 축성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향후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주변 개발압력으로부터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
- (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18.12월)
 - 유적에서 확인되는 토루와 목책열, 주혈군, 다수의 수혈시설 등의 유구를

불 때 아라가야의 왕궁 또는 왕성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출토유물을 통해 불 때 군사적 성격의 건물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한 후 신속한 사유지매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발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함안 가야리 유적 관련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성과(요약)

I. 국내 학술대회

- 주제 : 함안 가야리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 일시/장소 : 2019. 4. 30. / 함안문화원 대공연장
- 종합성과
 - 함안 가야리유적의 확인으로 가야사에 있어 대가야, 금관가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라가야(안라安羅)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가야리 유적은 현재까지 확인된 가야의 추정왕성 유적 중 가장 완벽하게 잔존하고 있어 우리고대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가야의 도시, 도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또한 그 축조기법에 있어서도 판축성토기법 등이 확인되는 등 아라가야의 우수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사례임
 - 향후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왕성 또는 왕궁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 확보 및 유적 전반에 대한 조사로 가야축성술의 면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II. 국제 학술대회

- 주제 : 아라가야의 역사와 공간
 -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 일시/장소 : 2018. 12. 7. ~ 12. 8. / 함안문화원 대공연장
- 종합성과
 - 2018년 토지소유주의 경작과정에서 확인되어 긴급조사된 함안 가야리 유적에 대한 조사결과 판축기법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쌓아 올린 높이 8.5M의 성벽(토루)와 다수의 주혈군과 대형주거지, 수혈등이 성벽 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수혈내부에서 군사적 성격의 투구편, 화살촉 등이 확인되었음.
 - 해당유적이 위치한 곳은 1587년 편찬된 함주지(咸州誌)에 가야의 옛터가 1,606척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곳이며, 1917년 일제강점기 고적

조사에서 傳아라가야 왕궁지로 보고된 곳임

- 가야리 유적 남쪽으로는 아라가야의 왕릉으로 알려진 말이산고분군과 남문외고분군이 병풍처럼 유적을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길이 39M 폭 15.9M의 초대형 가야건물지가 확인된 함안 당산유적이 위치하는 등 아라가야의 주요유적이 가야리 유적주변을 둘러싸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가야리 유적은 아라가야의 중심공간인 함안군 가야읍에서도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공간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아라가야의 도성의 모습도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6)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33-3	전	835	835						
2	"	133-7	전	42	42						
3	"	133-9	장	13	13						
4	"	134	묘	1,005	1,005						
5	"	135	전	340	340						
6	"	136	답	1,755	1,755						
7	"	139	전	142	142						
8	"	140-1	전	985	985						
9	"	140-2	묘	102	102						
10	"	141-1	전	2,050	2,050						
11	"	141-2	전	552	552						
12	"	141-3	전	1,557	1,557						
13	"	141-4	묘	175	175						
14	"	141-5	전	278	278						
15	"	141-6	전	1,045	1,045						
16	"	142	전	595	595						
17		158-1	전	257	257						
18	"	159	전	2,003	2,003						
19		173-1	대	495	495						
20		173-2	전	324	324						
21	"	182	전	1,412	1,412						
22	"	183	임	119	119						
23	"	184	전	1,412	1,412						
24	"	185	전	76	76						
25	"	186	전	655	655						
26	"	187	묘	1,488	1,488						
27	"	188	전	417	417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8	"	189-1	대	502	502						
29	"	189-2	대	86	86						
30	"	189-3	대	182	182						
31	"	189-4	대	36	36						
32	"	189-5	대	311	311						
33	"	190-1	전	1,137	1,137						
34	"	190-4	대	311	311						
35	"	190-7	전	1,055	1,055						
36	"	190-8	전	2,817	2,817						
37	"	190-18	전	1,025	1,025						
38	"	251-2	전	678	678						
39	"	251-4	임	55	55						
40	"	253-1	전	1,736	1,736						
41	"	253-2	전	1,550	1,550						
42	"	253-3	전	52	52						
43	"	254	전	155	155						
44	"	255	전	2,096	2,096						
45	"	269	묘	43	43						
46	"	270	전	1,653	1,653						
47	"	271	묘	1,835	1,835						
48	"	272	전	1,567	1,567						
49	"	273	전	1,788	1,788						
50	"	274	전	2,175	2,175						
51	"	275-1	임	162	162						
52	"	275-2	전	1,055	1,055						
53	"	276	묘	922	922						
54	"	277	전	2,401	2,401						
55	"	277-1	대	330	330						
56	"	283-1	대	579	579						
57	"	283-2	대	595	595						
58	"	283-3	전	340	340						
59	"	284	전	165	165						
60	"	284-1	전	331	331						
61	"	285	전	655	655						
62	"	286	전	1,937	1,937						
63	"	287	전	2,261	2,261						
64	"	288	전	1,183	1,183						
65	"	289	전	3,907	3,907						
66	"	291	묘 지	1,779	1,779						
67	"	292	전	1,243	1,243						
68	"	292-1	전	122	122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9	"	293	전	1,124	1,124						
70	"	294	임	635	635						
71	"	295	임	367	367						
72	"	296-1	임	426	426						
73	"	296-2	전	1,115	1,115						
74	"	296-3	전	303	303						
75	"	297-2	전	145	145						
76	"	297-3	전	1,623	1,623						
77	"	297-4	전	123	123						
78	"	549	답	72	72						
79	"	550	대	248	248						
80	"	551	임	442	442						
81	"	551-1	대	90	90						
82	"	552	전	1,725	1,725						
83	"	552-1	전	318	318						
84	"	553	임	165	165						
85	"	554	임	2,281	2,281						
86	"	555-1	전	850	850						
87	"	555-2	전	1,653	1,653						
88	"	556	묘	1,388	1,388						
89	"	557	묘	536	536						
90	"	558	전	1,134	1,134						
91	"	559	임	16,008	16,008						
92	"	559-2	임	88	88						
93	"	560	임	5,965	5,965						
94	"	561	임	93	93						
95	"	562	중	165	165						
96	"	584	묘	1,164	1,164						
97	"	585	전	479	479						
98	"	586	답	369	369						
99	"	586-2	답	173	173						
100	"	587	답	551	551						
101	"	587-2	답	73	73						
102	"	588	답	1,193	1,193						
103	"	589	전	143	143						
104	"	590	전	1,183	1,183						
105	"	590-1	전	84	84						
106	"	590-2	전	1,183	1,183						
107	"	591	전	4,000	4,000						
108	"	591-2	전	198	198						
109	"	592	전	913	913						
110	"	592-2	전	198	198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1	"	593	전	1,028	1,028						
112	"	594-1	전	566	566						
113	"	594-2	묘	109	109						
114	"	594-3	전	244	244						
115	"	595	전	2,093	2,093						
116	"	596	전	1,269	1,269						
117	"	597	전	516	516						
118	"	598	전	638	638						
119	"	599	전	893	893						
120	"	600	전	1,395	1,395						
121	"	601	전	605	605						
122	"	602	전	850	850						
123	"	607	전	539	539						
124	"	608	전	549	549						
125	"	609-2	전	2,185	2,185						
126	"	609-3	전	155	155						
127	"	609-4	대	86	86						
128	"	609-5	대	268	268						
129	"	622	전	668	668						
130	"	623	묘	489	489						
131	"	624	전	674	674						
132	"	625	전	803	803						
133	"	626	전	102	102						
134	"	627	전	1,491	1,491						
135	"	628	전	1,524	1,524						
136	"	629	전	159	159						
137	"	630	묘	1,405	1,405						
138	"	631	전	1,081	1,081						
139	"	689-1	답	1,871	1,871						
140	"	689-2	답	307	307						
141	"	694	전	812	812						
142	"	694-1	전	260	260						
143	"	694-2	전	2,379	2,379						
144	"	695	전	516	516						
145	"	696	전	1,514	1,514						
146	"	697	전	637	637						
147	"	697-1	전	156	156						
148	"	698	전	876	876						
149	"	698-1	전	67	67						
150	"	698-2	전	700	700						
151	"	698-3	전	274	274						
152	"	699	전	1,421	1,421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3	"	700	묘	2,932	2,932						
154	"	701	전	719	719						
155	"	701-1	전	527	527						
156	"	702	묘	1,798	1,798						
157	"	703	전	1,845	1,845						
158	"	704	전	1,878	1,878						
159	"	705	전	1,150	1,150						
160	"	706-1	전	1,917	1,917						
161	"	706-2	답	562	562						
162	"	707-1	전	922	922						
163	"	710	전	2,559	2,559						
164	"	711-1	전	1,081	1,081						
165	"	711-2	묘	235	235						
166	"	711-3	전	536	536						
167	"	711-4	전	73	73						
168	"	711-5	전	1,068	1,068						
169	"	712	전	945	945						
170	"	713	전	1,323	1,323						
171	"	713-1	전	1,219	1,219						
172	"	714-2	대	407	407						
173	"	716-1	전	2,413	2,413						
174	"	717	전	2,132	2,132						
175	"	718	묘	2,717	2,717						
176	"	719	묘	169	169						
177	"	720	전	853	853						
178	"	720-1	전	125	125						
179	"	720-2	전	1,323	1,323						
180	"	721	묘	1,669	1,669						
181	"	722	전	370	370						
182	"	723-2	전	1,646	1,646						
183	"	724-1	전	1,762	1,762						
184	"	724-2	묘	89	89						
185	"	724-3	전	454	454						
186	"	724-4	묘	50	50						
187	"	724-5	묘	63	63						
188	"	724-6	전	1,438	1,438						
189	"	724-7	전	22	22						
190	"	725-1	묘	3,134	3,134						
191	"	726	묘	377	377						
192	"	727-1	임	957	957						
193	"	727-6	임	177	177						
194	"	727-10	임	13	13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5	"	729	전	324	324						
196	"	1156-14	구	286	286						
197	"	1166-3	도	4,071	661						
합계		197필지 195,021m ²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97필지, 195,021m²로 구역 지정함(지자체 의견 수용)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蹟)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9.7.16(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蹟)을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문화재 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지역명+문화재명인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蹟)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가야리 유적이 위치한 가야읍은 함안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동은 산인면, 서는 군북면, 남은 함안면, 북은 범수면과 접해 있다.
- 남해고속도로와 경전선철도, 지방도 등이 읍 중심부를 경유하는 등 예로부터 교통이 요충지이면서, 농경지가 넓고 비옥하며 수원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 한편, 가야리는 가야읍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가야리의 지형분포양상은 저구릉지/구릉지가 3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선상지/곡간지가 34.2%, 내륙평탄 16.9%, 산악지 14.3%로 이루어져 있다.
- 가야리 유적은 사내리에서 이어지는 삼봉산(三峰山, 302m)자락의 저산성 구릉지에 위치하며, 구릉의 북편으로는 선왕동과의 사이에 곡간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동쪽은 들안들과 이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가야읍이 보인다. 가야리 유적의 동남쪽으로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여 함안천으로 흘러 남강으로 유입된다.
- 가야리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주변 평지에 비해 훨씬 높은 독립구릉으로, 구릉의 형상은 만곡하는 형태여서 취락지에 적합한 지형이다. 가야리 일대가 전체적으로 고분군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가야리 구릉과 신음 마을의 구릉에는 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거생활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가야리 구릉의 북쪽 외곽 사면은 자연 상태의 구릉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급하며, 인위적으로 자연경사면을 절토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가야리 유적의 동남쪽으로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여 함안천으로 흘러 남강으로 유입된다.
- 구릉 정상부에서 보면 아라가야 중심권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관망에 유리하며, 남동쪽이 트이고 삼면이 둘러싸인 오목한 지형으로 중심취락이 입지하기 매우 유

리한 지형이다.

- 가야리 유적은 조선시대 읍지 『咸州誌』에서 처음 소개된 곳이다.
- 가야리 유적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는 덕전고분군, 필동고분군, 선왕고분군, 남문외고분군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말이산고분군이 분포한다.
- 함안군의 중앙에 위치한 가야리 유적은 사내리에서 이어지는 삼봉산(三峰山)자락의 저산성 구릉지로 주변 평지에 비해 높은 독립구릉에 위치함. 남동쪽으로 신음천이 흐르고 남동쪽이 트여 삼면이 둘러싸인 오목한 지형이며, 구릉 정상부에서 보면 아라가야 중심권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아라가야의 중심공간이 입지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형이다.
- 가야리 유적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으로는 덕전고분군, 필동고분군, 선왕고분군, 남문외고분군이 위치함. 남쪽으로는 말이산 구릉상에 수십 기의 대형고분군이 분포하고, 북쪽경계는 봉산산성이 분포하여 가야리 일대가 아라가야의 핵심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가야리 유적(傳아라가야왕궁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17년 일제강점기 함안의 고적을 조사한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가야리 266번지 일대에서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를 발견하고 작은 가야동을 왕궁지 후보로 파악한데서 비롯된다(今西龍 1920). 이후 역사적 기록과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흔적, 지명 등을 통해 왕궁지 위치 비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생겨났고, 2000년대 후반에 비로소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시대 주거지 2동, 굴림주 건물지 1동, 고상건물지 2동, 수혈건물지 12동, 제방 2기, 수혈 5기, 주혈군 6기, 주혈열 1기, 구상유구 8기, 석열군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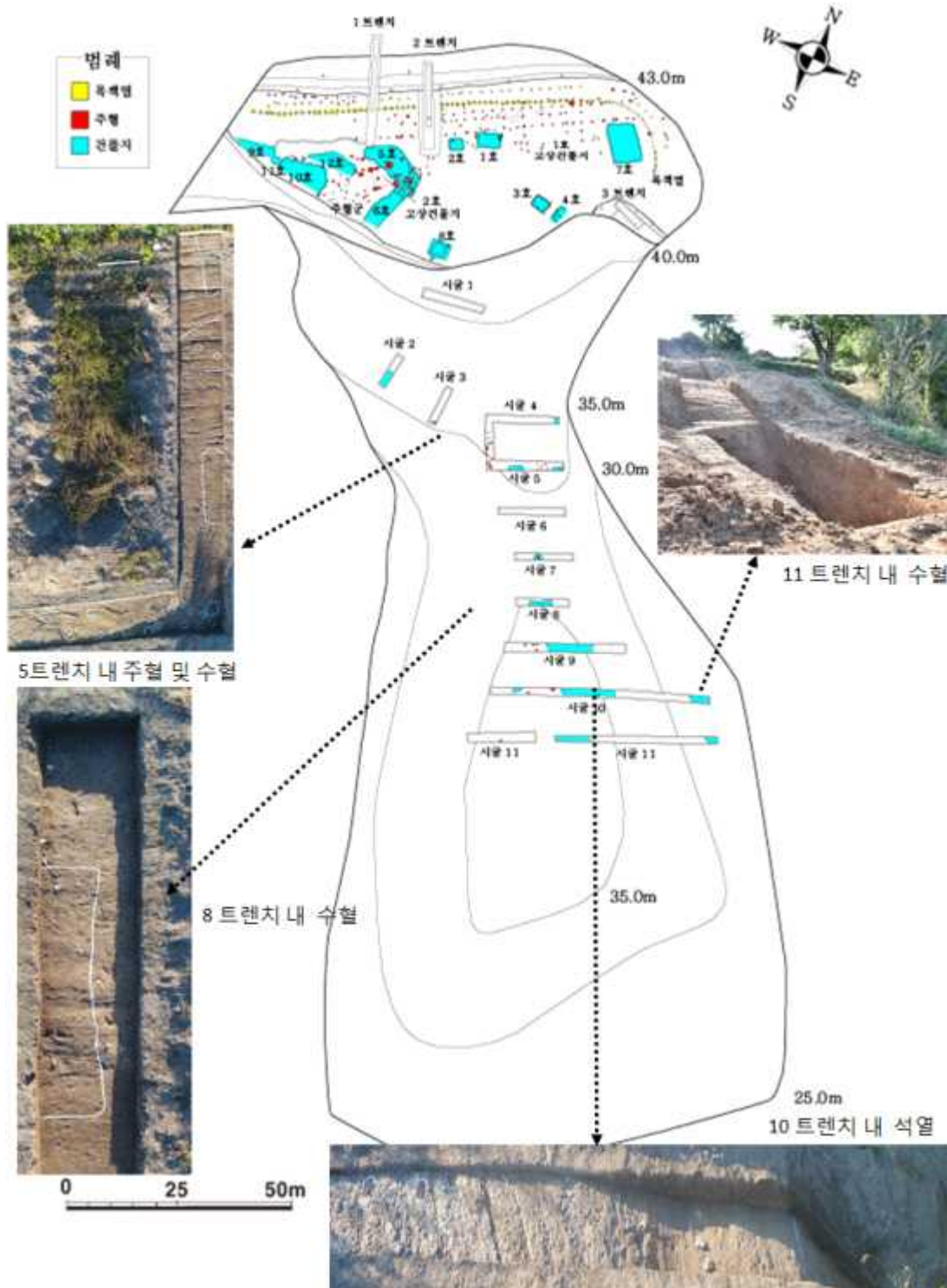
표 1. 가야리 유적 지표조사 현황

연번	조사 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1	1917	○ 추정초석 확인. 작은가야동 왕궁지로 파악 - 함안 고적조사 이마니시류(今西龍)가 가야리 266번지 일대에서 초석 추정 석재 발견 - 작은 가야동을 왕궁지 후보로 파악	『(大正 6年) 朝鮮古跡調査報告』	조선총독부
2	1995	○ 지형 및 토성벽으로 원가야동 왕궁지로 파악 - 원가야동 일대의 지형, 성벽의 토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야리 토성, 즉 왕궁지로 추정	『阿羅伽耶文化圈 遺蹟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창원문화재 연구소·창원 대학교박물관
3	2000	○ 가야동 266번지 일대 유력한 왕궁지로 추정 - 왕궁지로 추정되는 토축 흔적 - 가야시대로 전하는 우물, 초석 잔존 - 가야동 주변에서 왕궁지와 관련 다수의 지명	『문화유적분포지도 -함안군』	아라가야 향토사연구회

4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생활유적과 고분분포 가능성 제기 - 아라가야 왕궁지 일대와 주변 구릉에 대한 지표조사결과 관련 유구, 유물은 확인하지 못함 - 삼한시대~삼국시대 유물 다량 채집 - 대규모 생활유적과 고분 분포 가능성 높음 	『문화유적분포지도-함안군』	창원대학교 박물관
5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 토루 확인, 대규모 가야 생활유적 추정 - 傳아라가야왕궁지 조사지역을 A~E구간으로 나누고 정밀지표조사 실시 - C,D구간은 대규모 가야 생활유적 추정 - C구간 상부에서 토루로 추정되는 부분 확인 	『함안 남문외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표 2. 가야리 유적 발굴조사 현황

연번	조사년도	조사내용	보고서명	조사기관
1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제방 조사 - 아라가야 왕궁지를 둘러싼 추정 토성의 존재 유무와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 홍수범람으로부터 가야리 일대 곡간부를 보호하기 위한 차수용(遮水用) 제방 1기 확인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제방과 연결선상의 제방 조사 - 신음천의 흐름을 고려하여 제방 축조 	『함안 가야리 제방유적2』	우리문화재연구원
3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수혈 3기 조사 - 삼국시대 수혈 3기와 토기편 출토 - 조사지역 주변에 토기 가마의 존재 추정 	『함안 가야리 유적-256-1번지 단독주택 신축공사내 유적-』	해동문화재연구원
4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시대 주혈군 조사 - 열상분포하는 주혈 6기 조사. 직경 50~64, 깊이 10~24cm, 목주 간격 120cm 정도 - 열상으로 분포하는 주혈은 굴립주건물지나 왕궁지 외곽의 목책시설 일부일 가능성 있음 	『함안 가야읍 가야리 190-9번지 근린주택조성부지 내 문화재 시굴조사 약보고서』	우리문화재연구원
5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등 생활유구 확인 - 주거지 2동, 굴립주 건물지 1동, 주혈열 1기, 구상유구 8기 조사 - 삼국시대 적갈색 연질토기, 기대편 출토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6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야시기 토성벽, 목주열, 수혈건물지 확인 - 시굴조사: 토성벽, 목주열, 수혈건물지 확인 - 발굴조사: 해발 8m 높이의 토성벽, 목주열, 고상건물지 2동, 수혈건물지 12동, 주혈군, 수혈, 석열군 조사 	『2018년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및 시굴조사 유구확인 현황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가야리 유적의 보편적 가치

- 가야리 유적은 입지, 토성의 축성기법, 대형건물지, 군사방어시설 기능을 한 수혈 건물지, 주변 대형고분군의 분포현황과 농경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제방시설 등으로 볼 때, 가야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일반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또한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가야리 유적만의 독특성을 갖추고 있어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가야리 유적의 입지는 주변 평지에 비해 훨씬 높은 독립구릉으로, 구릉의 형상은 만곡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취락지에 적합한 지형이다. 가야리 일대가 전체적으로 고분군이 밀집·분포하는 지역이지만, 가야리 구릉과 신읍 마을의 구릉에는 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릉 정상부에서 보면 아라가야 중심권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관망에 유리하며, 남동쪽이 트이고 삼면이 둘러싸인 오목한 지형으로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이 입지하기 매우 유리한 지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동쪽으로 남문외고분군과 말이산고분군과 같은 대형고분군들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이다. 구릉 정상부까지 각 면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인접 야산과 비교해 볼 때 인위적으로 단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가야리 유적 남쪽으로는 자연해자의 역할을 하는 신읍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고지대에 외곽 방어시설인 봉산산성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대형고분군들이 둘러싸여 있는 복합적인 경관구조이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가야지역 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의 중심유적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 가야리 토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의 핵심공간에 조성된 추정 성곽 중 규모 및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당시 가야 성곽의 실체 및 축성법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이다. 가야리 토성은 지형을 이용하여 능선 정상부 사면에 내탁법을 채택하여 축성하였는데, 성벽 축조과정에서 구릉 정상부에 덧대어 평탄대지를 넓혀 토성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기본적으로 성토기법을 이용하여 쌓아올린 것으로 성토된 토성벽의 현재 규모는 높이 8.5m, 폭은 20m 정도이다. 또한 성벽 상면에는 2열의 목주열이 성벽의 북쪽 외곽을 따라 100m 정도 확인되는데, 이처럼 성토과정에서 목주를 사용한 예는 김해 봉황토성과 합천 성산토성 등에서도 확인되며, 가야토성 토목건축의 핵심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토성벽과 인접해서 확인된 대형건물지는 합천의 성산토성과 공주의 정지산유적에서는 대벽건물지의 형태로 확인되는데, 특수시설 혹은 관용시설 등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로 가야리 유적이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 가야리 유적은 발굴조사에서 실체가 확인된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서 가야의 중심유적으로 논의되는 김해 봉황대유적, 합천 성산토성, 고령 대가야

왕궁지와 비교검토를 통해 가야 최고지배층의 핵심공간에 대한 입지와 토성 축조 기법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다. 특히, 김해 봉황대 유적과 고령 대가야왕궁지는 성곽의 실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데에 반해, 가야리 유적은 유적의 입지, 토성의 축조공법, 대형고분군의 분포, 대규모 토목공사가 요구되는 제방과 농경지의 확보라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당시 아라가야의 최고지배층의 핵심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아라가야 중심권역의 공간구조와 공간활용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아라가야 핵심지역의 도시경관 복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야리 유적의 독특성

- 함안 가야리 유적은 아라가야 지배층 무덤인 남문외고분군과 말이산고분군, 봉산산성, 가야리제방유적 등과 함께 아라가야의 당시 경관 및 사회상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지금까지 고분군 위주의 가야사연구로 가야인의 죽음과 내세관, 정치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었으나, 가야인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였다.
- 가야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토성벽, 목주열, 고상건물지, 수혈건물지 등은 아라가야 전성기인 5세기 중반~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유구이다. 이 시기는 아라가야 세력이 대형의 고층고분군을 조성하고, 대외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시기로 토성의 축조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정치권력이 존재하였고, 가야리 유적은 바로 이러한 권력을 소유하였던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아라가야 중심공간 내 토성의 존재는 단순한 토목건축물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고대국가로서 위용을 떨쳤던 가야의 위상을 시각적으로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가야리 유적은 입지 및 주변유적 분포현황, 토성벽, 내부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他 가야 주요유적과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문헌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 바로 그 실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적과 연결된 가야리제방은 하천 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수용 제방 혹은 內地와 外地를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 제방의 축조를 통해 토지이용 조건이 개선될 평탄지를 개발하려는 의도 등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가야리 유적 주변의 지형여건을 극복하고 농경지를 확보,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하는 대토목공사(제방축조)라는 점에서도 가야리 유적 즉 아라가야 중심취락 인근 지역을 개발 및 정비하는 정황들을 그려볼 수 있다. 또한 가야리 유적의 수혈건물지 내부에서 화살촉, 철부, 찰갑 등의 철제무구류와 무기류 등이 출토되는 양상은 성곽 내부의 건물지가 일반 거주 기능의 기능이 아닌 군사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토성 내부에 방어를 위한 시설물과 인력의 집중 배치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철제무기로 무장한 군

사집단이 상주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즉, 상비군 체제를 갖춘 정치권력의 존재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아라가야 정치체의 지배체제를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된다.

- 가야리 유적은 삼국시대 가야를 형성하는 가야 각국 중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 핵심유적으로서 가야사를 복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자료이다. 가야리 유적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최고지배층의 중심공간에서 확인된 토성유적 중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여 당시 가야인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아라가야 중심공간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유적이다. 더불어 가야리 유적은 아라가야의 국가적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가야 각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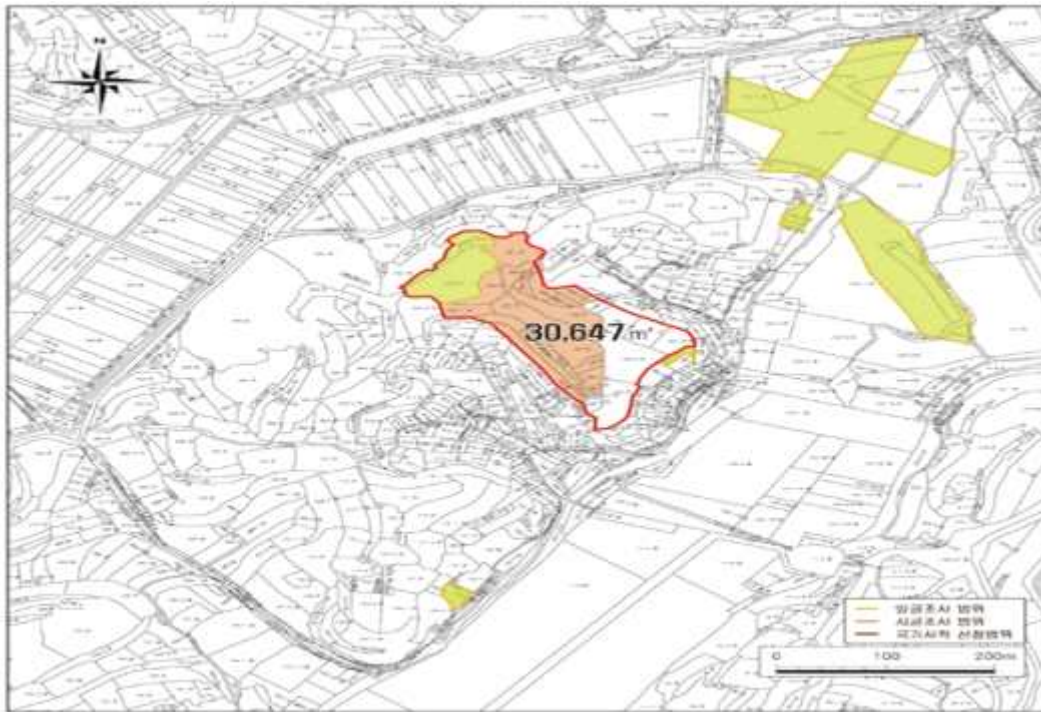
지정면적: 32필지 /30,647㎡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							
(면적: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함안군 가야읍 가야리	159	전	2,003	2,003		
2	"	182	전	1,412	1,412		
3	"	183	임야	119	119		
4	"	184	전	1,412	1,412		
5	"	185	전	76	76		
6	"	186	전	655	655		
7	"	187	묘지	1,488	1,488		
8	"	188	전	417	417		
9	"	189-1	대	502	502		
10	"	189-2	대	86	86		
11	"	189-3	대	182	182		
12	"	189-4	대	36	36		
13	"	189-5	대	311	311		
14	"	190-1	전	1,137	1,137		
15	"	190-4	대	311	311		
16	"	190-7	전	1,055	1,055		
17	"	190-8	전	2,817	2,817		
18	"	190-18	전	1,025	1,025		
19	함안군 가야읍	283-1	대	579	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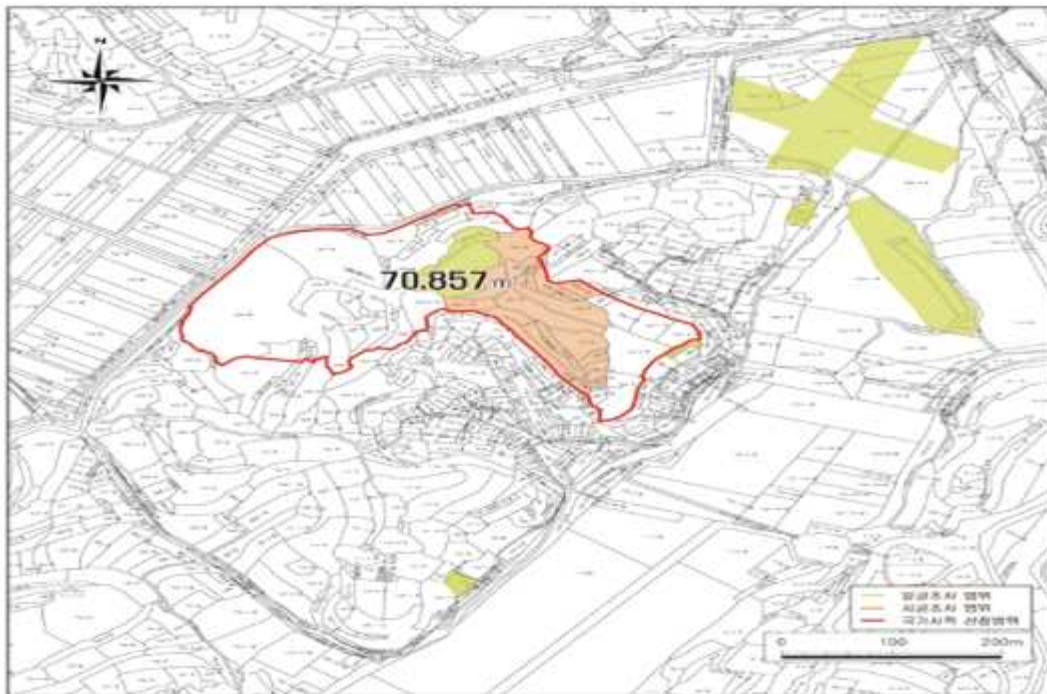
	가야리						
20	"	283-2	대	595	595		
21	"	283-3	전	340	340		
22	"	284	전	165	165		
23	"	284-1	전	331	331		
24	"	285	전	655	655		
25	"	286	전	1,937	1,937		
26	"	287	전	2,261	2,261		
27	"	288	전	1,183	1,183		
28	"	289	전	3,907	3,907		
29	"	291	묘지	1,779	1,779		
30	"	292	전	1,243	1,243		
31	"	292-1	전	122	122		
32	"	555-1	전	850	850		

- 지자체 신청안은 위와 같으나, 유적의 전체적인 범위 확인 및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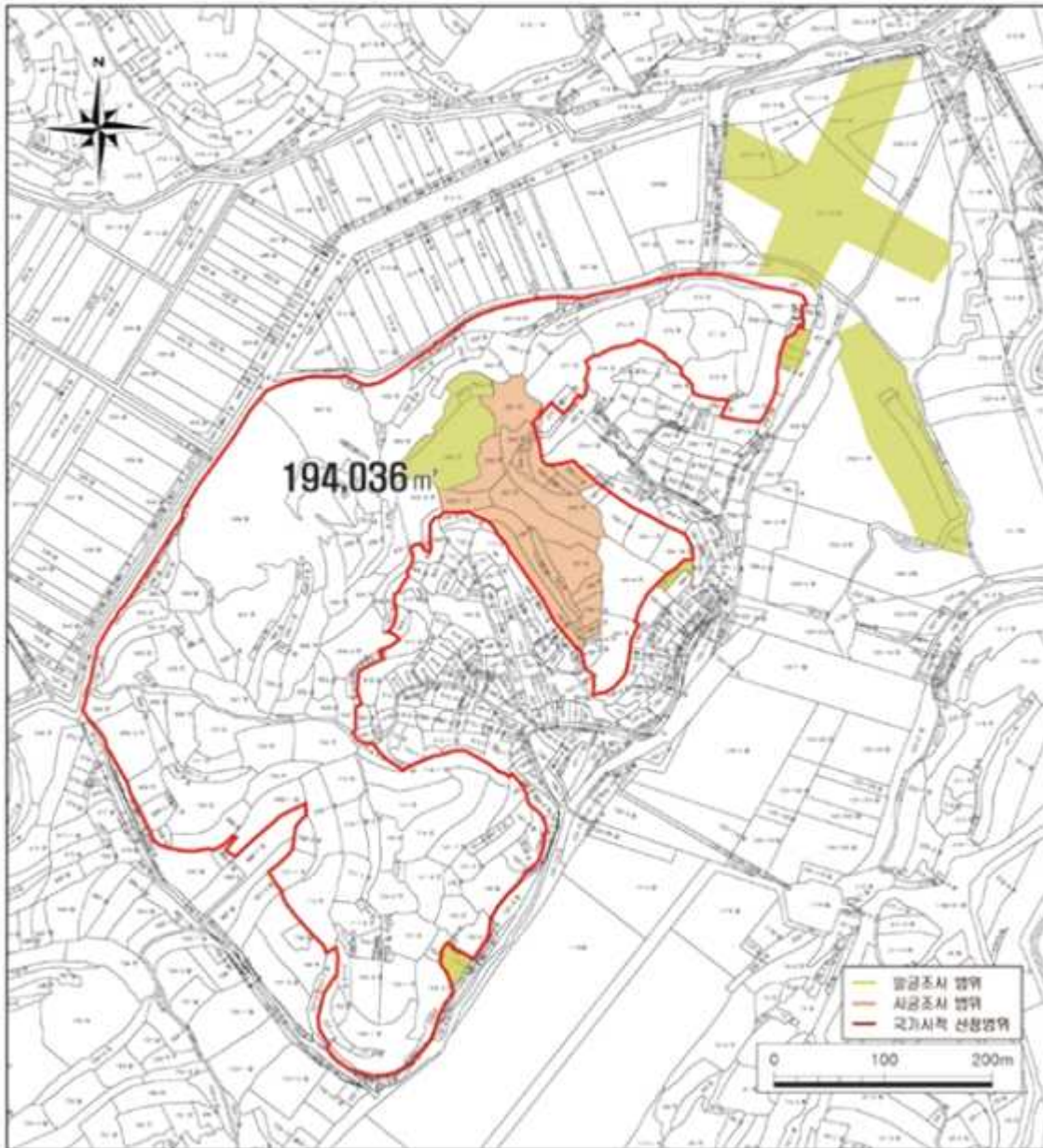
[제1안 가야리 289 일원 발굴조사 지역(30,647㎡)/지자체 신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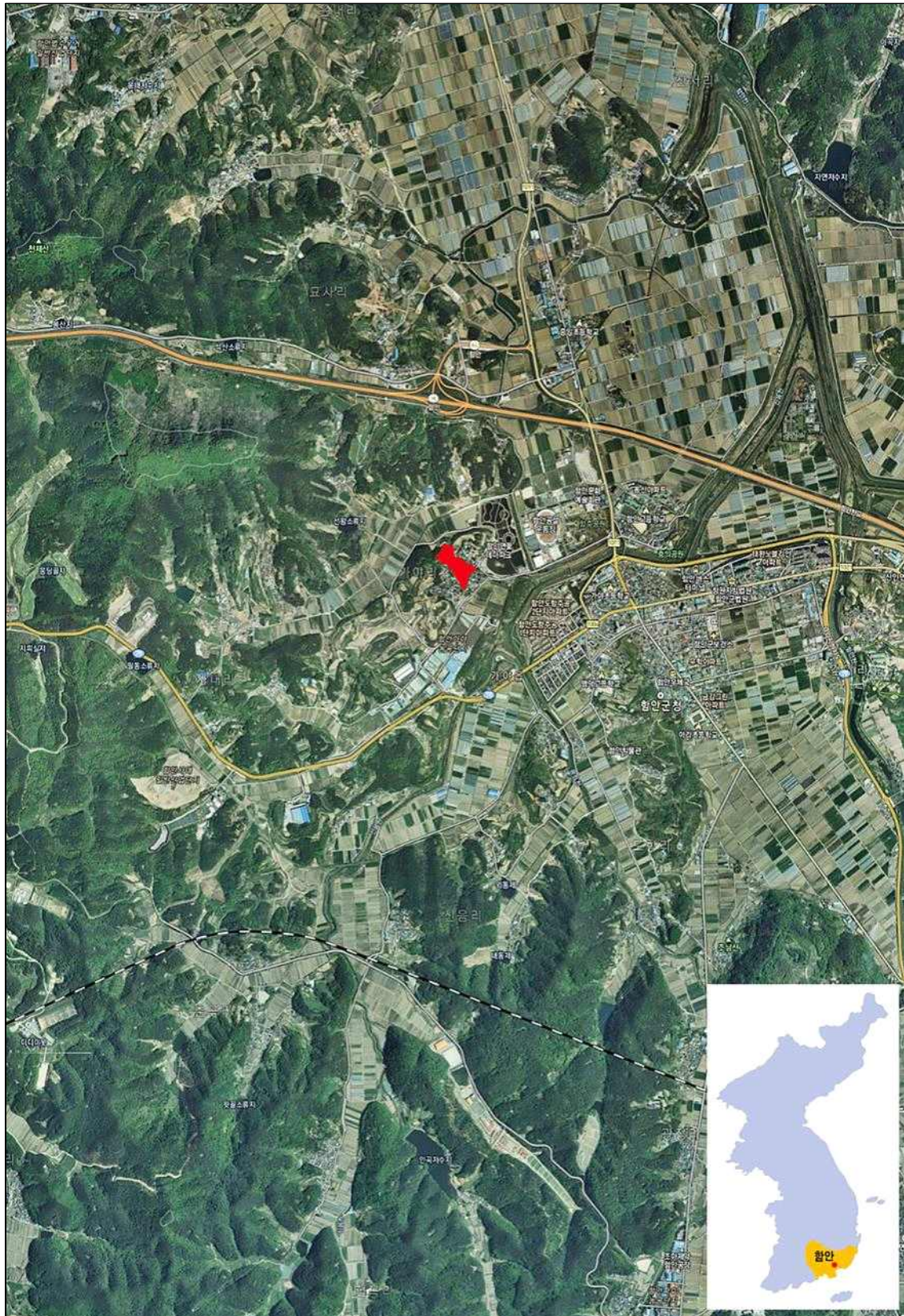


[제2안 가야리 289 일원과 토루 추정지 포함(70,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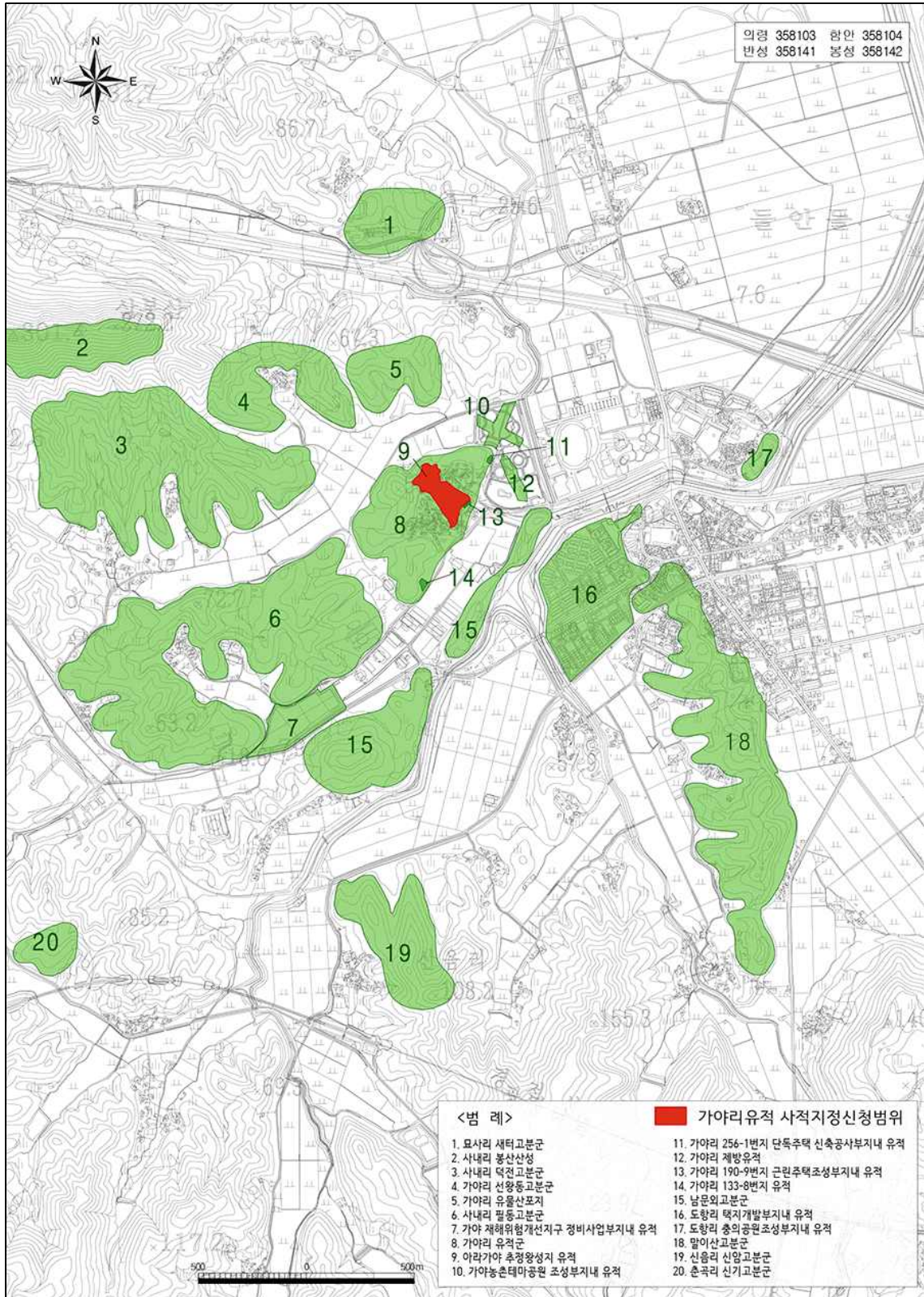


[제3안 마을을 제외한 구릉 전체 범위(194,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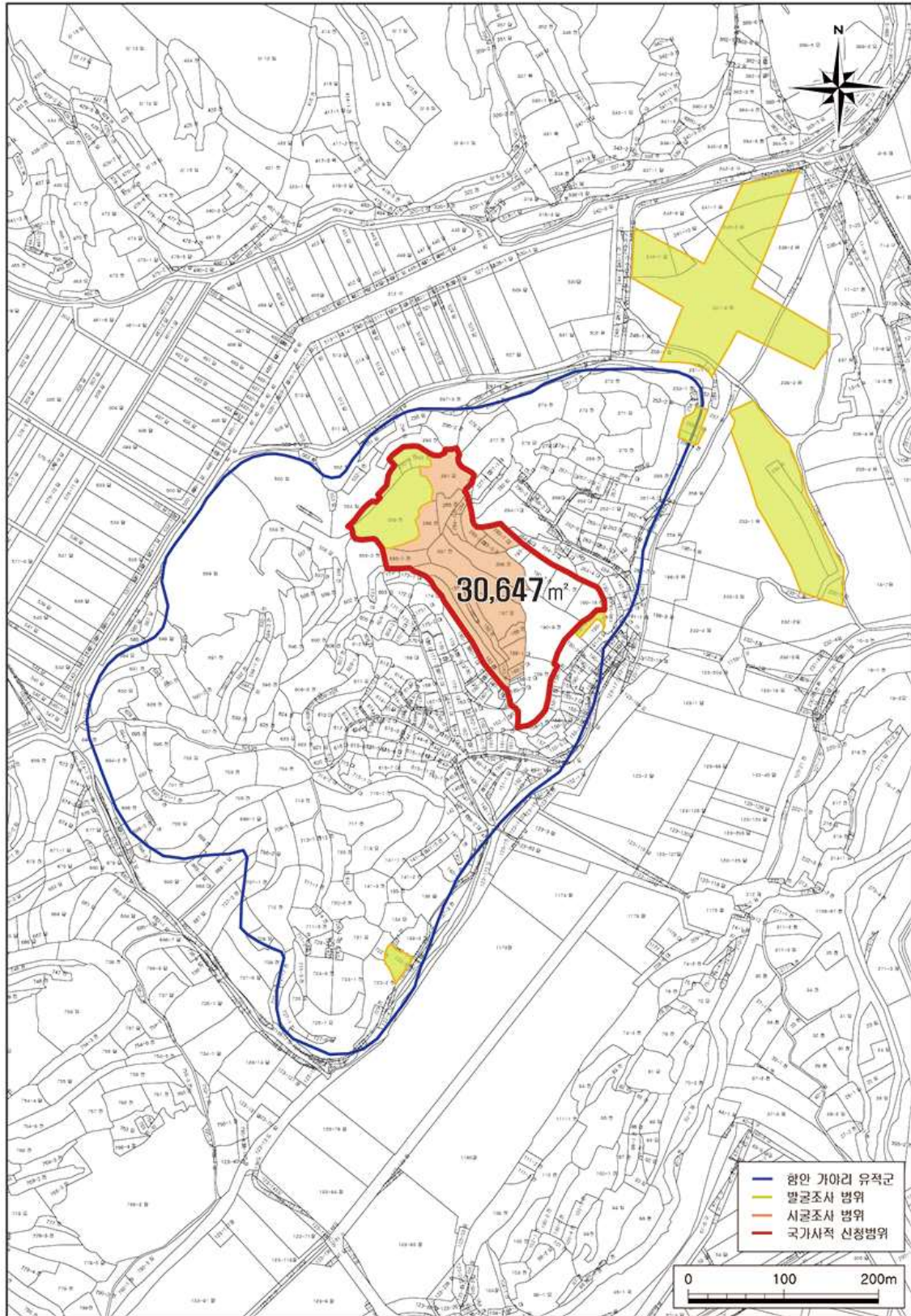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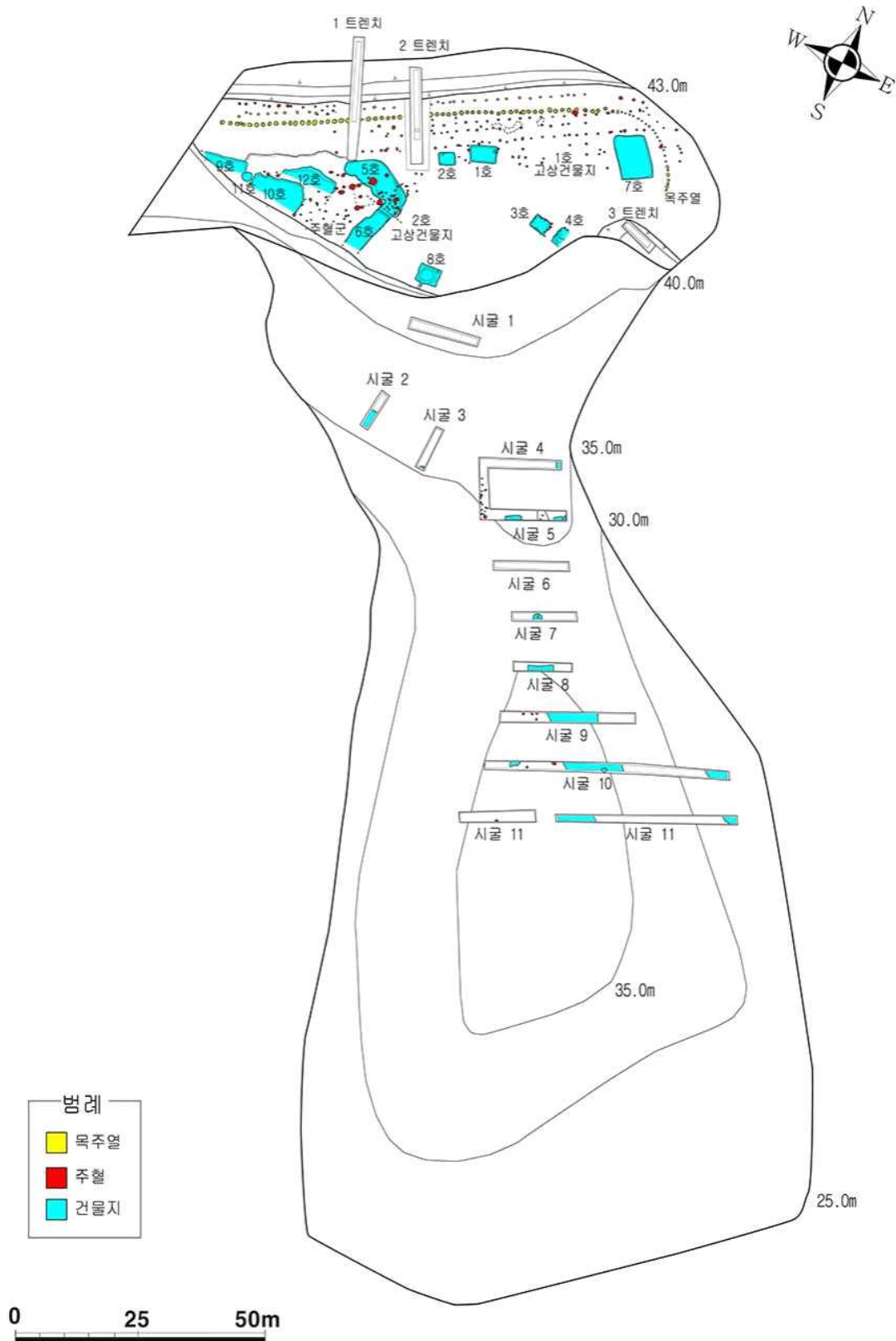
가야리 유적의 위치-위성지도(Daum지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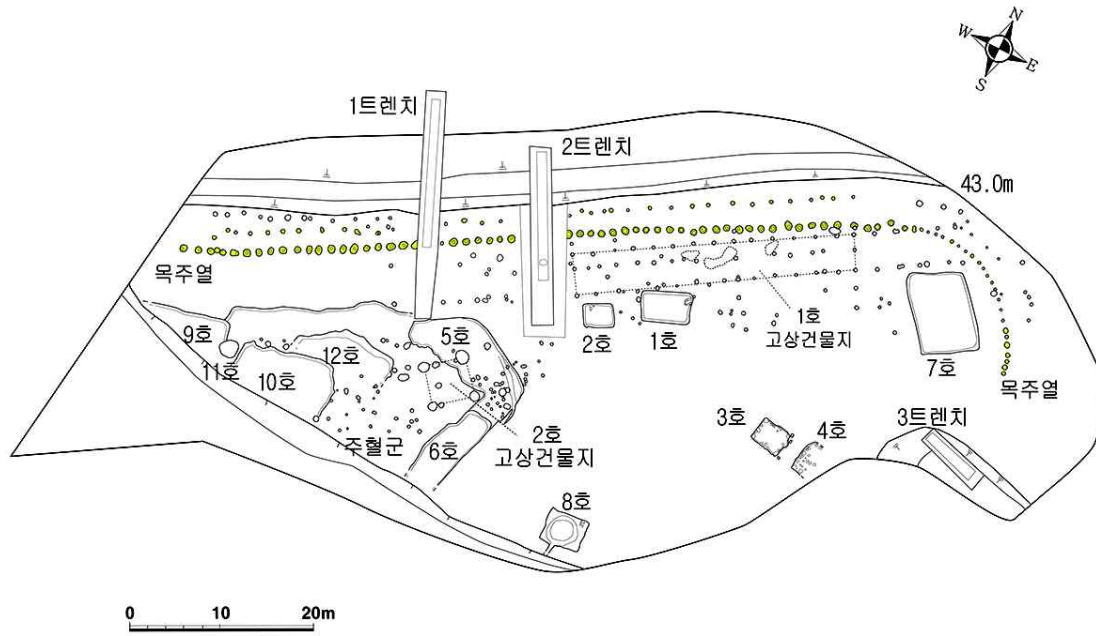
가야리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가야리 유적 사적지정 신청 범위-지적도(1/6,000)



가야리 유적 시굴 및 발굴조사 전체배치도



가야리 유적 발굴조사 유구배치도

2018년 함안 가야리 유적 발굴조사



유적 항공사진(1954년) 출처: 정보지리원



유적 항공사진(2018년)



전체유구배치도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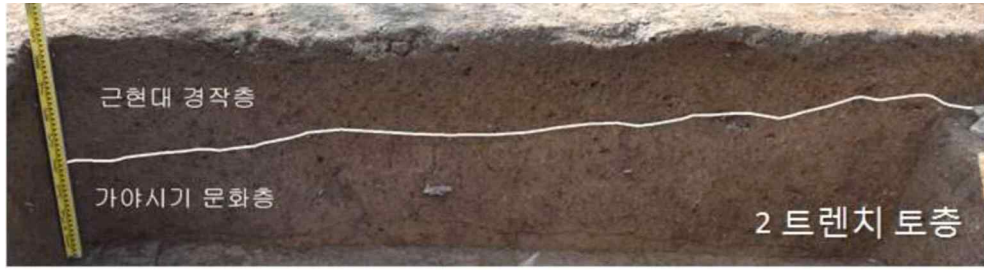
시굴5트렌치 내 주혈 및 수혈



시굴8트렌치 내 수혈



시굴11트렌치 내 수혈



시굴조사 기본토층 세부



발굴조사 전체 전경



발굴1트렌치 상단 성토층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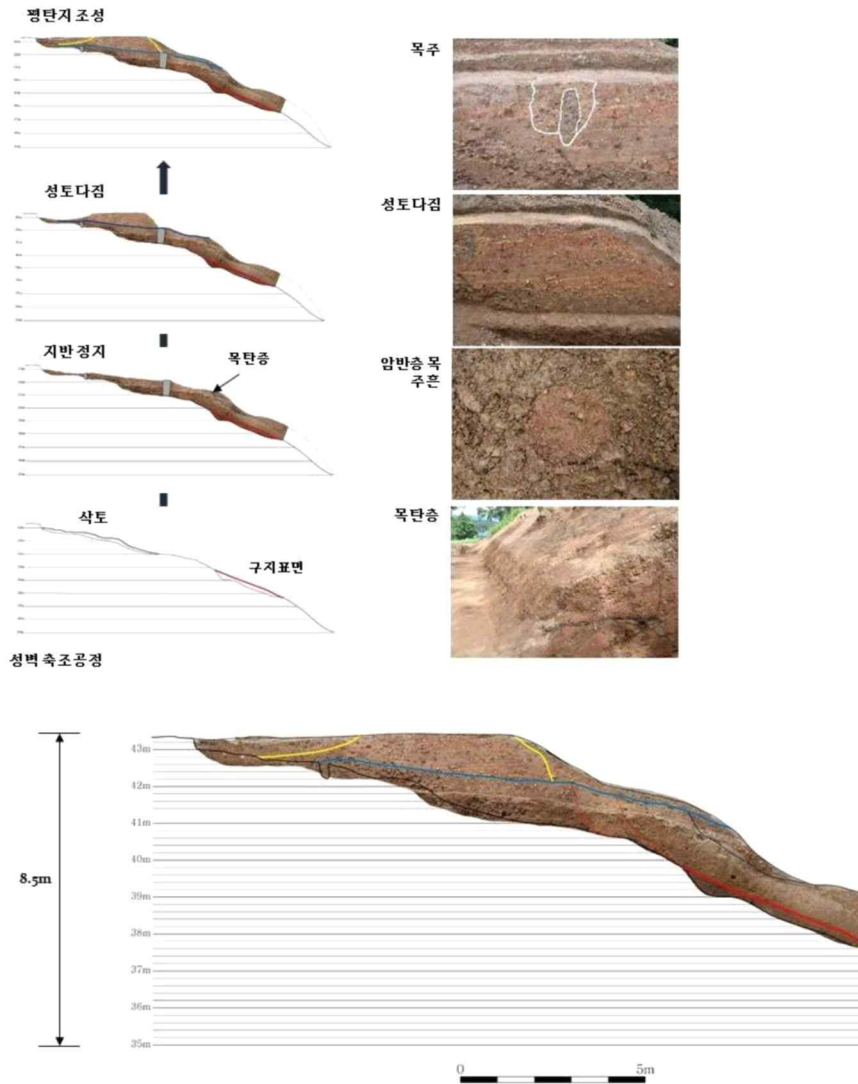
발굴2트렌치 연결 절토된 성벽 단애면 목탄층



발굴1~2트렌치 사이 목탄층 평면 세부



발굴2트렌치 상단 성토층과 외벽 보강토



가야리 유적 토성축조 과정 (1트렌치 토층 모식도)



목주열 전경 및 토층 세부



1호 고상건물지 전경



1호 수혈건물지 조사완료 전경 및 출토유물 세부



2호 수혈건물지 조사완료 전경 및 출토유물 세부



3호 수혈건물지 조사완료 전경 및 주혈군 세부



7호 수혈건물지 평면 및 토층, 출토유물 세부



8호 수혈건물지 평면 및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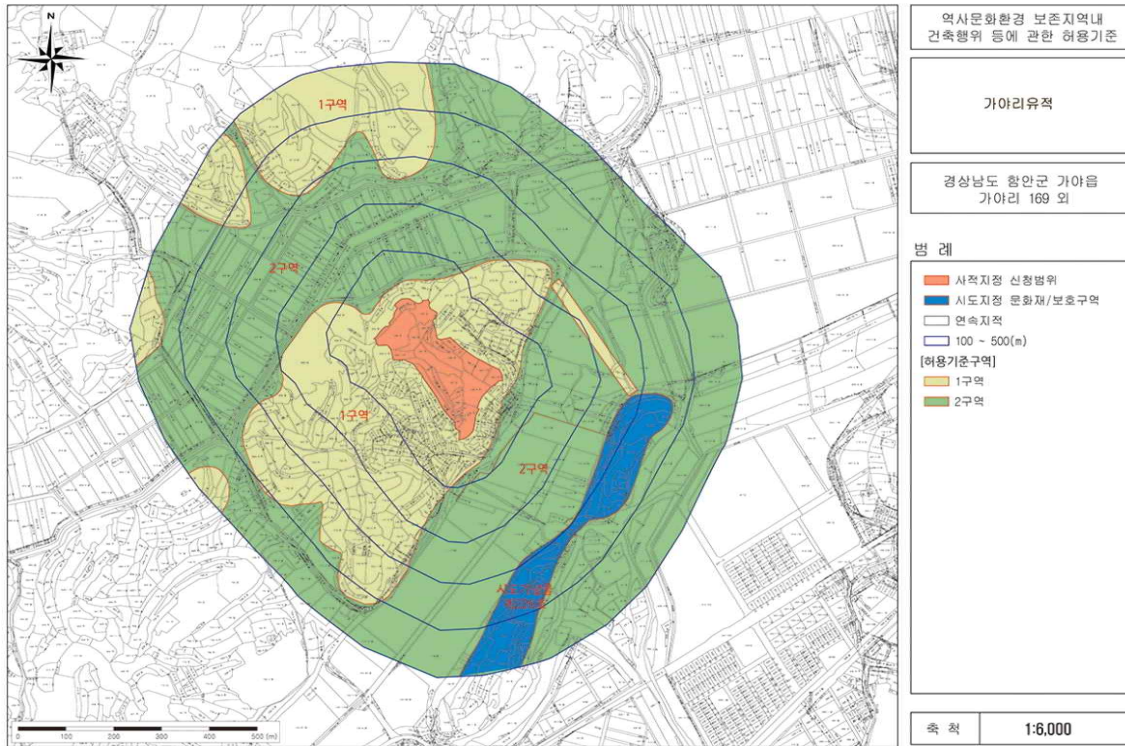
10호 수혈건물지 평면 및 부뚜막, 토층



가야리 유적 중요 출토유물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주변개발에 있어서 매장문화재의 조사 항목이 필요하며, 조정되는 사적 지정구역 범위에 따른 행위기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함안 가야리 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할 것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문화재 보존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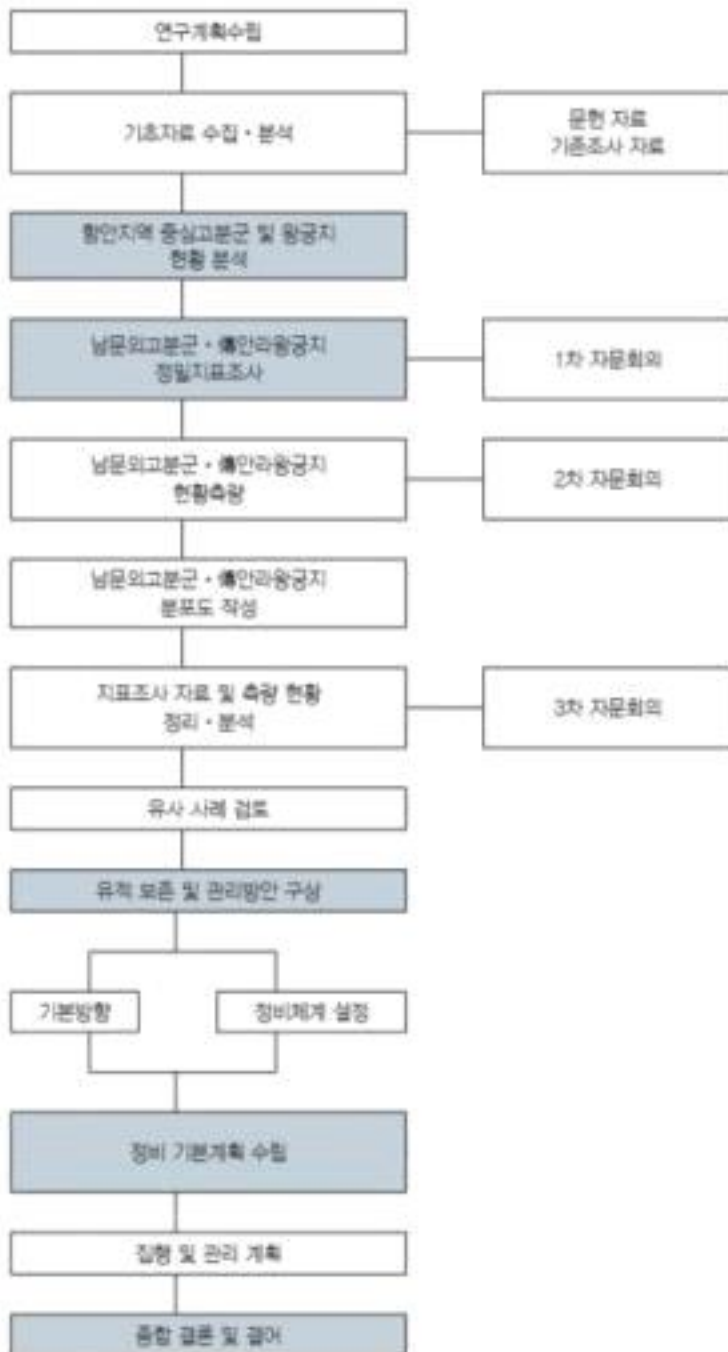
1) 가야리 유적 정비·보존 계획 수립

- 가야리 유적은 2013년에 傳안라왕궁지의 복원 및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라가야유적지 정밀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7월에 『함안 남문외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함안군이 발주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수행한 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가야리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용역의 목

적은 남문외고분군과 가야리 유적은 그 중요성이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토대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유적 전체에 대한 정밀 측량을 통해 유적의 범위를 파악하고 유적의 정비계획과 관리 계획,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세부 연구내용은 기초조사-현장조사-기본방향 수립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의 기본방향은 가야리 유적의 역사문화자원을 정비하고 전통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가야리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계획,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위상 확보이다.

<과업 추진 내용>



- 2013년 4월과 5월에 개최된 학술자문회의에서는 고문헌 자료 및 일제강점기 이후의 지표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번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추정왕궁지 북서쪽 토루추정지에 대해 보고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자문회의에서는 가야리 유적의 입지 및 현황에 대한 검토와 가야리 유적에 대한 문화재 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또한 구릉상에 삼국시대 토기편이 다수 산재하는 것으로 볼 때 가야시기의 생활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3년 5월에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는 남문외고분군과 함께 유적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토지매입, 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적의 성격규명을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학술자문 회의(2013.4.3.)



학술자문 회의(2013.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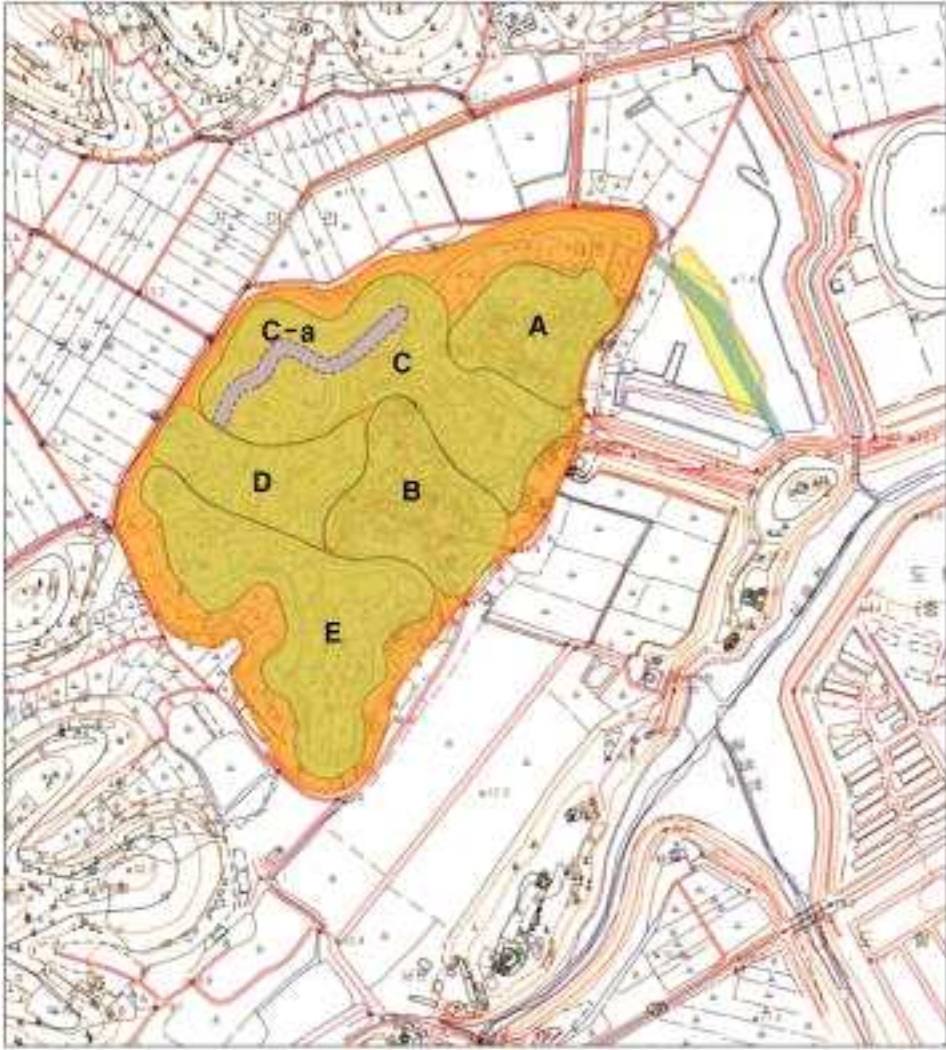
학술자문회의(2013.5.13)



최종보고회(2013.5.21)

2) 유적 측량 조사

- 가야리 유적의 측량 조사는 전술한 2013년 아라가야유적지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가야리 유적 전체 범위에 대한 측량 및 추정토루 부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기존 조사에서 언급되었던 傳안라왕궁지(큰가야동, 작은가야동) 뿐만 아니라 가야동 북서쪽의 구릉 전체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지형적 특성에 따라 구릉 및 곡간부 전체를 A~E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야리 유적 2013년도 정밀지표조사 범위 및 추정토루 위치도

3) 학술심포지엄 개최

- 가야리 유적은 2013년에 傳안라왕궁지의 복원 및 정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라가야유적지 정밀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7월에 『함안 남문외고분군·傳안라왕궁지 정밀지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함안군이 발주하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가 수행한 이 학술용역을 통해서 가야리 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및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 이후 2018년 12월에 함안의 가야리 유적과 안곡산성 등 가야성곽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아라가야의 공간 구성 및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학술심포지엄에는 함안군민, 함안군 관계공무원, 관련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조사 성과를 비롯하여 안야국의 성장과 국읍, 아라가야 고분군 분포로 본 공간활용과 그 의미, 아라가야의 토기생산과 유통, 아라가야의 공간 구조, 중국 고대의 도성과 그 구조, 일본의 율령국가 형성기의 도성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아라가야의 역사적 실체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19년 4월 30일에는 문헌 및 성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함안 가야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학술심포지엄에는 함안군민, 함안군 및 지자체 관계공무원, 관련연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5~6세기 아라가야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함안 아라가야 왕성지 발굴조사 성과, 가야리 토성의 축성법과 의의, 가야리 유적 토성의 토목사적 의의, 백제의 토성과 함안 가야리 유적 토성의 비교, 신라왕성과 가야왕성의 비교, 가야리 유적의 보존관리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가야리 유적의 중요성은 물론 보존 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가야리 유적은 입지 및 주변유적 분포현황, 토성, 목주열, 고상건물지, 수혈건물지 내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일반적인 생활유적과는 다른 ‘아라가야의 핵심유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가야리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아라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지역민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술심포지엄 모습(2018.12.7~8.)



학술심포지엄 모습(2019.4.30.)

4) 발굴조사와 학술자문회의·현장공개회 개최

- 함안 가야리 유적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가야리 유적의 동쪽편에 위치한 연꽃 생태공원 조성부지에서 확인된 제방유적에 대해 2008년도와 2011년도에 실시되었다. 이후 2013년도와 2014년도, 2017년도에 주택 및 공장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17년도 함안군 가야리 133-8번지 공장신축부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주혈열,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

어 큰 가야동 서쪽편 구릉 사면부에 삼국시대 취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 가야리 유적 중심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2018년도 5월에 함안군 가야리 289, 292번지 일원의 경작지 조성과정에서 유구가 노출되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가야리 289, 292번지 2필지(약1,300 m²)에 대한 시굴조사에서 가야시기의 토성벽과 목주열 등이 확인되어, 유구의 성격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2018. 5. 30)를 통해 토성벽과 목책열의 규모, 출토된 유물은 5세기 중후반 6세기 전반의 토기가 출토되어 아라가야 최전성기 거주공간임을 확인하였고 유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토성 내부조사 및 목책의 방향에 대한 확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 자문위원으로는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박물관), ○○○(문화재청) 선생님 등 아라가야 문헌사 및 가야고고학, 성곽분야에 정통한 분들이 참석하여 조사된 유구의 성격 및 향후 조사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8년 9월 3일부터 유구가 확인된 범위를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 및 유적의 범위와 관련유구 분포확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결과 구릉 사면에서 구릉평탄지에 이르는 구간은 토성벽으로 그 내부에는 토성과 관련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토성벽과 그 상부에 2열의 목주열이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가야시기 고상건물지 2동, 수혈건물지 12동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수혈건물지 내부에서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토기편과 철제 무기류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상의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성격과 앞으로의 조사의 방향을 위한 2차 학술 자문회의(2018. 12. 6)를 개최하였다
- 자문회의를 통해 토성의 구조는 능선 정상부 사면에 내탁법을 채택하여 편축하고 성벽 안쪽을 평탄화한 방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백제의 풍납토성이나 신라의 월성 등의 축조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이다. 토성의 조사는 체성벽 내외부로 단면조사 범위를 넓혀서 기저부에서부터 내부 평탄면으로 이어지는 축조 경계를 밝혀주어야 토성의 전모와 축조기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성 내부의 생활유구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가야의 고상건물지, 벽체를 갖춘 반수혈 건물지 및 연도를 갖춘 대규모 취사시설 등을 확인한데 성과가 있으며 각 유구들은 동시기 것들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편이라는 유구의 성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라가야 존속시기 영속시설인 수혈건물지에서 출토된 것들로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전반대의 자료가 많아 보이며, 이 중에서 소가야, 대가야유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가야상호 교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향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드러난 최고지배층의 거주공간의

정밀발굴조사와 함께 전체 범위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별 정밀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적에 대한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적의 차후 관리와 조사를 위해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며 지정을 통해 토지매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학술자문회의 외에도 2차례의 현장설명회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 및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국내 언론과 방송사에도 가야리 유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주민들과 정진숙 문화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아라가야사에 관심을 높이며 대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후 현장은 공개설명회(2018.12.18.)후 동절기로 인해 발굴을 잠시 중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2019년 4월부터 재착수하여 조사를 진행중이다.



최초 유구 훼손된 상태

훼손유구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1차 학술 자문회의 전경

1차 현장공개회

1차 현장공개 기자설명회

1차 현장공개 주민설명회

1차 학술 자문회의 및 현장공개회 모습



2차 학술 자문회의 전경



2차 학술 자문회의 전경



2차 현장공개회 전경



2차 현장공개회



2차 현장공개 주민설명회 전경



현장공개 기자 취재 전경

2차 학술 자문회의 및 현장공개회 모습

5) 토지매입 현황

○ 토지매입방향

- 유적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유적 주변의 민가나 묘지, 공장 등 기타 건물의 입지 등은 유적의 경관을 훼손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이에 대해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함안군에서는 가야리 유적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사적지정 신청 구역에 대한 토지현황은 32필지 30,647㎡ 이다.
- 가야리 유적의 사적지정 신청구역의 토지는 모두 사유지로서 한꺼번에 전체적인 매입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을 구획하여 매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토지매입의 우선 순위는 가야리 유적 내 민가 조성 및 경작활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유적이 훼손되고 있는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야리 유적과 인접해 있으면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공장 신축, 민가 및 진입로 조성 등에 필요한 대상지를 다음으로 매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매입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가야리 유적 국가사적 지정 신청구역의 토지 현황>

구 분	지번(필지)	면적	비율(%)
총면적	32	30,647㎡(9,286평)	100
사유지	32	30,647㎡(9,286평)	100

나. 문화재 활용계획(안)

1) 현황 및 활용 기본방향

(1) 현황 및 여건

- 현재 가야리 유적은 가야읍 가야리 289, 29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가야리 독립 구릉(45m)상에 입지하고 있다. 유적은 완만한 구릉지역으로 일대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마을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이다. 유적 남쪽으로는 마을과 도로를 끼고 주변에 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유적과 인접하여 함안 연꽃 테마파크와 농어촌테마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유적으로의 광역 접근은 함안IC에서 지방도 1011번을 통해 인접하여 접근 가능하며, 이 길에서 왕궁길을 따라 서쪽으로 진입하면 유적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유적으로의 접근은 마을안으로 난 진입로를 따라 들어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길을 이용하거나, 연꽃테마파크에서 왕천사로 난 길(왕궁1길)을 따라 들어와 왕천사 뒤편에서 가능하다.
- 현재 유적에 대한 접근 안내나 유적 안내판 등 방문객 편의시설은 전무하며, 향후 추가조사와 병행하여 간단한 안내 설명문의 설치가 임시로 필요한 상황이다.
- 유적 일대는 가야 농공단지가 인접해 있어 유적 주변에 계속해서 공장시설이 들어서고 마을 주민들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유적 훼손과 잔존유구의 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주변의 마을과 인근 농공단지의 존재로 인해 경관관리 측면에서도 향후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2) 기본방향 및 전략

- 현재 가야리 유적의 경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현재 함안군에서 계획 중인 가야리 유적의 일부 구간에 대한 사적지정 신청범위 외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시·발굴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향후 유적 범위가 좀더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유적의 정비나 복원계획은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유동적으로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 가능하다.
- 먼저, 유적의 현상 유지이다. 현재 유적 전반에 걸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주민들에 의한 경작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어 가능한 현상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유적의 전체범위에 대해 시굴조사를 먼저 조속히 실시하여 유적의 전체 윤곽선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따라 발

굴조사 계획 수립과 함께 유적의 추가적인 훼손 위험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유적의 교육적 활용을 염두에 둔 보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적의 발굴조사 후 방문객에게 유적 현장을 체험하고 역사이해를 제고하는 현장체험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향후 여건이 성숙하면 유구 복원과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계획한다.
- 세 번째는 주변에 다수 분포하는 아라가야 유적과 연계한 자원화 강화이다. 현재 가야리 유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계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적의 조사와 기본 정비 후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체험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실천한다. 주변에 말이산고분군·남문의고분군 등 많은 관련 역사문화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호 연계하여 아라가야 역사체험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검토

(1) 김해 봉황동 유적

- 김해 봉황동 유적은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1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금관가야의 왕궁 및 도성 내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현재 사적 제2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봉황동유적과 회현리패총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봉황대 구릉은 남-북으로 뻗은 독립성 저구릉으로 서쪽은 해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북쪽에는 대성동고분군이 위치한다. 구릉은 전체적으로 서쪽과 남쪽의 경사가 급하고 동쪽과 북쪽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 김해 봉황동 유적은 일제강점시 이마니시(今西龍), 우메하라(梅原末治), 하마다(濱田耕作) 등에 의해 수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김해 회현리 조개더미’로 널리 알려졌다. 1991년 사적 지정 구역을 제외한 구릉 전체를 대상으로 시굴조사와 1992년 진입로 개설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구릉 정상부에는 환호와 주거지, 경사면에는 패총, 구릉 아래쪽 평지에는 환호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2~2004년 경남발전연구원, 2003년 경남고고학연구소, 2004년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하여 봉황동유적 주변에서는 2019년 현재까지 70여 차례의 시·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청동기시대~삼국시대의 주거지, 환호, 토성 등 생활유적과 야철지, 토기가마터 등 생산시설, 고상건물지, 항구의 접안시설 등 교역과 관련된 시설, 매장시설 등 다양한 유적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봉황토성의 조사는 이 지역을 금관가야 고도(古都)의 중심지로 추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이동식부뚜막, 소형토기 등 삼국시대 전후 시기의 다양한 토기와 세형동검, 동사(銅鈹) 등 청동제품, 중국 한나라 화폐인 화천(貨泉), 고선박 부재, 노(櫓), 토우, 붓, ‘論語’ 문구가 쓰여 있는 목간 등이 있다(민경선·김다빈 2018: 106-141).
- 김해시는 봉황동 316번지 일원에 대해 2007~2030년에 걸쳐 가야왕궁 복원(봉

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규모는 기존면적 113,849m²에서 118,151m²를 추가하여 면적 232,000m²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4월에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 및 2020년도 국비 신청, 2020년 부지매입·발굴조사·복원정비 설계, 2021년 부지매입·탐방로 조성, 2022년 이후에는 왕궁터 복원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가야왕궁 복원으로 가야문화의 역사적 가치 향유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유적의 실체 복원으로 관광자원화 및 상징적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김해시청 홈페이지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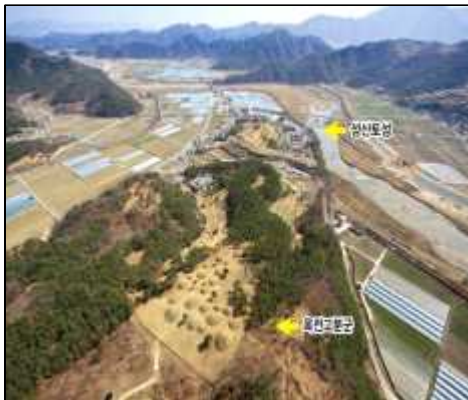
김해 봉황동유적 전경 안내도(上: 김해시청), 봉황토성 전경(右: 경남고고학연구소)

(2) 합천 성산토성

- 합천 성산토성(다라국성)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175-1 일원에 위치하는 토성으로, 북서쪽 옥전고분군(사적 제326호)이 입지한 구릉성 산지에서 이어지는 남쪽 끝자락, 황강 동쪽편의 독립구릉(해발 53m 전후)에 위치한다. 성산토성은 토성과 석성으로 이루어진 토석혼축성으로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2018년과 2019년에 추가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산토성의 축성구조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2019a·2019b), 2018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로 지정되었다.
- 성산토성은 북쪽과 동쪽은 토성으로 축조되었고, 남쪽은 석성으로 축조하였으며 황강과 접한 서쪽은 자연단애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토성벽의 축조는 4단계의 공정으로 구축하였는데 판축기법으로 일정하게 쌓아올렸으며, 석성벽은 12단 정도 남아있으며 외벽과 내벽 사이에 할석과 흙을 채워넣은 협축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토성 내부에는 대벽건물지와 제사유구, 수혈주거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 토성의 축성시기는 1차 발굴조사시 토성벽 기저부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2차 발굴 조사시 확인된 대형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옥전고분군 출토유물과 비

교해 불 때 다라국이 성립되고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한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토성 내에서 출토된 도질토기의 시기와 함께 토성의 단면조사에서 확인된 축성법과 옥전고분군의 고총고분 축조법이 같은 것으로 증명된다고 보고 있다(조영제 2019: 16-21).

- 옥전고분군(사적 제326호)은 다라국 최고 지배계층의 묘역으로서 성산토성 또한 옥전고분군과 조합되어 다라국 최고 신분자가 거주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산토성은 황강 물길을 이용하여 낙동강 상류와 하류, 그리고 남해안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옥전고분군과의 관계속에서 왕성으로서의 기능을 한 유적으로서 옥전고분군과 합천 성산리 토성의 연관성은 입지나 합천 성산토성의 출토유물이나 대벽건물지나 제사유구 등을 통해 분명히 입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합천군에서는 2016년 2월과 2019년 4월에 성산토성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토성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합천군에서는 성산토성의 고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곽과 도성복원을 함께 계획하고 있으며, 단기 전략과제로 합천 성산토성 국가사적 지정 및 중·장기 전략과제로 다라국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옥전고분군과 성산토성



성산토성의 범위

(3) 고령 대가야왕궁지

- 고령 傳대가야왕궁지는 고령읍 주산에 위치한 산성과 지산동고분군을 뒤로하고 고령읍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해발 50m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상의 대지상에 입지한다. 유적의 동쪽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대가천이 흐르고, 남쪽은 서에서 동으로 안림천이 흐르며, 이들이 합류하여 낙동강에 이른다. 주산에서 동쪽의 대가야천 방향으로 길게 뻗어 읍내까지 이어져 있는 연조리 설상대지 일대에 관련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김세기 2013: 57-95).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9권 고령현 고적조에 의하면 ‘현의 남쪽 일리에 대가야 궁궐지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세상에서 어정이라고 전한다’ 라는 기록이 있으며, 설상대지(舌狀臺地)의 동쪽 모서리 쪽에는 구신정지(九臣亭址)

가 있고 그 동쪽 끝의 밖으로 통하는 곳에는 연조문(延詔門)과 가야성문루(伽倻城門樓)가 있었다고 전한다.

- 대가야왕궁지는 2000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를 통해 대형 대벽건물지와 6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는 와즙건물지(瓦葺建物地)가 조사되면서 그 실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형뚜껑, 대야형 완, 시루, 통형기대 등이다. 다만 대벽건물지가 위치한 설상대지의 능선부는 후대에 대부분 지형이 암반층까지 평탄하게 삭평된 상태였으므로 궁성으로서의 전반적인 면모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
- 2016년 대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궁성지 북사면에 접해 있는 연조리 594-4번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궁성의 방어시설인 해자로 추정되는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었고, 이후 2017년 표본조사 범위를 비롯한 궁성지 주변부 시·발굴조사를 통해 북쪽 경사면 아래에서 성을 방어하는 해자(垓字)시설과 토축(土築)성벽이 구축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가온문화재연구원 2017a).
- 2017년에 실시한 연조리 563-2번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2지점 1·2트렌치에서 궁성지 관련 유구로 추정되는 석축열과 토축이 동쪽 약 50m 거리에서 조사된 연조리 594-4번지 유적과 연결되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가온문화재연구원 2017b). 2018년 연조리 563-3번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1지점 3트렌치에서 앞서 조사된 양상과 동일한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렬과 구신정지(九臣亭址)로 추정되는 연조리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대가야시대의 기와편과 토기편이 일부 확인(가온문화재연구원 2018)되는 등 고령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가야왕성지 범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13년 12월에 문화유적 보존과 도시숲 조성으로 인한 경관 창출 등을 위하여 민선5기 공약사업인 경상북도 문화재 제229호로 등록된 고령향교 일대(대가야 궁성지)의 면적 24,500㎡에 ‘연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는데, 공원 내 주요 시설로는 생활체육시설, 데크로드 조성, 수목식재 107,000본, 산책로 조성, 주차장정비, 향교진출입로 확·포장, 경관조명, 원형의자 설치 등이 있다(고령군청 홈페이지 참조).



대가야왕궁지 전경(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



대가야왕궁지 전경(傳대가야궁성지)



연조공원 내 향교와 대가야궁성지



대가야궁성지 표지석

대가야왕궁지 전경(上) 및 연조공원 내 모습(下)

- 고령군에서는 2005년부터 제1회 신비의 왕궁 대가야라는 주제로 대가야체험축제를 시작한 이래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생활촌 등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대가야박물관, 지산동고분군, 왕릉전시관 등지에서 기획전, 왕릉제, 야간트래킹 등 다양한 행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가야생활촌에서는 기마문화체험장과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다.

(4) 서울 풍납토성(사적 제11호)

- 풍납토성은 백제 한성기 평지 토성으로, 1963년 1월 21일에 사적 제 11호로 지정되었다.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풍납 1·2동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평면형태는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 방향의 장타원형이다. 북벽과 남벽은 짧은 벽으로 직선에 가까우나 각기 동벽과 서벽으로 둔각을 이루며 꺾이고, 그 중 동벽은 중앙부가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다. 풍납토성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64년 서울대학교의 김원룡선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 풍납토성은 현재 전체 토성 중 북벽과 동벽, 남벽 등이 남아 있고, 서벽은 대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북벽 446m 구간은 1976년~1978년에 걸쳐 현 상태로 복원·정비가 완료되었고, 동벽은 북쪽에 일부 구간이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 약 2,080m 정도가 축조 당시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풍납토성은 현재 약 2.1km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고, 서벽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

면 전체 길이는 약 3.5km에 이르는 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풍납토성은 을축년(1925) 대홍수 시 청동제 초두, 과대금구 등의 중요유물이 출토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하남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1936년 조선고적 제27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1964년 서울대학교가 최초로 성 내부 유물포함층을 시굴조사하여 백제시대 생활면과 풍납리식무문토기 등 다량의 토기를 발굴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97년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현 현대리버빌아파트)에서 백제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1999년 6월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측 성벽 2개(A,B)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풍납동 197번지 풍납토성 내 미래마을에 대한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실시되었고, 여기에서 수혈주거지·대형건물지·도로유구·우물터 등 한성백제 왕도의 위용을 나타내는 유적과 유물이 드러났다. 1999~2008년에는 한신대학교박물관에서 경당연립주택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동측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해(2011)에 동남쪽 성벽 밖에서 해자를 확인하는 발굴을 시작하였다.
- 1997년 1월의 발굴이후, 최근까지 풍납토성과 풍납토성 내부에서 20여차례의 대형발굴과 200여 차례의 소형발굴이 시행되었다. 이 토성은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1세기경에 만들어져 475(문주왕1)년에 웅진(熊津)으로 도읍이 옮겨질 때까지 500여 년간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풍납토성의 백제 왕궁유적이 발견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침으로써 『한성백제사』가 복원되어 오늘날 서울의 역사가 『서울600년사』에서 『서울2000년사』로 정립되고, 『한성백제사』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 현재 풍납토성은 발굴조사 후 복토를 하고 잔존하는 토성 전체를 잔디로 식재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그 외 토성 내부의 발굴지는 복토하고 공원으로 정비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토성 내 전체를 매입하기 위하여 매도의사를 밝힌 곳을 우선적으로 점단위로 매입한 곳이 있으며, 이곳은 지역민의 주차장이나 펜스를 설치하고 노지로 유지되는 곳도 있다.
- 2017년 11월에 서울특별시가 풍납토성 발굴조사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백제왕성 풍납토성의 현재와 미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조사·연구 성과와 국내외 고대왕성의 발굴·보존·활용 사례, 풍납토성의 미래라는 주제를 다뤘다. 2019년 2월에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부위원장은 “풍납동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어느 곳 보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지역 선정을 촉구했다.
- 현재의 풍납토성 권역은 성벽을 포함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합하면 약 880,000

m²에 달하는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적지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2019년 현재는 약 400,000m² 가량의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1967년 복원한 풍납토성 풍납토성 복원 모형도



2015년 9월 풍납토성 항공사진(자료: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3) 가야리 유적의 보존 및 활용 계획

(1) 추가 발굴조사 계획

- 가야리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 계획은 현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유적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 규명을 위해 ‘함안 아라가야 추정왕성지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를 실시중에 있다.
- 가야리 289번지 일대에 대한 2018년 발굴조사의 학술 자문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 향후 유구의 성격, 각종유구의 배치형식, 조성집단, 추정하고 있는 가야 왕성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 발굴조사와 정밀한 연구검토 필요
 - 시굴조사 지점을 포함하여 왕궁터의 전체범위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연후에 각 지점별 정밀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적에 대한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이 유적은 지금까지 확인된 가야 왕궁 추정유구 중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아라가야 왕성의 실체 및 축성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 조사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토축의 연결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유적 일대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조속한 문화재지정을 통한 유

적과 경관보존이 필요

- 이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리 유적을 3단계에 걸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병행하여 왕성의 분포범위와 양상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1차 시굴조사 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지역 외의 왕성 추정 필지는 5개 구역으로 설정하여 단계별로 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16과 같다.
- 다만 함안군에서는 현재 사적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야리 유적의 정확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적의 외곽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구역과 연결되는 3구역의 토성벽이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서쪽 돌출부분과 남서쪽으로 꺾여내려오는 지점, 4·5구역과 연결되는 큰 가야동의 남쪽 구릉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곽의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정밀발굴조사

- 1차 정밀발굴조사
 - 조사지역 : 가야리 289·292번지
 - 조사기간 : 재착수일로부터 '19. 6월까지(예정)
 - 조사내용 : 토성벽 및 목책, 방형건물지 등 유구 내부조사
- 2차 정밀발굴조사
 - 조사지역 : 1차 시굴조사 구간(1, 3구역 일부구간)
 - 조사기간 : '19. 9월~
 - 조사내용 : 수혈건물지, 주혈군, 구상유구 등 시굴에서 확인된 유구 전면제토 및 유구 내부조사
- 3차 정밀발굴조사
 - 조사지역 : 1·2·3차 시굴조사 결과 유구 확인 지점(1~5구역 시굴조사)
 - 조사기간 : '20년~
 - 조사내용 : 시굴조사 후 협의

② 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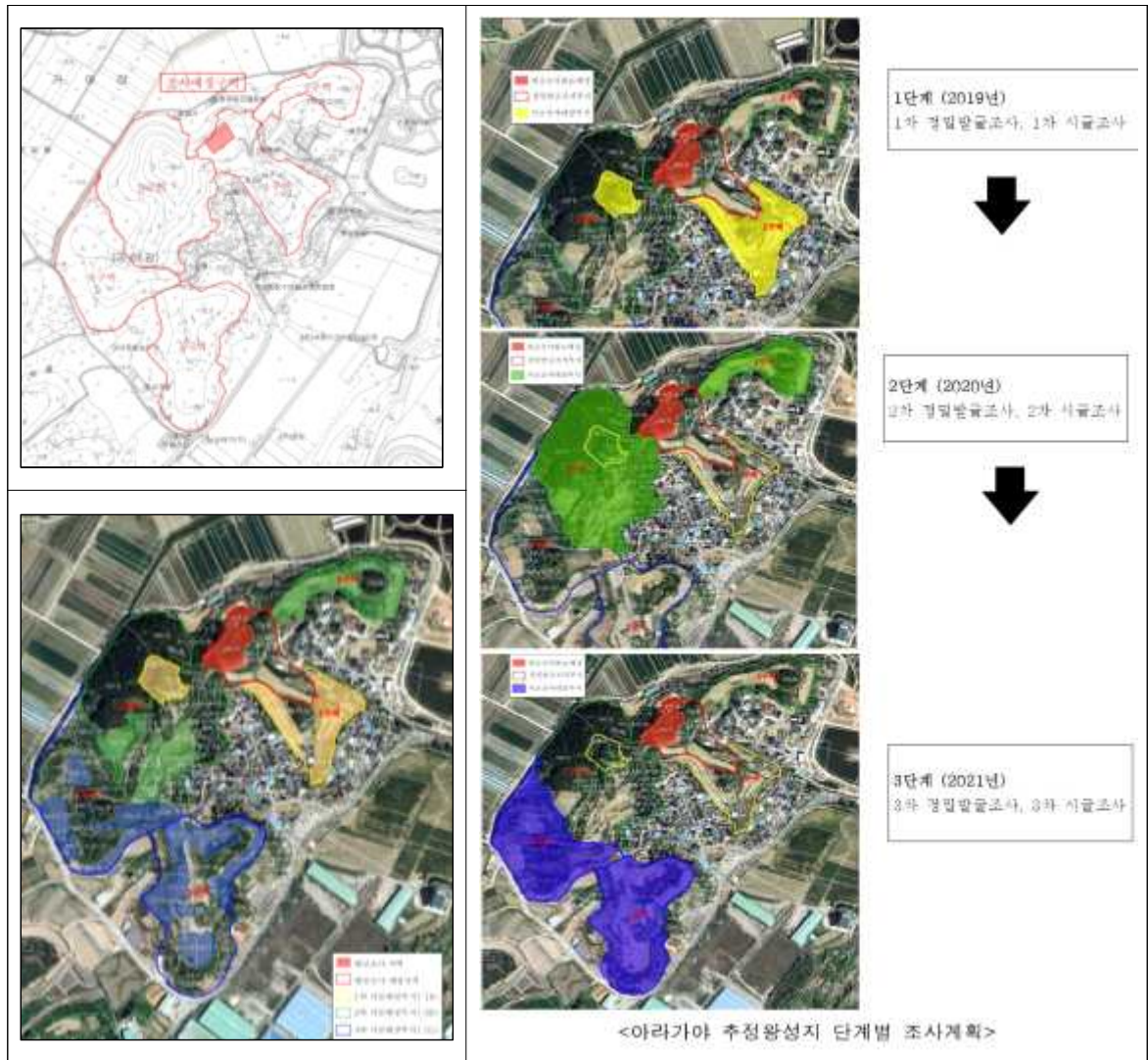
총 5개 구역(* 일부구간은 발굴조사와 병행 실시 예정), 왕성(왕궁) 규모 및 범위 확인, 관련유구 분포현황 조사

- 1차 시굴조사
 - 조사지역 : 1·3구역 일부구간 시굴조사
 - 조사기간 : '19년 중
- 2차 시굴조사
 - 조사지역 : 2·3구역 시굴조사
 - 조사기간 : '20년 중
- 3차 시굴조사

- 조사지역 : 4·5구역 시굴조사
- 조사기간 : '21년 중

표16. 단계별 시·발굴조사 계획(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단계	기간	발굴조사 구역	시굴조사 구역
1단계	'19.12	1구역 내 289·292번지	1구역 시굴지역, 3구역 일부지역
2단계	'20	1구역 추가(286·287번지)	2구역, 3구역
3단계	'21	2·3구역 유구확인지점	4구역, 5구역



가야리 유적 1~5구역 배치도(左), 단계별 조사구역 구획도(右)
(자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향후 발굴조사 대상 필지>

단계	구역	지번	면적(m ²)	발굴조사대상	토지동의 승낙기간
1차	1구역	289	3,907	정밀발굴완료	발굴조사 완료일까지
		292	1,243	정밀발굴완료	
2차	1구역	287	2,261	전면발굴	
		286	1,937	전면발굴	
		555-1	850	전면발굴	
		288	1,183	전면발굴	
		284-1	331	전면발굴	
		285	655	전면발굴	



(2) 유적 정비·관리계획

① 정기적인 벌목·제초작업

- 유적의 기본적인 경관 관리와 지하 유구의 보존을 위해 유적내 잡목과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토록 한다. 특히, 성벽 추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성 확보와 유구 보존 관리를 위해 벌목·제초작업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② 발굴유구 보존·전시를 통한 공원화 및 안내판 정비

- 유적내 기존 발굴 조사지역은 기본적으로 복토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마을공원화 한다. 그리고 중요한 유구는 일부 노출 보존하여 야외 전시관으로 조성한다. 또한, 발굴된 유구를 중심으로 정확한 유구의 이해를 돕는 유구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에게 왕궁유적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유적 진입로 입구에 유적 안내해설판을 설치하여 유적의 존재를 알리도록 한다.
- 안내표지판은 유적 입구 쪽에 기본적인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고 발굴지역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세부안내판을 발굴지 영역 내부 곳곳에 설치한다. 안내판은 문자 위주의 설명에서 탈피하여 방문객에게 사진과 도면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유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쉽게 전달되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 유적내·외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유적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 그리고 유구 내용 등이 규명되면 발굴유구를 중심으로 아라가야 최고지배층의 거주공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복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고증과 복원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실한 유적 복원을 검토 추진한다.



대가야왕궁지-연조공원 입구 종합안내도(左) 및 지산동고분군 관광로 안내도(右)

③ 유적 진입 탐방로 설치

- 현재 기 발굴조사 지역으로의 접근은 가야마을 중앙 진입로를 통해 마을 북단에서 소로를 통하거나 연꽃테마파크에서 왕궁1길을 통해 왕천사 쪽에서 접근 가능하다.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탐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진입탐방로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유적내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입탐방로를 새로 조성하거나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연계 조성한다. 유적 인근의 연꽃테마파크와의 연계 활용이 가장 용이한 방향으로 진입탐방로를 조성한다.
- 탐방로는 기 발굴조사된 지역을 중심(1구역)으로 설치하며, 향후 주변지역의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주변 2·3·4·5구역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탐방로를 설치한다.



말이산고분군 탐방로(左), 몽촌토성 탐방로(右)(자료: 한국관광공사)



합천 성산토성 주변유적 연계탐방로 계획(자료: 합천군·경남발전연구원)
(옥전고분군→합천박물관→성산토성→다라리고분군 I·II)

- 탐방로의 폭은 약 1m 정도로 하며 바닥은 박석과 잔디, 마사토 등 주변과 이질적이지 않고 친환경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가능한 한 인위적인 탐방로 개설보다는 기 조성된 길을 보수하여 활용하고 신규 조성이 필요한 경우 자연스러운 산길 형태로 조성한다.

④ 토성벽(토루) 정비·복원

- 유적의 역사체험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현재 가시적인 증거로 분명히 확인이 되는 토성벽의 현상유지와 정비·복원이 필요하다. 현재 유적 전반에 걸친 발굴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유적 정비·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도출은 어렵지만, 토성벽의 경우 빠른 시일에 자원화가 가능한 유구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구체적인 왕궁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확인되는 잔존 토성벽을 중심으로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고, 토성벽의 제조·별목 작업 등 기본적

인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일부 훼손된 토성벽 유구에 대한 복원을 통해 토성벽의 규모와 존재를 드러내어 가시적으로 왕성의 규모와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성벽 훼손 모습
(자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⑤ 사적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추진

- 유적의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사적 지정구역 내 많은 사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매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적의 복원 및 자원화를 위한 각종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계획적인 복원·정비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가야리 유적의 전체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범위가 확정된 후 이에 따라 사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

① 방문객 주차장 설치

- 현재 유적 주변에 설치된 주차시설공간은 없다. 가야마을 입구나 진입로 주변에 간이 주차공간이 있으나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향후 유적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탐방객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마을 진입로 간이 주차공간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주차공간을 설치하며, 향후 단체방문객을 위한 대형버스의 주차도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유적전시관 건립시 주차시설 계획을 통합하도록 한다.

② 왕궁유적 전시관 건립

- 장기적으로는 현재 진행 그리고 계획 중인 중인 발굴조사를 완료 후 발굴조사 성과를 토대로 왕궁유적전시관을 건립한다. 전시관은 왕궁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방문객에게 체계적으로 전시·교육하고 다양한 역사체험의 장소로서 기능한다. 또한 방문객 편의시설로 역할을 하여 아라가야 왕궁과 아라가야 전모를 보여주는 역사체험교육의 중심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전시관은 지하 1층·지상 1층에 연면적 약 3,000㎡ 규모로 하여 각종 전시 및 교육시설, 수장시설, 방문객 편의시설, 야외체험장 등을 구비토록 한다.



한성백제박물관과 몽촌역사관(자료: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4) 유적 활용방안

① 아라가야 역사투어 프로그램 운영

- 왕궁유적으로의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유적 차원의 역사관광 측면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주변유적과 연계한 종합적인 역사투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라가야인의 일상생활·정치지배 공간인 왕궁유적과 사후세계 공간인 주변의 남문외고분군, 말이산고분군 등과 연계하여 아라가야인의 삶과 내세관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인접한 가야 연꽃테마파크를 포함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현재는 함안박물관을 적극 활용하여 말이산고분군-함안박물관-남문외고분군-가야 연꽃테마공원-아라가야왕궁지로 연결되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라가야인의 삶의 모습을 스토리텔링하여 아라가야의 역사에 대해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주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하고 담당하여, 수시 또는 상시로 방문객 상황과 교육 수요를 검토하여 적절히 운영한다. 아라가야 왕궁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② 지역 축제와 연계한 유적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

- 현재 함안군에서는 매년 아라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를 아라가야의 상징적인 유적인 가야리 유적과 연계하여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성한다. 축제 개막 고유제나 축제 개·폐회 행사, 아라가야 체험행사 등을 왕궁유적에서 열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라문화제 만의 고유성을 확보함과 함께, 자연스럽게 방문객을 유적으로 유도하여 유적에 대한 홍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제시 가야리 유적과 주변 관련유적 투어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투어버스 운영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함안 아라문화제(자료: 함안군청 홈페이지)

③ 왕궁유적 AR·VR 유적 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

- 가야리 유적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하여 왕궁의 구조와 시설 등을 가상으로 복원하여 방문객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정보제공과 역사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최근 서울 돈의문, 풍납토성, 몽촌토성, 울주 언양 읍성과 서생포왜성 등 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AR과 VR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앱을 다운 받은 후 관람동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앱을 실행하면 옛 성곽 모습이나 고분군 등 주요 유적지들을 설명과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울주 영화루에서는 360° 가상현실(VR)로 옛 언양읍성의 주변을 실제로 둘러보는 것처럼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복원사업 중인 성벽구간에서는 증강현실(AR)로 복원된 후의 성벽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제적인 왕궁유적의 현장 복원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단기사업으로 방문객에게 시각적으로 역사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상으로 유적을 복원하여 유적전시관이나 웹을 통해 체험 보급하고 가야리 유적의 콘텐츠산업차원의 활용을 강화한다. 더불어 아라가야의 존재를 각인시키면서 예를 들어 ‘아라홍련’과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아라가야의 이야기로 구성된 모바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등 각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서울 돈의문, 증강현실(AR)로 재탄생



연양읍성 VR/AR 체험 안내도



웹툰 아라 여전사 흥련(자료: 경상남도청)

9. 종합의견

- 함안 가야리 유적은 2018년도 시·발굴조사를 통해,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해 조성된 토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토성은 지형을 이용하여 능선 정상부 사면에 내탁법을 채택하여 축성하였는데, 성벽 축조과정에서 구릉 정상부에 덧대어 평탄대지를 넓혀 토성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 토성벽은 기본적으로 성토기법을 이용하여 쌓아올린 것으로 성토된 토성벽의 현재 규모는 높이 8.5m, 폭은 20m 정도이다. 또한 성벽 상면에는 2열의 목주열이 성벽의 북쪽 외곽을 따라 100m 정도 확인되는데, 이처럼 성토과정에서 목주를 사용한 예는 김해 봉황토성과 함천 성산토성 등에서도 확인된다.
- 또한 토성과 함께 고상식 건물지 2동과 수혈식 건물지 12동이 확인되었는데, 건물지 내부에서는 화살촉, 철부, 찰갑 등의 철제무구류와 무기류 등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또한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상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되고 있어, 이는 아라가야의 최성기에 축조된 국가적인 중요 시설물임이 충분히 추정된다.
- 또한 2018년도 발굴된 유구의 잔존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주변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볼 때, 시급한 보존과 확대 발굴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 신청된 구역의 안(案)중에 충분한 유적의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해남 전라우수영 보호구역 내외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사적 제535호 「해남 전라우수영」 원문 보호구역 내외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 전라우수영 원문 보호구역 내외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해남 전라우수영(사적 제535호 / 2016.09.30. 지정)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서상리 1294 외
- (3) 신청내용<농로 및 배수로 정비>
 - 위치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1294 외(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농로 포장 : 총연장 1,203m, 폭 3~5m, 콘크리트 포장
 - 배수로 정비 : 총연장 1,598m, 콘크리트 개거 설치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는 43, 44호 구간 제외할 것

4.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 특화가로 조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진도군 소재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 특화가로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목 관아와 향교 내외 특화가로 조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목 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금계동 일원
- (3) 신청내용<특화가로 조성>
 - 위치 : 전남 나주시 향교길 17-2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가로 도막포장 : 길이 738m, 폭 6m~15m
 - 물길 재현 : 길이 130m, 폭 0.5m
 - 사마교 재현, 사마교비 및 서성문 석등 이전

라. 의결사항

- 부결
 - 재현사업 등에 대한 학술적 근거자료 미흡

5. 고령 주산성 내외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내외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주산성 내외에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대가야읍에 산재한 다양한 걷는 길의 연계를 통해 대가야읍을 순환할 수 있는 대가야 도보여행 네트워크 구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주산성(사적 제61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54-1번지 등 일원
- (3) 신청내용<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 사업>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3-1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대가야읍 일원 둘레길 본선 25.9km + 지선 11.8km 조성
 - 1코스(기존노선) : 본선 4.7km + 지선 0.3km, B=1.2
 - 2코스(기존노선) : 본선 4.9km + 지선 0.8km, B=1.2
 - 3코스(기존노선+신설노선) : 본선 5.3km + 지선 3.6km, B=1.2
 - 4코스(기존노선) : 본선 2.8km + 지선 0.8km, B=1.2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6.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건축물 개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대
- (3) 신청내용<보호구역 내 건축물 개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51-10(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05m²
 - 건축면적 : 41.59m²→40.96m²
 - 연면적 : 65.39m²→65.12m²
 - 규모 : 지상2층(6.3m)
 - 지붕형태 : 경사지붕→경사형지붕

라. 참고사항

-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9.09.27.)
 - 기존 건축물의 규모 이내 개축이지만 동측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와 경관 보호를 위해 한양도성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토록 함(기존 건축물의 이격 거리인 3.8m 초과 이격하여 확보 바람)
 - 대지 동측 한양도성 하부 석축은 과거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바, 동 대지의

건축 행위 시 대지 조성을 위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지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 후 성토하여 도성 하부 토사 유실 및 절개지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 옹벽 설치 및 성토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서울시(한양
도성도감)와 협의하기 바람, 서울시는 위 방안 협의 시 한양도성 자문
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자문을 받도록 함
- 창의문쪽 정면 외벽 디자인 패턴을 단순화(목재와 벽돌 마감 통일)하고
창호에 사용되는 유리는 저반사 유리를 사용토록 하며, 창호 규격의 축소를
권장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서울시(한양도성도감)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7. 경주 남산 일원 내 삼릉계 삼층석탑 재현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삼릉계 삼층석탑 재현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 삼릉계 삼층석탑 재현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등

(3) 신청내용<삼릉계 삼층석탑 재현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산7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경주 남산 삼릉계 삼층석탑' 복제

- 현황 : 최고높이 2.16m, 옥개석 한변 너비 0.98m(국립경주박물관 소장)
- 도면 제작 : 3D 스캔 및 정밀실측을 통한 설계 도면 작성
- 복제품 제작 : 경주 남산 화강암 이용, 대한민국 명장 석공 윤만걸 제작
- 복제 사유 : 소장처 협의를 통해 문화재 안전성 및 보존성 고려

- 원위치 삼층석탑 설치 및 주변 안정화

- 2007년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수정비 중 확인된 석탑의 원위치에 설치
- 석탑 설치시 우려되는 '삼릉계 석조여래좌상(보물 제666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양작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 경주시·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자문·협력

- 석탑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안내해설판 설치

※ 경주 남산 삼릉계 삼층석탑 현황

- 원 위 치 : 삼릉계 제6사지(경주시 배동 산 72)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 재 지 :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전시장
- 주요연혁
 - 1930. 경주 남산에서 반출 추정 / 조선총독부 박물관 귀속(本館 11981番)
 - 1948. 정부수립 후 국립박물관 개관으로 유물 인계(국립경주박물관)
 - 2007.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 보수정비 중 삼층석탑 부재 2점 발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석탑 원위치 확인)
 - 2016. 경주국립공원 반출문화재 증강현실(AR) 앱 제작·활용

(4) 신청인 의견

- 경주 남산 삼릉계 석불좌상(보물 제666호, '08년 복원) 보수정비 과정에서 짝을 이룬 석탑의 원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완전성 제고 기회
- 연간 약 35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경주 남산 주요 탐방로에 위치한 '삼릉계 제6사지'의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하여 문화재 활용성 제고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9.25./문화재위원 ○○○)

- 현지조사(국립경주박물관 및 남산 원위치)를 실시 한 결과, 삼층석탑 재현 설치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삼층석탑이 원래 놓여 있던 곳을 발굴조사 하였고 탑의 일부 깨진 조각이 탑의 일부였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삼층석탑이 원래 있었던 위치가 확인되었고 현재 국립경주 박물관에 이전되어 있는 탑이 발굴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검증됨.

(2) 현지조사의견('19.09.25./문화재전문위원 ○○○)

- 경주 남산은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흘러내린 40여 기의 골짜기와 능선에는 많은 유적지와 불교 문화의 보고(100여 곳의 절터, 90여기의 석불, 60여기의 석탑 등)로 알려짐.
- 신청대상지는 경명왕릉·신덕왕릉·다달라왕릉이 있어 삼릉골이라 불리며 2007년 산 중턱의 석불좌상(보물 제666호) 보수과정에서 삼층석탑의 원위치가 확인됨(발굴조사자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현재 석탑은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으나 이를 3D 스캔 및 정밀 실측하여 복제 설치하는 계획에 있음

- 석탑 설치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주 거둔사지 원공국사탑’ 재현 등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협의하여 복제 설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사업타당성 부족(향후 박물관과 협의 원유물 설치 검토 필요)

8. 경주 읍성 내 임시주차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96호 「경주 읍성」 내 임시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읍성 내 임시주차장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읍성(사적 제96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부동 52

(3) 신청내용<임시주차장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부동 52(사), 25-1(대), 27-2(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주차면 : 총 28대(장애인 2대, 일반 26대)
- 평벤치(400×1800)설치 : 2개소
- 수목공사 : 수목제거 1주, 배롱나무(R20)식재 1주
- 인조화강블럭(200×200×60)설치 : 1075m²
- 화강석경계석(200×250×1000)/설치 : L=90m
- 사각맨홀(400×400×600)설치 : 4개소

(4) 신청인 의견

- 경주읍성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환경 저해 우려

9. 경주 문무대왕릉 내 안심가로등(태양광)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내 및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주변 안심가로등(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문무대왕릉 내 및 경주 이견대 주변 안심가로등(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 1967.07.24. 지정),
경주 이견대(사적 제159호 / 1967.08.0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30-1, 감포읍 대본리 664-1

(3) 신청내용<안심가로등(태양광)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6-5(문화재구역),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1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6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문무대왕릉 구역 내 : 기존 가로등 철거 및 설치(8본, 최고높이 6.5m, 태양광패널 1.6×0.99m)
- 이견대 주변 : 하이브리드가로등 설치(5본, 최고높이 6.5m, 태양광패널 1.9×0.77m)

(4) 신청인 의견

- 기존의 노후화된 가로등을 철거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조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주민들의 새벽조업 및 어로작업 등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디자인 등 수정 필요)

10.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등
-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88-3(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일반목구조, 한식골기와잇기
 - 최고높이/연면적합계 : 5.6m/98.70m²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 굴착깊이 : 30cm
- (4)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김호장군의 손녀로서 고택의 관리 및 제반사항을 도모하고 고택의 활용에 기여하고자 종가의 대지가 있는 고택 주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
 - 문화재구역 및 김호장군 고택에 위계에 위배되지 않도록 동향으로 돌려 설계하였으며, 조망 또한 남산과의 연계에서 거슬리지 않도록 낮게 설계하였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9.09./문화재전문위원 ○○○)

- 경주 남산 북측 문화재 지정구역 내 경주 월암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34호)이 남향하고 주변에는 가옥(6가옥)과 연결하여 2구역 내에는 마을들이 위치하고 있음
- 신청 대상지는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있는 월암 종택 인근에 종택 관리를 위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계획함
- 동 사업은 주변 여건을 고려한다면 남산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문화재 지정구역이고 주택규모, 위치(지반이 높음)는 월암 종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근대문화재과와 사전 협의 등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근대문화재과)('19.09.19./문화재위원 ○○○, 전 문화재위원 ○○○)

- 해당 신청부지는 현재 농지(전)로 과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택의 배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고택이 쉽게 조망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또한 문화재구역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환경·경관 저해 우려

11. 경주 남산 일원 내 힐링마을 비닐하우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힐링마을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 힐링마을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등
- (3) 신청내용<힐링마을 비닐하우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460-2(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파이프, 비닐하우스
 - 최고높이/연면적합계 : 5.0m/304m²
 -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 (4) 신청인 의견
 - 지역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 제공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09.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경주 남산 서측자락 문화재 지정구역 내이면서 포석정과는 약 100m 떨어져 있음. 신청대상지는 문화재구역 내이고 식물 재배사 설치를 허가할 경우, 유사시설물의 확장성이 우려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12. 부여 가림성 내 사적비 이전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내 사적비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가림성 내 사적비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9년 9차 위원회('19.09.18.)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가림성(사적 4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97번길 167 일원
- (3) 사업내용<사적비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임천면 군사리 4번지(문화재구역)
 - 신청내용 : 사적비 설치
 - 규모 : (비신) 높이 1.88m, 폭 0.68m / (비좌) 높이 0.48m, 폭 1.22m
 - 목적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위치한 유태사묘 사적비(관련기록을 참고하여 1978년 건립)를 문화재 내 위치한 사당(문묘) 인근으로 이전 설치하여 방문객이 문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 현 사적비 위치 : 문화재로부터 150미터 이격
 - ※ 이전위치 : 부여 가림성 성벽 안쪽 15미터 지(현 사당 전면)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09.24./문화재위원 ○○○)
 - 본 신청 건은 유태사 사당으로부터 이격된 위치에 설치한 유금필 장군 사적비를 부여 가림성(사적 제4호) 내 사당 인근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 현재의 사당영역은 부여 가림성 성벽과는 약 15미터 이격되어 있어서 성벽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며,
- 사적비를 이전 설치할 경우 사당의 내력과 사당에 모신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관람객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신청위치보다 설치위치를 사당의 남서쪽으로 변경하여 사당 전면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사당 전면에 있는 비석을 함께 이전하여 사당의 전면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재안내판은 그 내용이 사적비 내용과 동일하므로, 철거하는 것이 적절함

(2) 관리단체 의견

- 본 신청 건은 사적 제4호 부여 가림성 내 유금필 장군 사적비를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하는 사항임.
-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제8호 임천 유태사 묘에 대한 사적비가 문묘(사당)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사적비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적비를 문묘 근처로 이전하여 관광객 및 참배객이 문묘에 대한 내력을 알고 참관할 수 있도록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됨
- 당초 사적비는 군사리 산12-1번지(부여 가림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2구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금회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군사리 3번지(부여 가림성 문화재 지정구역)로 이전 설치하고자 함.
- 문묘(사당)와 사적비의 상관관계 및 사적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해 문화재의 경관 및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336호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미 낙산리 고분군 주변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낙산리 고분군(사적 제336호 / 1991.10.25. 지정)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98-4
-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713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3m 이격/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신청내용
 - 가동 305.15㎡ 증축부분 적법화
 - 나동(축사) 354.80㎡ 적법화
 - 표시변경: 가동(21.60㎡_퇴비사로 표시), 가동(5.40㎡_퇴비저장고로 표시)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09.27./문화재위원 ○○○)
 - 현재 우사는 낙산 고분군 지정구역에서 동쪽 193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이 우사는 마을에서도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낙산 고분군에서는 이 우사가 보이지 않고 이곳에서도 낙산 고분군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낙산 고분군 관람 동선과는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우사가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사찰 증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에 사찰을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에 창녕 창화사의 창고 용도를 위한 증축 사항임
 - '18년 11차 위원회('18.11.14.)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부결 : 문화재 경관 및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6차 소위원회('19.06.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송현리 일원
- (3) 신청내용<사찰 증축>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구분	1차 신청안 ('18.11.)-부결	2차 신청안 ('19.5.)-부결	3차 신청안 ('19.6.)-부결	금회 신청안('19.10.)
건축면적	277.86㎡	277.86㎡	277.86㎡	창고:96㎡, 요사채:60㎡
연면적	814.26㎡	546.06㎡	391.26㎡	창고:96㎡, 요사채:60㎡
높이	13.85m(3층)	10.85m(2층)	8.60m(2층)	창고(6.7m/1층) 요사채(4.6m/1층)

(4) 신청인 의견

- 신청부지는 기존 종교시설인 사찰이 있는 종교용지로 기존의 사찰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 사찰(요사채, 창고)을 증축하고자 함. 신청부지와 인접하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이 있어 증축을 함에 있어서 경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증축을 계획할 것임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11.01./문화재위원 ○○○, ○○○)

- 본 건물은 허용기준 1구역 내 고분군으로부터 10m 이격된 곳에 13.85m/3층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써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과 시가지 사이에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 현지조사의견('19.06.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계획된 창화사 부속건물은 고분에서 보여지는 경관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됨.

(3) 현지조사의견('19.08.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제시된 계획안은 현지에서 볼 경우 고분의 경관에 침해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창고 위치 및 높이는 가능한 후면으로 이동 및 2층 난간 높이 이하로 할 필요가 있음
- 요사채는 본전 좌측에 1층(약 3~4m 높이 이하)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후면 축대에 근접하게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5. 여수 선소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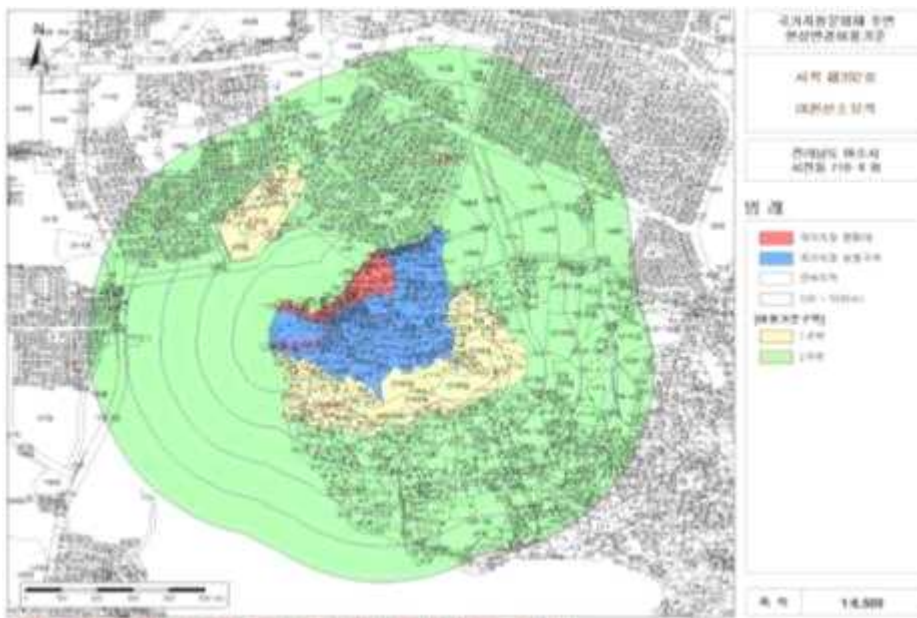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392호 「여수 선소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선소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19년 7차 위원회('19.07.10.)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안)대로 시행
- 행정 예고('19.7.13.~8.1.) : 1건 접수(여수시청 청사 주차장 부분 1구역→ 2구역 재조정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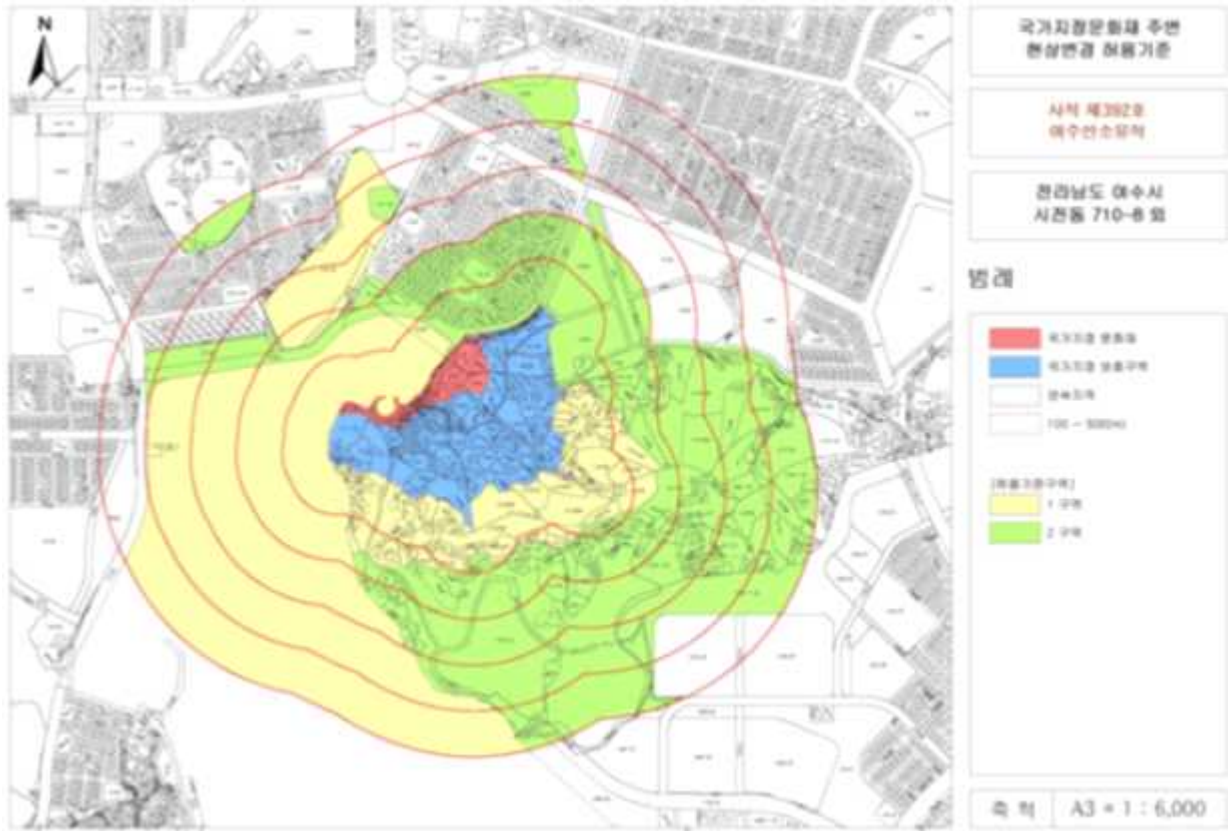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선소유적(사적 제392호 / 1995.04.20.지정)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시전동 708번지 외
- (3) 신청내용<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기존 허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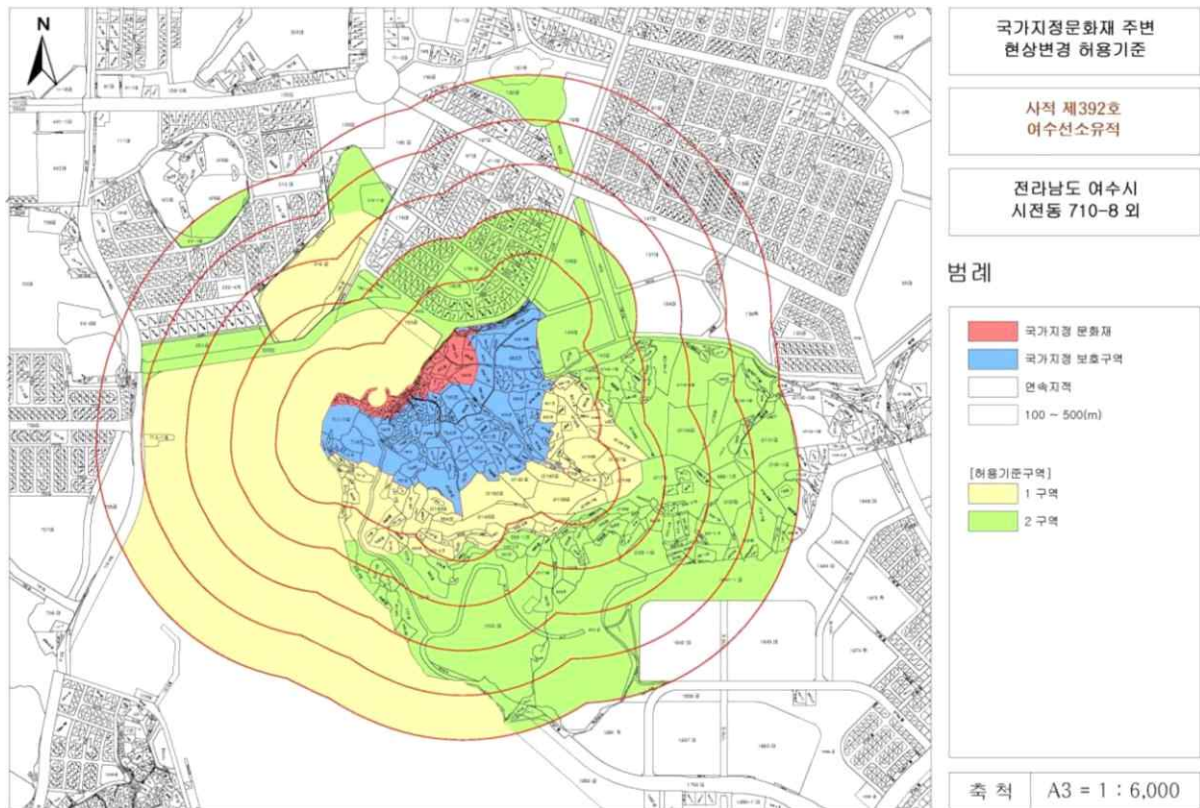
구분	허용 기준	비고
제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불가 ○ 개·재축 허용 ○ 공공사업시행 및 공공시설물 설치시 별도심의 	
제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현지조사안('19.7.10. 심의 가결)



구분	허용 기준	비고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 금회 신청안(여수시 재조정 요청)



※ 세부사항은 ‘현지조사안’(‘19.7.10. 심의 가결)과 동일

라. 참고사항

(1) 행정예고 결과(2019.07.13. ~ 08.01.)

- 공고 결과 : 의견 1건 - 여수시장(회계과)
 - 여수시 학동 316번지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는 주차장으로 기 개발되어 2014년부터 태양광시설이 기 설치됨
 - 추후 공공청사용지에 편입될 계획으로, 현재와 같이 확대될 경우 공공청사 운영에 지장 초래
 - 당초와 같이 2구역으로 편입 요청함
- ※ 허용기준 조정 용역 과정에서 시설 검토의 오류가 있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검토의견(‘19.06.2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여수 선소유적의 허용기준을 5대 경관 지표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여수 선소유적은 서남측에 바다를 끼고 동측으로 산지, 북측은 주거와 산업 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지역임.

- 일체성, 장소성, 왜소화 등 지표를 적용할 때, 현황의 임야, 바다가 도시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일체성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바다는 개별심의구역으로 함이 적절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바, 북측은 200m까지 검토함. 그 외 구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녹지이거나 기 개발되어 기존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9-10-016

1. 영월부 관아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소재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부 관아의 남동측부를 발굴하여 관련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남동측 경계에 연결한 8개 필지 707㎡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영월부 관아(사적 제534호 / 2016.03.08.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영월읍, 관풍헌)
- (3) 신청내용
 - 추가지정면적 : 8필지 707㎡ <기존 지정(보호)구역 : 18필지 5,101㎡ >

라. 참고자료

- (1) 현지조사의견('19.09.03./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 건물 영월부 관아의 우측 구역을 발굴조사 한 결과, 조선시대 적심 유구가 발견되고 이는 영월부 관아와 일체성을 가진 유구로 추정됨
 -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연결구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문화재 추가지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8필지 707㎡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향후 학술적·역사적 가치 확인 후 지정 구역 검토)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사적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9.9.3(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대학교 교수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의 북동측부를 발굴하여 관련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보호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의 관련 유구로서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입지

- 태백산맥의 지산이자 영월군의 진산인 발산(鉢山, 해발 674m)에서 동강과서강 사이에 펼쳐진 선상지 상에 영월부 관아가 위치함.
- 영월부 관아가 위치한 읍내 남쪽으로 동강이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평창강이 북서편에서 남동방향으로 흘러와 합수되어 남동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
- 「영월부 관아」 내부에 위치한 관풍헌 및 자규루 등 건물의 배치는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2°가량 틀어진 모습이고, 정북방향으로 발산이 위치함.
- 「영월부 관아」는 영월읍의 중심시가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구 도심권에 해당함.
- 현재 「영월부 관아」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화했지만 불과 백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읍치의 중심부였음.
- 「영월부 관아」의 외삼문 남쪽에는 동서축으로 전개되는 전면도로를 중심으로 영월읍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자연공원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음.
- 「영월부 관아」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은 상가가 들어서 있으며, 자규루가 위치한 영흥리 984-3번지 주변으로는 토지매입 후 상가 철거 등 정비가 이루어졌음.
- 이번 「영월부 관아」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부지는 영월부 관아의 남동쪽 경계에 연결한 상가건물을 포함한 8개 필지(면적:707㎡)임.

□ 역사문화환경

- 관풍헌은 조선시대 영월객사 내성관(奈城館)의 동익헌으로 1396년 건립되었고 자

규루는 1428년(세종 10) 군수 신권근(申權根)이 건립하였음.

- 1605년(선조 38)에 폭우로 인한 큰 피해로 소실된 이후 1791년(정조 15)강원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에 의해 중건됨.
- 세조 3년(1457) 노산군으로 강봉된 단종이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어 지내던 중 홍수가 나자 당시 영월부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동익헌)으로 처소를 옮겨 침전으로 사용함.
- 자규루는 본래 매죽루였으나 단종이 자규시를 지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명칭이 바뀌었음.
- 또한 주목되는 것은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제1536호 월중도(越中圖)에 제3면은 영월 객사의 관풍헌(觀風軒), 제4면은 자규루(子規樓), 제7면은 영월읍 치소(治所) 등에 영월부 관아가 표현되어 있음.
- 영월부 관아는 17세 단종이 이곳에 유배되어 노산군으로 강봉된 채 짧은생을 마감한 역사의 현장으로 조선시대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임.
- 현재 영월부 관아의 문화재구역내에는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인“자규루 및 관풍헌”과 함께 약사전, 요사채 건물 등 관아 객사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영월부 관아의 객사는 태조 5년(1396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정조 15년(1791년)에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월부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동익헌)은 정면 5칸이며, 객사의 서익헌은 정면 4칸, 중앙 정청은 정면 3칸, 자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누각 건물이다. 2013년과 2015년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건물지, 박석시설, 내삼문지를 비롯하여 객사 건물로부터 내삼문지에 이르는 보도시설과 월중도(보물 제1536호)에 표현된 관풍헌으로부터 자규루로 연결된 보도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영월부 관아는 조선후기 중수된 이후 현재까지 그 터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해 단종의 역사를 품고있는 사적(史的)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3월 8일 국가사적 제534호로 지정되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영월부 관아의 객사는 태조 5년(1396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정조 15년 (1791년)에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음.
- 영월부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동익헌)은 정면 5칸이며, 객사의 서익헌은 전면 4칸, 중앙 정청은 정면 3칸, 자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누각
- 최근까지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 박석시설, 내삼문지와 객사의 내삼문으로 연결되는 중앙 부분과 월중도(보물 1536호)에서 보이는 관풍헌과 자규루로 연결 부분에 보도시설이 확인되었고 최근까지 영월부 관아 관련 유구가 확인되고 있음.
- 영월부 관아는 조선후기 중수된 이후 현재까지 그 터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해 단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적(史的)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통해 문화재 보호 구역을 조정함과 동시에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 지정하고자 함.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 지정구역)

지정면적: 8필지 /707m²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지정구역(m ²)	소유자	비고
영월읍 영흥리	984-5	대	13	13		
	984-7	대	12	12		
	987-4	대	360	360		
	987-5	대	50	50		
	987-6	대	124	124		
	987-7	대	111	111		
	987-8	대	27	27		
	987-10	대	10	10		
계	8필지		707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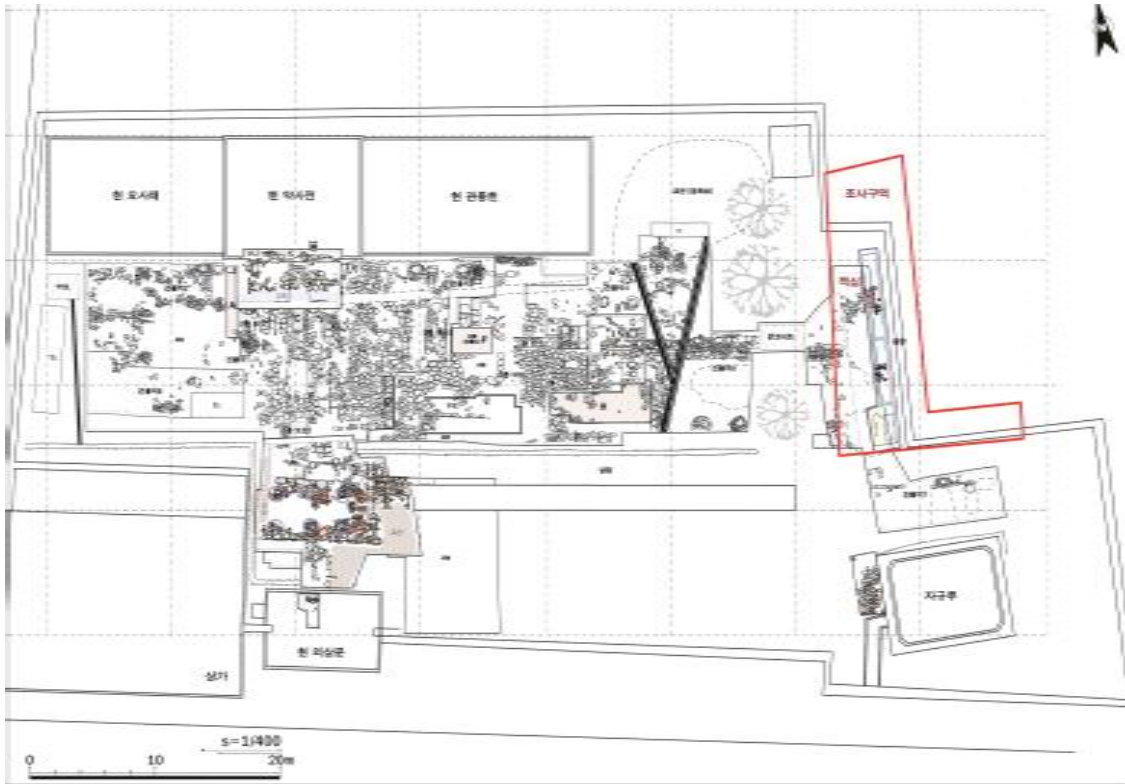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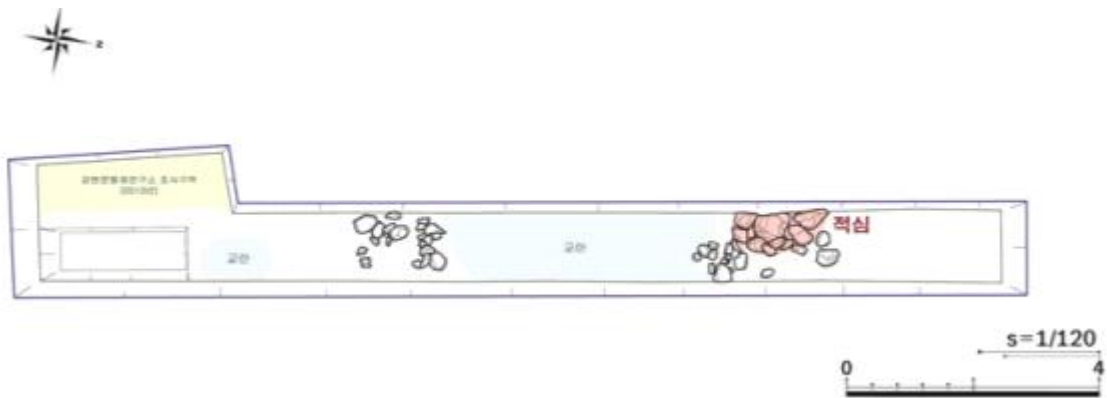
영월부 관아 지정구역 조정 안



트렌치 조사 후 전경(드론촬영)



조사지역 유구현황



조사지역 유구 현황



트렌치 내 유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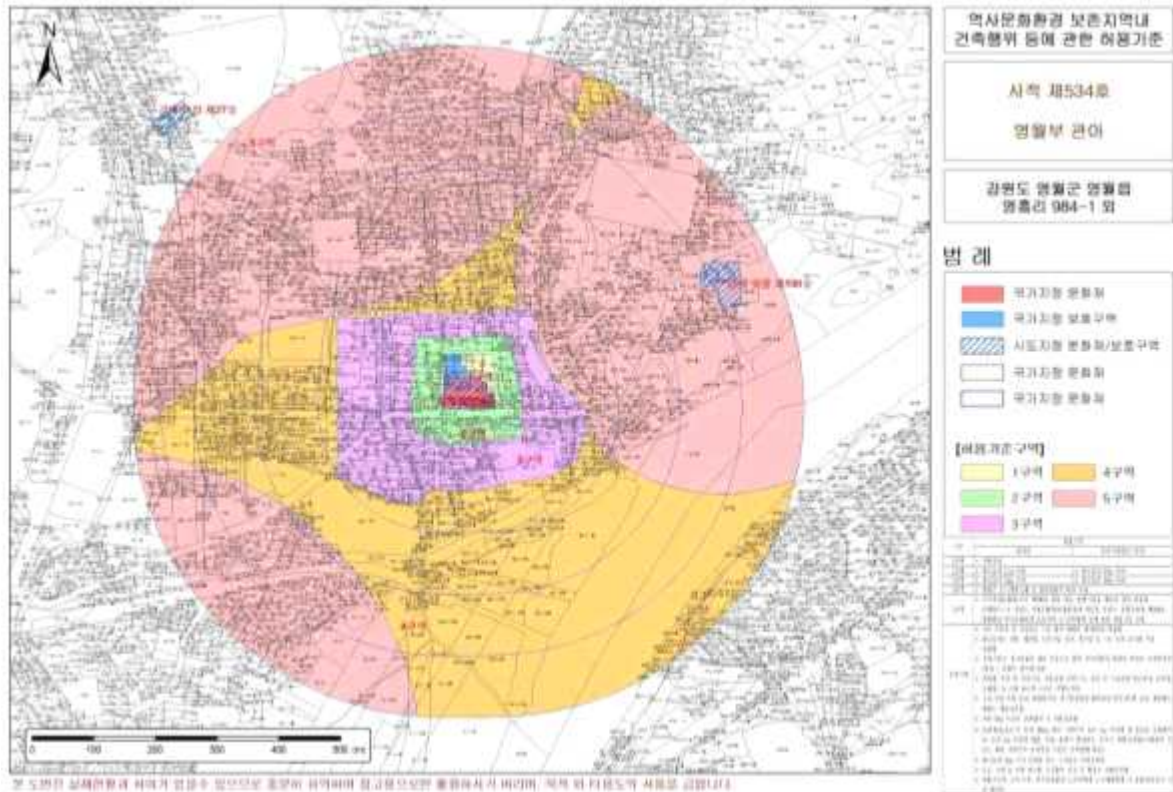
□ 조사단 의견

- 금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초석적심은 지표 하 120cm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7호 건물지와 해발고도상의 출토위치가 일치하므로 동일 건물지로 여겨진다. 상기 건물지는 도면의 배치 상 조사지역 동편으로 이어져 확인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편의 해발고도가 유구가 확인된 지점과 거의 일치하는바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조사지역이 월중도상에 표현된 영월부 관아 객사의 담장 안쪽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지가 연장되는 지역을 영월부 관아 지역에 편입해 보존한다면 추후 이 지역을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도심화된 곳으로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기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기존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기존
4구역	○ 영월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5구역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천연기념물 제75호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및 강원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7호 창절사, 유형문화재 제100호 영월 향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I. 사업의 개요

가. 배경 및 중요성

- “영월부 관아”(관풍헌 및 자규루 포함)은 조선 초기의 정치적 상황과 조선 후기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정치사적으로 귀중한 역사적 장소이다.
- 현재 남아있는 자규루는 역사문화에 많이 등장하는데, 1791년(정조15년)에 복원 건축되었다는 사실과 당시 정황이 정확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 영월객사의 관풍헌 및 자규루와 관련된 역사 문헌 가운데는 당시의 건축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릉사보(莊陵史補), 자규루도(子規樓圖), 월중도(越中圖) 등의 그림 자료가 남아있어서 정확한 복원 및 정비가 가능하다.
- 영월객사의 복원 및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는 ‘자규루’와 관련하여 문학 작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적 활용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와 역사 분야의 통섭을 구체화할 수 장소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나. 추진방향

- 주변지역의 역사·지리·문화환경 등의 조사를 통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정비기본 계획 수립
- 영월부 관아의 역사문화환경을 위하여 주변 토지 매입 및 정비 추진
- 영월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전 전승을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취

○ 문화재 활용방안 마련으로 지역문화관광자원과 네트워크 구성

II. 문화재 현황

- 문화재명 : 영월부 관아(寧越府 官衙)
- 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4호
- 지정일자 : 2016-03-08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일원
- 소유자 : 보덕사, 영월군
- 관리단체 : 영월군
- 수량 · 면적
 - 문화재구역 토지 13필지 3,871㎡, 보호구역 5필지 1,230㎡
 - 건축물 4동 (관풍헌 포함 객사건물 + 자규루 / 307.2㎡)
- 구조
 - 관풍헌 : 정면 4칸, 측면2칸, 팔작 및 맞배지붕
 - 자규루 : 정면 3칸, 측면2칸, 팔작지붕
- 용도 : 관풍헌(객사 내성관의 동익헌)
 - 자규루(객사 내성관에 부속된 누각)
- 지정면적 : 18필지 5,101㎡(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
영월읍 영흥리	984-1	대	2,244	2,244		
	984-3	대	300	300		
	984-4	대	34	34		
	984-6	대	55	55		
	984-16	대	371	371		
	985	대	159	159		
	985-2	대	19	19		
	986-1	대	76	76		
	986-2	대	95	95		
	986-3	대	117	117		
	986-7	대	76	76		
	987-13	대	185	185		
	944-127	대	140	140		
	988-3	대	198		198	
	988-4	대	268		268	
	988-5	대	314		314	
	988-6	대	410		410	
	988-7	대	40		40	
계	18필지		5,101	3,871	1,230	

Ⅲ. 보수정비 및 발굴조사 현황

시기	영월객사 (觀風軒 · 子規樓)
1972년	관풍헌 기와변와 및 연목교체
1974년	관풍헌 기와변와, 건물보수, A동 단청
1977.11.18	관풍헌 · 자규루 보호구역 지정고시
1978년	B,C 동 기단시설C동 내부보수 및 창호신설
1978년	자규루 기와해체변와, 건물보수 단청
1983년	9월관풍헌 정각, 평삼각 이전보수주위 건물 철거자규루 앞 건물 철거
1984년	자규루 보호물 시설
1985년	관풍헌 강원은행 앞쪽 보호물 신설
1987.11.7	관풍헌 C 형 안내판 설치
1988. 9.29	자규루 방충방연제 도포 (39.78m ²)
1988.11월	건물 및 토지 매입
1989. 6.7.~8.5	관풍헌 사고석 담장 설치자규루 보수
1991. 7.3.~11.25	지붕해체보수 및 기와변와기단보수, 창호교체
1993년 1월 8일	안내판 교체
1994.3월~1994.4월	관풍헌(요사, 약사전) 창호교체
1997. 7.18.~12.31.	산자이상 해체 후 부식재 교체 및 드잡이바닥우물마루 해체 설치지붕하부 기둥동바리 이음
1998. 5.23.~7.16	관풍헌 고색 모로단청방충방연제 도포
1998.9.7.~1999.1.16	요사채 연목이상 해체드잡이 후 변와파손된 주초석 보수
1998. 5. 8 ~ 6.29	화장실 보수연목이상 해체하고 기와변와
2004. 6.25 ~ 9.14	사고석 담장설치 (79.8m)수목제거 - 측백나무 110주
2013. 3.13 ~ 11.15	학술 발굴조사(강원문화재연구소)
2015. 6.17 ~ 7.03	추가 학술 발굴조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6.10. 6 ~ 10.11	영월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입회조사
2016.10.10 ~ 10.11	영월부 관아 담장 주변 시굴조사
2018.03.09.~2018.11.05.	영월부 관아 내 서익헌 및 외삼문 해체보수
2019.04.01~04.12.	영월부 관아 관풍헌 유적 시굴조사
2019.06.03~2019.06.07.	영월부 관아 주변 유적 시굴조사
2019.07.02~2019.07.19.	영월부 관아 관풍헌 유적 발굴조사
2019.01.07.~2019.11.04.	영월부 관아 내 관풍헌 해체 보수(진행중)

Ⅳ. 영월군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가. 도시계획현황

나. 토지이용현황

- “영월부 관아” 앞 남쪽은 중로 2류(보조간선도로 : 폭 15 ~ 20 M)에 접함.
- 전면도로 건너편에 중앙시장이 위치함.
- 도로 양옆에 형성된 상권은 격자형 도로체계를 따라 분포 하송리 북쪽까지 확장되고 있음.
- 동쪽과 서쪽은 소로 1류(폭 10 ~ 12 m)에 접함.

- 북쪽 인접 필지는 모두 대지임, 북쪽 대지는 소로 2류(폭 8 ~ 10 m)에 접함.



영월부 관아 문화재보호구역 및 현황



영월부 관아 서쪽 소로 1류

V. 문화재 구역 확대에 따른 토지매입 계획

가. 문화재구역 확대에 따른 토지매입 계획(안)

- 영월부 관아는 현재 관풍헌을 비롯하여 자규루가 남아 있으며, 단종과 관련한 인물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재임.
- 2016년 사적 지정 당시 자규루 주변 토지는 매입하여 정비한 상태지만 영월부 관아의 북쪽과 외삼문 좌측의 상가 건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 최근 영월부 관아 주변으로 시가지의 개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영월부 관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영월부 관아와 연접해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과 함께 정비가 필요함.

※ ‘영월부 관아’ 문화재구역 확대지정(안)

- 당초 : 문화재구역 13필지(면적:3,871㎡) 보호구역 5필지(면적:1,230㎡)

- 추가 : 문화재구역 8필지(면적:707㎡)

○ 현재까지 “영월부 관아” 주변 토지매입 실적 : 5필지(1,230㎡)

○ 향후 “영월부 관아” 북쪽 배면에 위치한 구역을 연차적으로 매입 추진

나. 향후 추진 계획

- 현재 「영월부 관아」의 객사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추진
- 매입부지는 발굴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 및 정비계획안최종 확정 한 뒤 정비시행

VI. 문화재 활용방향

가. 활용계획

- 영월부 관아는 기존에 단종이 승하한 곳으로 슬픔과 애잔함 등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장소로만 기억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영월부 관아 본연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그 일환으로 2016년에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체험 교육프로그램 장소로도 활용됨.
- 또한 2017~2018년에는 문화재청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사업에 선정된 “관풍헌, 사색에 잠기다”라는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본 행사를 위해 외부 방문객의 높은 관심과 호응도 유도함.
- 향후 영월군 소재 단종 관련 유적지와 연계하여 교육 체험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및 공연 등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016년 문화재 활용사업 당시 모습(상 좌우), 2017년 영월부 관아 활용사업 홍보 포스터

9. 종합의견

- 영월부 관아는 2016년 단종 관련 관풍헌과 자규루가 잘 보존되어 있는 관아로서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도 발굴조사에 의해 자규루의 북측, 관풍헌의 동측 담장 부근을 시굴조사 한 결과, 현 객사 건축물과 동일 토층에서 건물지의 적심이 발굴되어 관아 관련 건물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정비기본계획에서 현 추가지정구역을 관아 영역으로 정비하여 관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지정구역의 추가지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시영상관 건립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사적 제114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전시영상관을 건립하고자 건립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의 전시영상관 건립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부의한 사항임.
- '19년 7차 위원회('19.07.10.) 보류 : 위치, 규모, 디자인 등 전면 수정 후 재검토
-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 '17~'20년/85억원(국·지방비 포함)/전시관 건립, 관람편의시설 정비, 관왕묘 건립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114호 / 1963.01.21.지정)
 - 소재지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
- (3) 신청내용<전시영상관 건립>
 - 위치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578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사업내용
 - 전시영상관 신축 : 1동, 건축면적 791.79㎡, 연면적 819.73㎡, 최고높이 9m(지상2층)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9.09.18./문화재위원 ○○○, ○○○)
 - 가벼운 느낌의 재료 사용 권장. 건축 구성은 가급적 단순한 것을 권장. (재료를 도면에 표기할 것)
 - 현재 재료의 색감과 구성은 나쁘지 않음.(전벽돌과 콘크리트 노출)

- 지붕과 기둥벽과의 만남이 어색한 것 같음. 차양의 깊이도 조절이 필요함. 기둥과 지붕의 끝이 만나게 하기 보다는, 덩어리를 파낸 것 같은 느낌의 열주를 고려해 볼 것.
- 조경을 다시 검토할 필요 있음. 열식이 아닌 분식 권장.
- 초기안의 열주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임. 단, 2층 열주는 지양하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건물이 심플하고 모던하므로 조경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종묘의 조경 참조)
- 평면 레이아웃 재검토 필요.(EV, 화장실 등 코어를 중심으로)
- 외부 담장은 인위적이고 강제 동선을 유도하며 시야를 가리는 것 같음.

(2) 자문의견('19.08.22./문화재위원 ○○○)

- 수공간의 면적 축소 필요. 부지 전체 면적에 비해 알맞은 크기로의 축소가 필요함(관상 뿐만 아니라 이용이 가능한 용도로 조성)
- 기존 정자의 이동 위치 조정 필요
- 중앙 녹지띠의 면적 확대 필요(가급적 포장 면적 축소)
- 식재 수종을 도면에 명시

(3) 자문의견('19.08.18./문화재위원 ○○○)

- A안과 B안 중, A안은 BF등과 관련 어려움이 있으며, 왜색의 이미지가 있어 B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전시관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유적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적의 의미를 알리고 그 이상의 충무공의 업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음.
- 엄숙하고 차분한 느낌이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외부 공간의 이미지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공간 구성(틀)에 벤치와 식생 등이 포함되어 건물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주차장에서 사선으로 진입되는 것은 기능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공간은 필요 공간을 나열한 느낌이므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함. 유적과의 연계를 고려하되 시각적으로 유적으로 열려있는 방향성과 상호 계획 필요.
- 건물 외관의 이미지에서 내부공간과 연계된 엄숙한 이미지 필요
 - 외관의 열주 등은 좋으나 2층 공간이 열주로 되어 있는 것과 1층의 열주 등은 너무 반복적임

- 내부공간 계획과 함께 커를 지나 공간의 깊이가 느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자문의견('19.08.16./문화재위원 ○○○)

- A안은 지붕이 과중하며, B안은 외곽 기둥이 과중함. A,B안 모두 메스가 과중함.
- 면적을 줄이거나 분동을 통해 매스의 과중함을 감소할 필요 있음.
- 건축소재를 목조 등 친자연적인 소재 사용 검토 필요.(현재 콘크리트와 석재 등 사용으로 무거운 느낌 있음)

(5) 자문의견('18.11.20./문화재위원 ○○○)

- 묘당도 맞은편 입구 쪽에 계획된 전시영상관 건립 및 활용은 묘당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정보 제공 및 역사성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 있어 타당하다 생각됨. 단 전시를 위한 유물 취합과 스토리텔링 등을 고려하여 배치 및 형태를 계획할 것이며 기본적인 전시영상관 건립 계획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

3. 강진 정약용 유적 진입로 등 정비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107호 「강진 정약용 유적」 진입로 등 정비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정약용 유적의 진입로, 수목 및 건축물 주변 등에 대한 정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의한 사항임.
- ※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 진입로, 수목 정비 등 설계 용역/1.4억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정약용 유적(사적 제107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39-1 외
- (3) 신청내용<진입로 등 정비 계획 검토>
 - 위치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산103-3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진입로 복토 및 식생매트 설치, 수목 정비, 계단 정비
 - 건물 기단부 주변 복토 정비, 수목 간벌 등

라. 참고사항

- (1) 자문의견('19.06.24./문화재위원 ○○○, ○○○)
 - 다산초당의 진입로는 현재 사용 중인 진입로를 정비하여 사용하고 우회도로 등 인위적 변경으로 기존 경관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 통행로에 있는 잡목 및 삼나무는 제거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계단구간은 보행이 불편하므로 해체 후 계단석 상부를 다듬어 재설치한다.
 - 뿌리길 및 암반구간은 미끄럽고 보행이 불편하므로 함몰 부분을 토사로 채우고 통행로 일부에 식생매트 등을 설치한다. 나머지 구간에도 토사유실 등의 방지를 위해 통로 부분 정도는 식생매트를 설치한다.

- 난간 설치는 최소화하고, 기존 대나무 난간과 같이 대나무를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고 대나무 지주목에는 로프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 다산초당 내원에서 정면 시야를 가리는 수목은 가시성 내의 구간을 정하여 간별하여 외원의 조망을 확보한다. 소나무를 제외한 잡목은 20~30m 범위 내에서 모두 제거한다.
- 다산초당 전면 마당은 흙이 유실되었으므로 복토하여 정리한다.
- 서암의 유실된 기단은 복토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며 경관을 저해하는 정면의 소화전은 측면으로 이설한다.
- 초당 하단부의 연못지로 추정되는 구간은 수목을 제거한다.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목정비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4. 나주읍성 4대문 경관조명 설치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4대문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설치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읍성 4대문 경관조명 설치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부의한 사항임.
-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 '17~'18년/32억원(국·지방비 포함)/나주읍성 서성벽 정비, 쉼터 조성, 4대문 경관조명 설치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1990.10.31.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외
- (3) 신청내용<나주읍성 4대문 경관조명 설치 계획 검토>
 - 위치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경관 조명 설치

구분	성벽		성문	누각		
	투광기 (57W)	BAR (60W)	투광기 (57W)	투광기 (57W)	투광기 (100W)	투광기 (180W)
동점문	48	-	4	4	7	-
서성문	48	-	4	4	-	-
남고문	-	112	2	4	-	8
북망문	77	-	4	4	-	-
소계	173	112	14	16	7	8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9.09./문화재위원 ○○○, ○○○)

- 경관조명의 목적은 관광 또는 행사 연출 등에 두지 않고 문화재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되 주변 도로에서 성문으로서의 인지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상지의 위치, 인구 이동량, 계절별 일몰 시간대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점등시간 및 밝기를 조절하고, 조명으로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명기구가 별도의 조형물이 되어 문화재 자체의 진정성을 훼손하거나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성벽 조명은 전체 360° 이어지는 선 형태의 조명은 지양하고, 대상물에서 적절한 거리를 이격하고 은은하게 비추어질 수 있는 형식의 조명기구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문루의 조명은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모서리 및 기둥 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밝기도 지나치게 밝지 않고 문루의 전체적인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5. 군위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군위군 소재 사적 제374호 「군위 인각사지」 명부전 이건 등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군위 인각사지의 명부전 이건, 종무소 및 요사채 이건을 위한 설계 등 종합정비사업 계획을 검토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490,000천원(설계비, 부지조성비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군위 인각사지(사적 제374호 / 1992.05.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250, 외(화북리)
- (3) 사업내용<명부전 이건 등 종합정비사업>
 - 위치 : 군위 인각사지 일원
 - 사업내용
 - 명부전 이건 1동 : 44.06㎡(13.33평)
 - 2018년 해체부재조립 및 부식부재 교체 보수, 부지조성을 위한 석축정비
 - 기존 사료관 철거 및 사료관 내 전시자료는 국사전으로 이동
 - 종무소 이건 1동 : 60.54㎡(18.31평)
 - 종무소 해체이건 및 부식부재 교체 보수
 - 지반에 맞는 철근콘크리트 내림기초 설치 및 부지 정비
 - 요사채(주지실) 이건 1동 : 79.96㎡(24.19평)
 - 요사채 해체이건 및 부식부재 교체 보수
 - 지반에 맞는 철근콘크리트 내림기초 설치 및 부지 정비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9.07.15./문화재위원 ○○○)

- 제시된 배치계획 및 정비계획 자료에서 초장지역은 2016년도 승인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는 것이 적절함.
- 초창영역과 지원영역 사이의 마당의 선형은 2016년 승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겠음.
- 제시된 정비계획 배치(2019.7.15.)에서 요사채 영역은 2인예 준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지실 및 전시관 위치도 대지 레벨 등을 고려하고, 2016년도 승인 안을 참고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주지실은 요사채, 공양전 영역에 함께 공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검토함.
 - 전시관은 2016년 승인 안과 같이 남측(위쪽)에 배치하고 환기 등을 고려하여 Ramp 등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음.
 - 보각국사탑 하부에는 시설이 없도록 계획 할 필요가 있음.
- 사주문은 추후에 고려하더라도 금법 정비계획에서 설치는 차후 위치 및 발굴 등을 고려하여 고증 후 하는 것이 좋겠음.

(2) 자문의견('19.07.15./문화재전문위원 ○○○)

- 발굴유구의 축선에 따른 담 선형을 따라주는 것이 좋겠음.
- 유물전시관이 남측으로 가고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이 같은 공간으로 묶이면 좋겠음.
- 사주문은 공간 영역의 입구라는 상징성으로 주차장 축선에 있으면 좋겠음.
- 발굴유구의 틀어진 진입부 선형 주의 필요
- 사주문 진입은 도로변 보다는 주지실 밖측 입구여야 현실적으로 동선이 자연스러움
- 요사채는 남측으로 향하여 북측으로 내려움이 좋겠음.
- 주지실을 왼쪽으로 밀어 중심축석에서 벗어남이 좋겠음.
- 사주문의 위치 이동에 따라 종무소, 화장실, 주차장 조정 다시해 봄이 좋겠음.

(3) 자문의견('19.07.15./전 문화재위원 ○○○)

- 초창영역과 중창영역의 정비복원은 발굴결과와 2016년 허가된 정비계획을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 전체적으로 건물의 밀도와 규모도 많이 조정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제시된 안(2019.7.15.)의 주지실 쪽으로 유물전시관을 옮기고 주지실은 요사채, 공양간과 함께 배치요망(경관고려 및 활용고려 등)

- 현 화장실은 현현의 중무실, 사무실 쪽으로 옮기고 사찰공간을 외부와 구획 할 수 있도록 사주문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주문의 위치는 인각사의 서쪽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요.

(4) 자문의견('19.07.15./○○대학교 교수 ○○○)

- 초창영역부분은 2016년도 계획을 지양토록 함
-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은 가능한 동일 공간영역 확보 검토
- 사주문은 후순위 계획에 들 것
- 유물전시관 전시, 설비, 칸막이벽 설치 등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세 내용은 정비계획에 수록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부여 정암리 와요지 보호각 건립 기본계획(안)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 와요지」의 일부 가마 유구를 노출전시하기 위한 보호각 건립 및 보존처리 기본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비 백제 가마터의 특징이 잘 나타난 부여 정암리 와요지의 일부 가마 유구를 노출 전시하기 위한 보호각 건립 및 유구 보존처리 기본계획안을 검토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정암리 와요지(사적 제373호 / 1992.05.04.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 외
- (3) 신청내용
 - 유구 일부(B지구 5~9호 가마) 노출 전시
 - 보호각 우선 건립 후 유구 노출 발굴과 과학적 보존처리 병행
 - 보호각 건립
 - 면적/높이 : 459m²/4.3~5.6m
 - 구조/지붕 : 집성목 구조/티타늄아연판 거멀접기
 - 형태 : 반 개방형(남북방향으로 개방)
- (4) 신청사유
 - 부여 정암리 와요지는 와도 겸용의 쌍가마 형태로 사비백제 시기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가마터로 그 특징이 아주 잘 남아 있어, 일부 가마 유구에 보호각을 건립하고 과학적으로 보존처리하여 구조적·기술적 설명이 어려운 가마터 유적의 전시 효과와 교육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9-10-022

1.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보고

가. 제안사항

경주 월성의 학술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출토유물 수장·정리 및 전시·활용 등을 위하여 발굴조사 운영시설을 신축하려는 설계(안)이 마련됨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은 출토유물 수장·정리 및 전시·활용 등을 위한 시설로서 사적분과 심의를 통해 건립기본계획('15.10.14.) 및 건립 위치 변경 계획('18.10.10.) 승인을 받고,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운영시설 설계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사적 제16호 / 1963.01.21. 지정),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07번지 외 11필지

(3) 신청내용<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검토>

○ 대지면적 : 18,800㎡

○ 건축면적 : 1,851.96㎡

○ 층 수 : 지상 1층

○ 구조 : 철골조

○ 사업예산 : 50억(공사비 47억, 설계비 3억)

(4) 운영시설 용도

- 출토유물의 효율적 보관·관리 및 유적·유물에 대한 학제 간 연구중심센터
- 월성의 역사적·고고학적 성과를 전시·강연 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발굴미디어센터

(5) 신청인 의견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장기 계획 하에 월성 발굴조사와 연구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 변경 부지 인근은 경주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 및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에 따라 출토유물의 전시, 연구성과의 홍보 등 시설의 목적이 기능하는 데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월성의 서쪽/월정교 북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월성학술조사단 현장사무실이 이전함으로써 월성의 경관이 크게 개선되고 월성, 동부사적지, 교촌한옥마을 및 월정교로 이어지는 탐방동선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라. 추진경과

- (1)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15.08.13.)
- (2) 건립 기본계획 문화재위원회 심의(사적분과/'15.10.14.)
- (3) 발굴조사 운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16.09.21.)
- (4) 발굴조사 운영시설 기본설계안 경주시 자문회의('17.01.20.)
 - 건립위치 등 재검토 필요
- (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유관기관 참석 건립부지 재검토 회의('17.11.14.)
- (6)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건립대상지 선정('18.04.26.)
 - 교촌마을 인근 대릉원 일원 내 부지(경주시 황남동 407번지 일원)
 - 발굴현장 접근동선 및 주변 연계 문화재 관람 동선 양호
- (7) 경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18.08.13.)
- (8)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건립 변경계획 자문회의('18.08.22.)
 -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변경부지를 긍정할 수 있음
 - 운영시설을 시작으로 한 새로운 월성 탐방동선을 계획하기 바람
 - 발굴운영시설의 용도와 장기적 운영계획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 있음
- (9) 건립위치 변경계획 문화재위원회 심의(사적분과/'18.10.10.)
 - 원안가결(건축설계안 추후 보고)
- (10) 기본설계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9.08.12.)
 - 주변에 비해 규모가 커 주변환경과 조화로울 수 있는 입면 필요
 - 경주의 지역 특성과 장소에 부합하는 외관 고려

마. 참고사항

- 당해 건물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주 월성 학술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임

바. 의결사항

- 접수
- *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할 것

2.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차장 정비계획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제361호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사적지 내 주차장 경계 보호책 및 화단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정문 주차장의 균열된 콘크리트 경계석과 사적지 경관에 적합하지 않은 사철나무를 제거하는 조경 정비가 필요함
- 주차장 주변에 낮은 경계보호책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무단 침입을 막고 왕릉 디자인 경계울타리로 교체하여 사적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사적 제361호 / 1991.10.25.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90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90(문화재구역)
 - 신청내용
 - 기존 콘크리트 경계석 철거(91m) 후 화강석 설치(122m)
 - 주차장 주변 디자인 울타리 설치(H=1.5m, L=72m, W=1.2~1.9m)
 - 화단 내 사철나무 제거 후 잔디식재(45m²)
 - 콘크리트 옹벽 장대석 돌붙임(28m) 등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9.09.06./문화재전문위원 ○○○, ○○○)
 - 주차장 내 콘크리트 옹벽은 외부면에 돌붙임(장대석)으로, 콘크리트 경계석은 화강석 경계석으로 교체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요함
 - 주차장 화단의 사철나무는 제거하고 왕릉 디자인 웬스와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음

- 웬스 내부에는 낮은 관목류로 수종(전통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함
- 내부 광장은 마사토이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 많으므로 관목류나 초화류를 식재하여 토양을 양호하게 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3. 건축문화재 재해(지진)대응 기술연구를 위한 지반조사 계획 보고 (경주 배동삼릉, 경애왕릉 일대 활성단층 조사)

가. 제안사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건축문화재 재해(지진)대응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경주 배동삼릉 및 경애왕릉 구역의 사적 지질조사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에서는 2017년부터 건축문화재 재해(지진) 대응 기술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국가 지진방재연구를 총괄 추진 중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연구협약을 체결, 지진재해대응과 활성지반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등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음.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에서는 ‘국토 대단층계(양산단층 중부지역) 위험요소 평가연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6년 경주지진의 진앙지를 중심으로 양산단층대 내 활성단층의 분포를 파악하여, 고(古)지진학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금번 조사지역(경주 배동삼릉, 경애왕릉 일대)은, 고해상도 지형자료 분석 결과, 활성단층이 추정되는 곳으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를 통하여 단층의 분포를 확인하고 지진·지질학적 연구 자료 확보 추진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배동 삼릉(사적 제219호 / 1971.04.28. 지정),
경주 경애왕릉(사적 제222호 / 1971.04.28. 지정)
 - (3) 조사기간 : 2019. 10월 ~ 11월(2개월)
 - (4) 추진방법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에스티에이 공동 추진
 - (5) 추진내용 : 추정 단층 주변에 위치하는 대상문화재 2건 인근에서 물리탐사 4축선 및 시추 4공 조사(붙임 1 참조)
- ※ 시추조사는 대상문화재와 최소 70m 떨어진 위치에서 깊이 10m로 실시함.

라. 원상복구 계획

- 이번 시추조사의 경우, 암반층 상부에 위치한 모래, 자갈, 실트 등 충적층 구간까지 또는 풍화대구간까지만 굴착한 경우(구경: 100mm(4") 이하 지질 조사공)로, 조사 후 폐공 처리를 통해 원상 복구할 예정임.
-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은 붙임 2 참조

마. 의결사항

- 접수
- * 시추 시 현장 입회할 것

붙임 1. 경주 배동삼릉, 경애왕릉 일대 물리탐사/시추 예정 위치(안) 1부.

붙임 2. 시추공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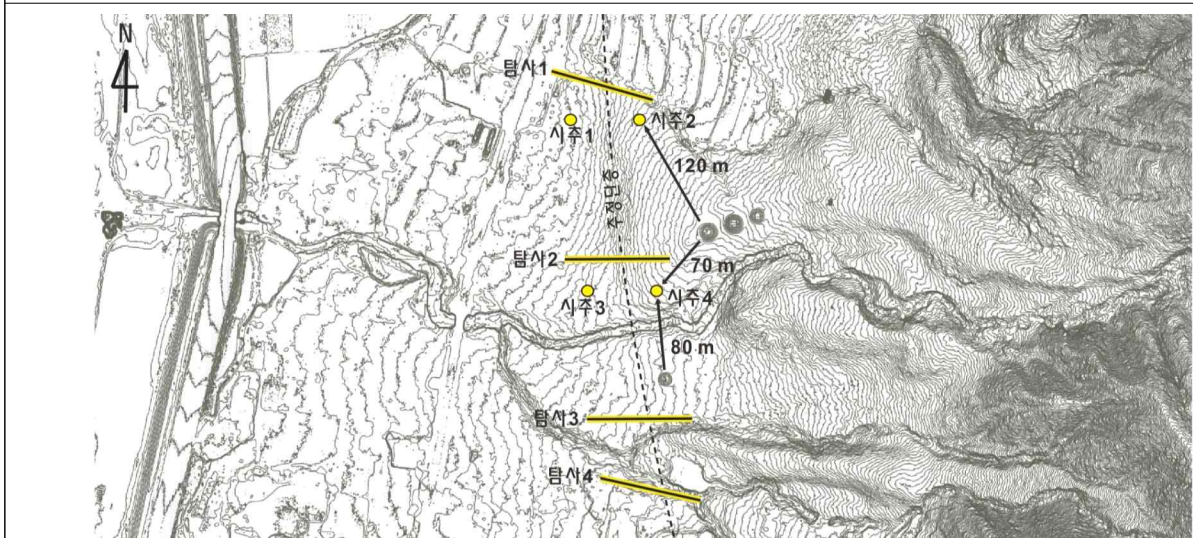
붙임 3. 조사장비 1부.

【붙임 1】 경주 배동삼릉, 경애왕릉 일대 물리탐사/시추 예정 위치(안)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문화재 이격거리	문화재 보호구역
1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삼릉 (사적 제219호)	시추 1번 : 북서쪽 170m	보호구역 외부
			시추 2번 : 북서쪽 120m	보호구역 외부
			시추 3번 : 남서쪽 130m	보호구역 외부
			시추 4번 : 남서쪽 70m	보호구역 외부
2	사적 제222호	경주 경애왕릉 (사적 제222호)	시추 3번 : 남서쪽 110m	보호구역 외부
			시추 4번 : 남서쪽 80m	보호구역 외부

문화재명 **경주 배동삼릉(사적 제219호) 및 경애왕릉(사적 제22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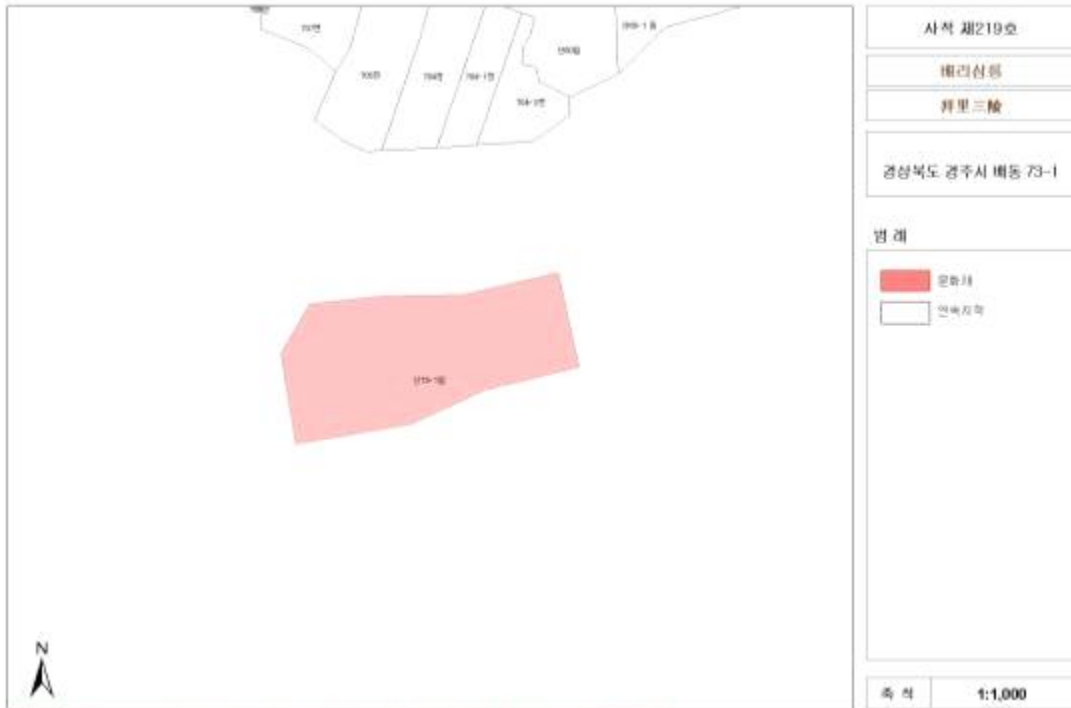
1. 지형도 및 시추위치



문화재명

경주 배동삼릉(사적 제219호) 및 경애왕릉(사적 제222호)

2. 문화재 보호구역(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삼릉)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도의 사용은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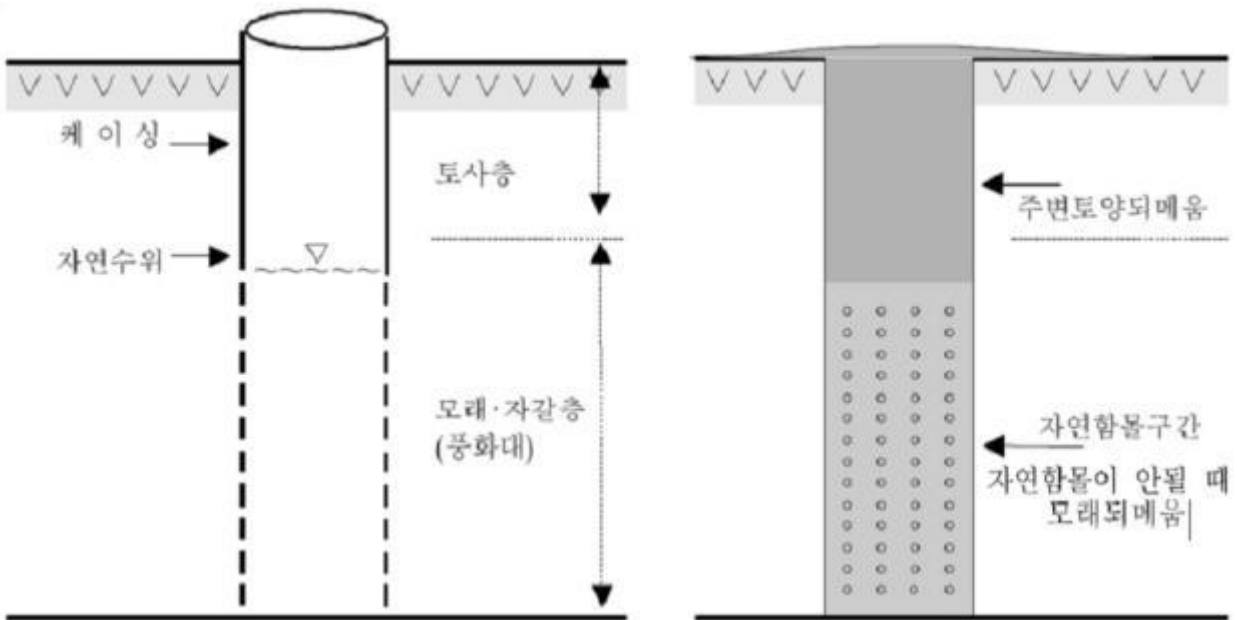
2. 문화재 보호구역(사적 제222호 경애왕릉)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적 외 다른도의 사용은 금합니다.

【붙임 2】 시추공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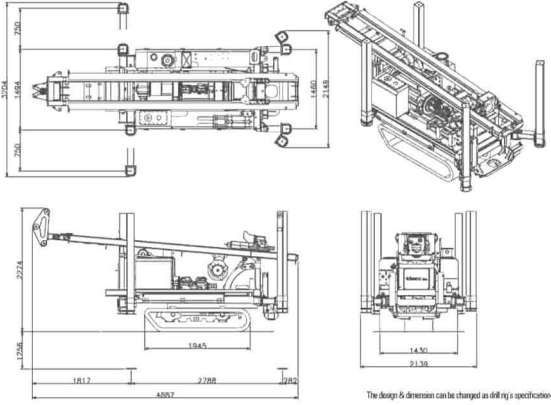
- 주변환경검토 →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 폐공제원조사 →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심도, 재질 등을 조사
- 케이싱 제거 → · 유압작키 등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케이싱을 뽑아냄
- 퇴메움 작업 → · 공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 되게 함
· 함몰이 안될 경우 주변 흙으로 다짐하며 퇴메움
- 주변정리 → · 지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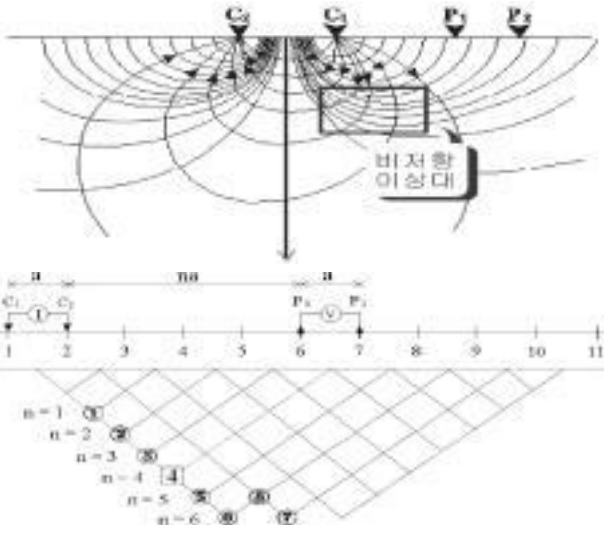
층적층 구조도 및 퇴메움 모식도

【붙임 3】 조사장비

○ 시추조사

시추장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회전 수세식 유압시추기를 이용하여 NX (76 mm)구경 -토사 시료채취는 Split Spoon Sampler, 암반 시료채취는 D-3 Core Barrel 및 Diamond Bit 사용함 -시추작업과 병행하여 지층의 상대밀도와 구성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1.0m 간격으로 표준관입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F-2307)에 의거 연속성 있게 실시함 -채취된 암석코어는 육안관찰에 의하여 암석 내에 분포된 불연속면과 충전물 등을 파악하고, 절리의 분포상태, TCR, RQD 등의 암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주상도에 기재함 -채취된 토질 및 암석시료는 시료상자에 공변, 심도, 지층명, 색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함 -시추조사 완료공은 지하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등에 의거 폐공을 실시함

○ 전기비저항 탐사

물리탐사 모식도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비저항 탐사는 지하에 흘려 보낸 직류 또는 저주파수의 교류 전류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위차를 측정함으로써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결정하고 지하구조를 해석함 -전기비저항탐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극 배열법은 쌍극자법(Dipole-Dipole array), 단극법(Pole-Pole array), 단극-쌍극자법(Pole-Dipole array), 웨너법(Wenner array) 및 슬럼버저법(Schlumberger array)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극배열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신호 대 잡음비(S/N비)는 쌍극자법이 가장 낮고, 슬럼버저법, 단극-쌍극자법, 웨너법, 단극법의 순으로 증가되나, 분해능은 단극법이 가장 낮고 웨너법, 단극-쌍극자법, 슬럼버저법, 쌍극자법의 순으로 증대됨 -따라서, 본 탐사에서는 분해능이 우수하고 단층대, 지질구조, 기반암의 이상유무 등 수직·수평구조 규명에 적합한 배열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장 비 명	탐사장비사진	실 내 분 석
탐 사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ersting R8(AGI, U.S.A) 		
수평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 등간격 전극설치 		
자동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ersting R8(AGI, U.S.A) 		
전류주입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200mA 		

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내에 유적발굴조사 임시사무실 설치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47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경남 김해시	○○○	<유적발굴조사 임시사무실 설치기간 연장>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309-1 외 3필지(문화재구역) ○ 기간 : 2019.1.1.~2020.11. ○ 허가조건 -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조건부 허가	'19.09.23.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	<지반조사4개소>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달구 지동 294-26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지반조사 천공 4개소(구경76mm, 굴착 깊이 15m)	허가	'19.09.16.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	<사찰대응전 보수> ○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1-3(문화 재구역) ○ 사업내용 - 사찰 대응전 및 요사채 지붕기와 해체 및 설치, 미장공사 등	허가	'19.09.25.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역사체험놀이터 조성> ○ 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325-11(문 화재구역으로부터 19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역사체험놀이터 조성 위한 시설물 설치(총면적 1,065㎡, 시설물 설치, 포장 및 식재 등)	허가	'19.08.1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p><지하물리탐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5-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물리탐사 실시(면적 12,800㎡) 	허가	'19.09.16.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군	○○○	<p><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5(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제사테이블 및 임시천막 등) ○ 허가조건 : 행사 기간 내 관람객 관람 환경 보장, 행사 전후 주변정리 철저 	조건부 허가	'19.09.05.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군	○○○	<p><지하물리탐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5-1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물리탐사 실시(면적 8,000㎡) 	허가	'19.09.16.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경북 경주시	○○○	<p><이동통신 중계기 전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61-6(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CP주(H=16m) 1본 - 전주 지름 400mm, 매설 깊이 2m ○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불허	'19.09.20.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	<p><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15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4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 파이프구조, 칼라시트잇기 - 면적 : 1동 384㎡, 2동 116㎡ - 높이 : 6.2m 	허가	'19.09.16.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	○○○	<p><황토콘크리트포장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5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4m 이격/2구역)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규모 : 132m - 포장두께 : 0.4m 	허가	'19.09.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	<p><역사테마탐방로 조성(허가사항 변경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설치 4개소, 문화재 안내판 교체 2개소, 안내판 신설 6개소, 보행로 포장재 교체, 노후웬스 도색 및 로프교체 1000경간, 안전웬스 교체178경간 	허가	'19.09.27.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p><2019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500번지 8호(문화재구역 내외) ○ 일정 : 2019.10.1.(화)~10.13.(일)/13일간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대책 마련 	조건부 허가	'19.09.23.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p><위험 고사목 제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71 호국사 경내(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나무 2주 제거 	허가	'19.09.26.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p><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궁남로 52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무대, 천막, 테이블 등) ○ 허가조건 : 문화재 내 화기(가스포함) 및 폭죽사용 금지,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예방 철저, 행사 후 주변 정리 철저 	조건부 허가	'19.09.26.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전북 고창군	○○○	<p><제46회 고창모양성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7번지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명 : 제46회 고창모양성제 - 행사기간 : 2019.10.3.~10.7. - 행사용 시설물 설치(세부사항은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따름) 	허가	'19.09.1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7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성화봉송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 허가조건 : 서석탑으로부터 최대한 이격거리 확보하여 봉송동선 조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화재시 대응계획 수립 선행 	조건부 허가	'19.08.26.
사적 제150호 익산 미륵사지	전북 익산시	○○○	<p><주택진입도로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산27-5(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진입도로 설치(23㎡) 	허가	'19.09.24.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	<p><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376-4(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99㎡ - 구조 : 경량철골조 - 지붕 : 징크마감 - 최고높이 : 5.6m 	허가	'19.09.16.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	<p><국방군사시설(고가초소)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379(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 연면적 7.6㎡, 최고높이 3m, 철근콘크리트조 - 철거 : 기존 고가초소 5.04㎡(2.1×2.4) 	허가	'19.09.19.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1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51-1, 35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5.2㎡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아스팔트싱글 - 층수/최고높이 : 1층/6.4m - 토공사 : 순성토 92.1㎡ - 배수공사 : 우수처리(U형플룸관 D300 18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와 소재로 할 것 - 터파기 시,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19.09.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2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51, 35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5.2㎡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아스팔트싱글 - 층수/최고높이 : 1층/6.4m - 토공사 : 순성토 107.1㎡ - 배수공사 : 우수처리(PE이중벽관 D500 21m, U형플륨관 D300 19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와 소재로 할 것 - 터파기 시,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19.09.16.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3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51, 35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4.34㎡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아스팔트싱글 - 층수/최고높이 : 1층/5.0m - 토공사 : 순성토 204.2㎡ - 배수공사 : 우수처리(U형플륨관 D300 13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와 소재로 할 것 - 터파기 시,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19.09.16.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4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5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4.34㎡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아스팔트싱글 - 층수/최고높이 : 1층/5.0m - 토공사 : 순성토 183.3㎡ - 배수공사 : 우수처리(PE이중벽관 D300 17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와 소재로 할 것 - 터파기 시,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19.09.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5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5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4.34㎡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아스팔트싱글 - 층수/최고높이 : 1층/5.0m - 토공사 : 순성토 75.1㎡ - 배수공사 : 우수처리(PE이중벽관 D300 17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와 소재로 할 것 - 터파기 시,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19.09.16.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경북 경주시	○○○	<p><단독주택 신축(6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35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6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85.2㎡ - 구조/지붕 : 경량철골구조/아스팔트싱글 - 층수/최고높이 : 1층/6.4m - 토공사 : 순성토 23㎡ - 배수공사 : 우수처리(U형플롭관 D300 10m, PE이중벽관 D300 8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기와 소재로 할 것 - 터파기 시, 입회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19.09.16.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	<p><야생생물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번지 91호(문화재구역) ○ 규격 : 길이1,630cm×높이 1,700cm ○ 수량 : 1개 	허가	'19.08.27.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	○○○	<p><야생생물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번지 99호(문화재구역) ○ 규격 : 길이1,630cm×높이 1,700cm ○ 수량 : 1개 	허가	'19.08.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	<p><검단신도시 조성지 근린공원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29번지 6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093m² - 조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화류 식재 : 구절초 등 5개종 18,500본 · 고인돌길 경화토 포장 : 1,008m² · 편의시설 설치 : 휴게데크 197m² / 그늘막 4개소 / 앉음벽 산석 80m 	허가	'19.08.09.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	<p><등산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12번지 1번지 일원(1구역) ○ 대상지 : 길이 약 980m × 폭 3~4m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시설 철거: 안내판 15개, 파고라 1개, 의자 8개, 체력단련시설 8개, 목계단 57단, 경계석 89m, 목교 1개소 철거 등 - 쉼터정비 : 체력단련시설 10개소, 의자 10개소, 쇄석포장 182m², 산철쭉 510주, 애기나리210본, 맥문동 940본 식재 등 - 기타: 방향안내판(5개소), 목교(1개소), 원주목계단(42단), 연결계단(2개소) 설치, 야자매트(35m) 포장 등 	허가	'19.09.19.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	<p><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6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9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754m² - 건축면적/연면적 : 496m²/496m² - 최고높이 : 8m - 건축규모 : 지상1층 / 3동 / 경사지붕 - 용벽 : 보강토 용벽(높이0.5~3.7m×120.03m), L형용벽(높이0.5~2.2m×29m) 	허가	'19.08.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	<p><근린생활시설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84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6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280㎡ - 건축면적/연면적 : 496㎡ / 496㎡ - 건축규모 : 지상2층 / 7.5m / 경사지붕 / 3개동 - 용벽높이 : 1단 높이 3.0m~3.8m / 2단 높이 4.5m) 	허가	'19.09.11.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65번지 9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816㎡ - 건축면적/연면적 : 199.65㎡/199.65㎡ - 건축규모 : 지상1층 / 최고높이 8.1m / 평지붕 / 1동 - 용벽 : 높이0~5m/ 길이 74.4m - 기타 : 일반철골구조 	허가	'19.09.13.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9번지 664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402㎡ - 건축면적/연면적 : 211.87㎡/211.87㎡ - 최고높이 : 4m - 건물규모 : 지상1층 / 2동 / 경사지붕 - 진출입로 : 폭6m, 길이56m - 절성토량 : 31㎡ / 716㎡ 	허가	'19.08.26.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단독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번지 728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100㎡ - 건축면적/연면적 : 400㎡/800㎡ - 최고높이 : 7m - 건축규모 : 지상2층 / 평지붕 / 일반철골조 	허가	'19.08.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	<p><태양광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635-14(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3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시설물 설치(부지면적 1,322㎡, 허가면적 852㎡) 	허가	'19.08.12.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립사지	충남 부여군	○○○	<p><건축물 상부 태양광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73-12(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상부 태양광시설물 설치(1,084㎡, 설치면적 970㎡) 	허가	'19.09.0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p><전기차 충전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725(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기 수량 : 100kwh×2ea - 설치면적 : 36.5㎡ - 최고높이 : 2m - 터파기 : 1.3m ○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복토 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터파기를 수반하는 시설물의 설치에 매장문화재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불허함 	불허	'19.09.20.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 요지	충남 공주시	○○○	<p><다세대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63-4, 663-5(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신축(연면적 657.72㎡, 높이 17.5m) ○ 허가조건 : 시굴조사선행 	조건부 허가	'19.06.24.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 요지	충남 공주시	○○○	<p><다세대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63-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5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세대주택 신축(연면적 657.72㎡, 높이 17.5m) ○ 허가조건 : 시굴조사선행 	조건부 허가	'19.09.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2019 허왕후 신행길 축제 개최> ○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431번지 수릉원 일원(1구역) ○ 사업내용 : 무대1개소, 부스30개소, 간이의자 ○ 허가조건 - 안전관리 대책 마련	조건부 허가	'19.09.17.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북 고창군	○○○	<농악공연 행사 개최> ○ 위치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56번지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행사명 : 히스토리 감성농악 '광대, 1984' - 행사일시 : 2019.9.19.~9.20. - 시설물 설치(세부사항은 제출한 행사 계획서에 따름)	허가	'19.09.11.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전북 익산시	○○○	<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산 80-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행사부스 등) ○ 허가조건 :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철 저, 행사 후 주변 환경정리 철저, 행 사 기간 내 소원등 외 화기 및 폭죽 사용 금지	조건부 허가	'19.08.26.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전북 익산시	○○○	<발굴조사 물품보관용 임시시설물설 치>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1-30(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발굴조사 물품보관용 임시시설물 설 치(1동)	허가	'19.09.09.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 유적	충남 공주시	○○○	<무허가축사 양성화>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169-5, 169-18(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6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무허가축사 양성화(1동, 연면적 394.93㎡)	허가	'19.08.12.
사적 제435호 부여 금강사지	충남 부여군	○○○	<무허가축사 양성화> ○ 위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148-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6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무허가축사 양성화(1동, 연면적 250.53㎡, 최고높이 5.7m)	허가	'19.08.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충남 부여군	○○○	<p><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로 4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용 임시시설물 설치(주무대, 행사용천막 등) ○ 허가조건 : 행사 후 문화재 내 주변 환경정리 철저 	조건부 허가	'19.09.06.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	<p><헌다례 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96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군 내 : 고분군에 차를 뿌리는 행사(100여 명) - 고분군 외(주차장) : 텐트, 테이블, 의자, 돛자리, 일회용 가스렌지 등 준비 시설 설치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조건부 허가	'19.09.27.

다. 의결사항

- 접수